

E 02-2010-04 | 2011.1 |

제12권 제4호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일반인이 북한농업을 이해하고 정부가 대북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연구팀이 북한의 최근 농업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이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1년에 4회(1, 4, 7, 10월) 발간되며,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 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북한농업정보”

- 연락처: 전화 02-3299-4359 전송 02-968-7340

- 내용 문의:

김영훈 kyhoon@krei.re.kr 02-3299-4367

권태진 kwontj@krei.re.kr 02-3299-4255

남민지 mj0801@krei.re.kr 02-3299-4359

정유석 jys0914@krei.re.kr 02-3299-4126

목 차

1 포커스

- ▶ 2011년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 3
- ▶ 〈자료〉 FAO/WFP, 북한 곡물작황 및 식량수급에 대한 평가 25

2 2010년 특별기획: 대북 농업지원사업의 성과와 문제

- ▶ 「겨레의 숲」의 북한 산림협력사업 - 추진 과정과 과제 45

3 북한농업 동향

- ▶ 북한매체 보도 동향 65
- ▶ 국내매체 보도 동향 83

4 농업교류협력 동향

-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94
 -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94
 - 2. 대북지원 동향 108
 - 3.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109
-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16
 -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116
 - 2.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기구 동향 121
 - 3. 북중 교역 동향 125

5 북한의 농업관련연구

- ▶ 자연자원과 사회주의사회에서 그 이용의 특징 136
- ▶ 생물 산업의 환경보호 역할과 그 우월성 138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1

포커스

2011년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
〈자료〉 FAO/WFP, 북한 곡물작황 및 식량수급에 대한 평가

2011년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

권 태 진¹⁾

남 민 지²⁾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2010/11 양곡연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조곡 기준 533만 톤으로 추정하였다. 벼의 정곡환산율을 감안하여 정곡으로 환산한 생산량은 448만 톤이다. 이는 전년도 곡물 생산량에 비해 3.1% 증가한 것이다. FAO와 WFP는 금년도 북한의 정곡 기준 곡물 소요량을 535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87만 톤의 곡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북한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곡물을 상업적으로 수입할 경우 곡물 부족량은 54만 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한국의 농업전문가들은 FAO와 WFP의 곡물 생산량 추정치가 실제보다 더 높게 추정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개인의 텃밭이나 경사지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제외한 공식부문의 곡물 생산량은 400만 톤 정도이며 비공식부문 생산량을 포함하더라도 북한의 곡물 총생산량은 420~430만 톤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금년도 북한의 곡물 부족량은 100만 톤을 넘어설 전망이다. 상업적 수입량을 감안하더라도 70~80만 톤 정도의 곡물이 부족하며 중국 등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을 감안하면 부족량은 50만 톤 내외가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지난해보다 증가하지 않을 경우 금년도 북한의 식량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곡물시장의 최근 움직임은 북한의 식량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밀, 옥수수, 대두의 국제시장 가격은 지난해 같은 시점에 비해 50~90% 상승하였으며 중립종 쌀 가격도 10% 이상 상승하였다. 특히 중국은 극심한 가뭄으로 밀 생산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지역이나 개별 가구 차원의 식량안보는 국가 전체의 식량사정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는 주민의 사적 경제활동 범위와 시장의 곡물가격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정부의 외환 및 시장 통제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한다.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목표로 금년에 외환과 시장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경우 시장의 곡물 가격은 더욱 상승하게 되고 이는 주민의 식량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미래의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식량비축을 더욱 강화할 경우에도 당장의 식량문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군인들의 식량사정은 상대적으로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북한이 금년도 식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와 국제관계를 개선하는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핵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를 가지고 6자회담에 복귀하고 남북한 관계를 개선할 경우 미국과 한국의 식량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의 식량부족 상황은 크게 완화될 것이다. 다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분배의 투명성 확보나 모니터링 방식 개선 등 국제규범에 맞는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wontj@krei.re.kr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mj0801@krei.re.kr

1. 서 론

북한의 식량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북한은 늘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금년 겨울은 그 정도가 좀 더 심각한 것 같다. 지난해 가을 수확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식량 수입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곡물 가격은 계속 치솟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 미국에 식량지원을 요청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미국에 2009년 중단된 식량지원 사업을 재개해 주도록 요청하면서 미국 정부의 분배감시 요구를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³⁾ 이와 관련하여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2011년 2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북한의 작황 실태와 식량안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한다.⁴⁾ 미국 정부는 2008년 5월에 50만 톤 규모의 대북 식량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세계식량계획(WFP)과 ‘머시코’ 등 미국의 민간단체(NGOs)를 통해 169,000여 톤의 식량을 북한에 전달하였으나 분배감시 문제가 제기되면서 2009년 9월 식량지원 사업이 중단되었다. 북한은 전달되지 않은 나머지 33만여 톤의 식량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다.

식량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국내 작황이다. 북한의 경우에는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외화난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원 또한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개별 가구의 입장에서는 식량 구입 능력이 가정의 식량 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의 상황은 거시적인 변수와 미시적인 변수 모두 호의적이지 않다.

금년에도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농업과 경공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들 부문은 인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농업과 경공업 생산 증대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다.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에서 매년 먹는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으나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다. 자체적인 역량만으로는 상황을 반전시킬만한 힘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북핵 문제의 진전이 없

3)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2011. 2. 1. “미 국무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계획 없어” (<http://www.voanews.com/korean/news/StateDept-North-Korea-115000764.html>).

4)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2011. 2. 3. “WFP·FAO, 북한 식량 상황 합동조사” (<http://www.voanews.com/korean/news/WFP-FAO-NKorea-115193799.html>).

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나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도 어렵기 때문에 외부의 지원을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도 기대하기 힘들다.

늘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식량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연간 곡물 소요량은 얼마나 되나? 국제사회에서 발표되는 북한의 식량 생산량 추정치를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 북한의 비공식적인 식량생산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주민생활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가? 북한의 상업적 곡물 수입 규모와 국제사회의 지원량은 어느 정도인가? 주민들은 식량을 어떻게 조달하며 시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금년도 북한의 식량사정은 어떤 것으로 예상하는가?

북한에 대한 정보의 제약 하에서 이러한 물음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자세하게 밝히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용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부분적이거나 해답을 찾는다면 대북 정책 수립이나 북한과의 협력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 글에서는 2011년 북한의 식량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를 정리하고 수급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2. 2010년 북한의 식량수급 실태

북한은 식량수급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곡물생산량 및 소비량을 알고자 한다면 농촌진흥청,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의 추정치, 그리고 농업전문가의 추정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농촌진흥청은 태양력을 기준으로 특정 연도(1월~12월)의 곡물생산량을 추정하여 발표하지만 FAO/WFP는 양곡연도(11월~10월)를 기준으로 곡물생산량과 소요량 추정치를 발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개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특정 연도의 곡물공급량을 파악할 경우 양 기관의 추정치를 같은 잣대로 비교해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2010년도 북한의 곡물공급량을 파악코자 할 때 농촌진흥청의 2009년도 곡물 생산량 추정치와 FAO/WFP의 2009/10 양곡연도 추정치는 개념적으로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기준에 의해 추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2010년도에 북한이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곡물은 2009년 가을에 생산한 곡물이다 2010년 초여름에 이모작으로 수확하는 곡물을 합한 것이다. 그러나 연도 초에 그 해의 곡물 공급량을 파악코자 할 때 당해 연도의 이모작 수확량을 짐작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전년도 이모

작 생산량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 경우 양 기관의 추정치는 사실상 같은 잣대로 추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2009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411만 톤(정곡기준)으로 추정하였으나 작물별 생산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표 1). 2008년까지의 곡물 생산량은 쌀, 옥수수, 보리, 밀, 콩, 잡곡뿐만 아니라 감자의 생산량을 곡물로 환산하여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2009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2009년 북한의 기상은 곡물 생산에 긍정적이지 않았으며 특히 7월 중순 이후 3주 동안 계속된 가뭄은 농작물 생산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게다가 한국의 대북 비료 지원 중단으로 비료의 공급이 원활치 않았으며 농기계 연료 부족 등 농자재의 공급이 전반적으로 감소함으로써 평년작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하였다.

표 1. 농촌진흥청의 2008년과 2009년 북한 곡물 생산량 추정치(정곡 기준)

구 분		계	쌀	옥수수	두류	서류	맥류 및 잡곡
2008년	재배면적 (1,000ha)	1614	587	526	139	201	137
	수량 (톤/ha)	-	3.17	2.89	1.15	2.54	1.76
	생산량 (만 톤)	431	186	154	16	51	24
2009년 생산량 (만 톤)		411	NA	NA	NA	NA	NA

* 감자와 고구마는 곡물(정곡) 환산율 25% 적용.

FAO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2009/10 양곡연도의 북한 곡물생산량을 추정하면 495만 톤(조곡기준, 정곡기준 380만 톤, 텃밭 및 경사지 제외)으로 추정된다(표 2). 이는 농촌진흥청의 추정치 보다 30만 톤 가까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텃밭과 경사지의 생산량 22.5만 톤(조곡기준, 17만 톤)을 합할 경우 전체 곡물 생산량은 399만 톤(정곡기준)으로 농진청의 추정치보다 12만 톤 정도 낮다.

농촌진흥청과 FAO의 곡물 생산량 추정치 차이는 재배면적 차이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 크다. 농촌진흥청의 경우 감자를 포함한 곡물 재배면적을 161만 ha로 추정하는데 비해 FAO는 2008년 154만 ha, 2009년 144만 ha로 추정하였다. FAO가 추정한 2008년과 2009년의 곡물 재배면적 차이는 감자 재배면적 감소에 기인한다. FAO는 2008

년 가을감자 재배면적을 181,000ha로 추정하였으나 2009년에는 50,000ha로 추정함으로써 양 연도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인다. 추세로 보아 2008년의 가을감자 재배면적이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FAO는 북한의 통상적인 곡물재배면적을 145만 ha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추정하는 곡물재배면적과 15만 ha 정도의 격차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FAO의 곡물재배면적 추정치에다 텃밭과 경사지 재배면적까지 포함할 경우 FAO의 곡물재배면적 추정치는 농촌진흥청의 추정치에 비해 15만 ha 정도 더 넓다. 농촌진흥청은 곡물재배면적 추정치에 텃밭과 경사지 면적을 포함하였는지의 여부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 기관의 재배면적 추정치가 동일한 기준에서 산정되었는지를 비교하기는 어렵다.

FAO가 경사지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곡물생산량 추계에 포함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20,000ha 정도의 텃밭 면적은 포함하였으나 경사지 재배면적은 포함하지 않았다. 경사지 재배면적을 공식적인 곡물 생산량 추계에 포함하기 시작한 2004년 당시에는 텃밭과 경사지의 곡물 재배면적을 10만 ha로 추정하였으나 점차 그 면적이 늘어나 최근에는 30만 ha를 넘어서고 있다.

표 2. FAO의 2008년과 2009년의 곡물 생산량 추정치 비교(조곡 기준)

구 분	2008년			2009년		
	면적 (천ha)	수량 (톤/ha)	생산량 (천톤)	면적 (천ha)	수량 (톤/ha)	생산량 (천톤)
본답(A)						
쌀	570	2.90	1,657	569	4.10	2,336
옥수수	503	2.81	1,411	503	3.39	1,705
감자	181	2.20	380	50	2.79	139
콩	82	1.39	114	68	2.00	149
기타	-	-	-	13	1.78	22
소 계	1,336		3,562	1,203		4,352
이모작(B)						
밀/보리	74	2.32	173	104	1.95	203
감자	131	3.20	419	133	2.94	390
소 계	20		59	23		59
합 계(A+B)	1,542	-	4,154	1,441	-	4,945
텃밭(C)	25	3.00	75	25	3.00	75
경사지 등(D)	300	0.50	150	300	0.50	150
총 계(A+B+C+D)	1,867	-	4,379	1,776	-	5,170

* ()안은 정곡환산량.

* 2008년의 콩 생산실적에는 기타 곡물 포함.

* 2008년과 2009년의 이모작은 각각 이듬해(2009년 및 2010년) 초여름에 생산된 이모작 작물의 생산량임.

2010년 북한은 중국에서 총 313,694톤의 곡물을 수입하였다. 2009년 수입량 203,364톤과 비교할 때 54%나 증가한 것이다(표 3). 2010년 곡물 수입에 지출한 외화는 1억 1,517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80%나 증가하였다. 가장 많이 수입한 곡물은 밀가루이며 옥수수, 쌀 순으로 수입량이 많다. 금액 면에서는 밀가루가 전체 곡물 수입액의 35%, 쌀이 31%, 옥수수가 20%를 차지한다.

2010년 북한의 곡물 수입 특징은 밀가루와 쌀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옥수수와 콩의 수입량은 큰 변화가 없었다. 곡종별 톤당 평균 수입단가는 콩이 587달러로 가장 높고 이어 쌀 422달러, 밀가루 352달러, 옥수수 268달러 순이다. 2009년에 비해 모든 곡물의 수입 단가가 상승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콩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다. 2010년 중국의 콩 수입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2010 양곡연도에 북한이 외부에서 지원받은 곡물량을 아직 정확히 추계하기 힘들지만 예년 수준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의 대북 식량지원이 대폭 감소한데다 한국을 비롯한 개별 국가의 양자 지원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북한의 수해 지원을 위해 일부 민간구호단체에서 소규모의 식량을 지원했을 뿐 전년에 이어 정부차원의 대규모 식량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대북 수해지원을 위해 5천 톤의 쌀을 지원키로 하였으나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하면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전면 중단하였다. 한국 정부는 2000년부터 북한에 차관 형식으로 연간 30~40만 톤의 식량을 거의 매년 제공하였으나 2007년 이후 북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식량 지원을 전면 중단하였으며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무상 지원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EU 국가에서도 정부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은 거의 없었으며 일부 민간구호단체들이 소규모의 대북 식량지원에 동참하였을 뿐이다.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다자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액은 1,350만 달러에 불과하였다.⁵⁾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의 절반 이상은 유엔긴급구호기금(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을 통해 추진된 것이다.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최근의 지원 추세를 감안하면 10~20만 톤 정도일 것으로 짐작된다.

5) UNOCHA(유엔인도지원사무국)의 Financial Tracking Service

(http://fts.unocha.org/pageloader.aspx?page=search-reporting_display&CQ=cq050211072141s9n8rwQC0)의 WFP를 통한 2010년 대북 식량 원조액 중 실제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금액을 합산하면 13,566,986달러이며 이중 실제 전달된(contributed) 금액은 8,103,700달러임.

표 3.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실적, 2009~2010

단위: 수입량(톤)

품 목 HS코드	보 리 1003	옥수수 1005	쌀 1006	잡 곡 1007~08	밀가루 1101	두 류 1201	합 계
2009. 1	0	0	2,621	0	1,248	0	3,869
2	0	2,670	4,022	0	928	0	7,620
3	350	1,492	6,191	0	2,352	3,277	13,662
4	0	1,574	3,474	0	1,431	8,903	15,382
5	0	15,966	6,489	54	2,942	12,566	38,017
6	0	30,884	5,331	155	1,872	829	39,071
7	0	7,748	6,419	0	10,545	75	24,787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0	22,785	19,141	59	18,949	22	60,956
2009.1-12	350	83,119	53,687	268	40,265	25,701	203,364
2010. 1	0	3,448	8,425	104	304	1,553	13,834
2	955	324	1,908	200	75	255	3,717
3	50	4,951	5,978	52	8,682	75	19,788
4	6	6,569	3,604	154	12,373	13,741	36,447
5	0	16,122	4,490	222	12,591	4,846	38,271
6	0	9,351	2,916	47	14,318	2,706	29,338
7	0	12,203	6,223	0	3,601	0	22,027
8	0	9,047	4,831	0	2,787	58	16,723
9	0	5,764	11,830	60	11,573	1,222	30,449
10	0	4,770	12,933	60	15,815	915	34,493
11	10	8,546	9,231	0	17,374	145	35,306
12	0	6,536	11,578	120	14,818	250	33,301
2010.1-12	1,021	87,630	83,947	1,019	114,311	25,766	313,694

주 : 2009년 8월 이후 중국은 북중교역 통계를 발표하지 않다가 12월에 다시 발표함. 2009년 12월의 통계치는 8-12월의 누계임.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2010년 북한의 곡물 총공급량은 480~490만 톤 내외로 최소소요량 530만에는 40~50만 톤 정도 부족하였을 것으로 추산된다. 곡물 총공급량 가운데는 자체 생산량 410만 톤에다 상업적 수입량 30만 톤,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원액 20만 톤 내외, 밀수 및 주민들의 비공식적인 식량생산량 20~30만 톤을 포함한 것이다. 다만 북한 내 비공식적으로 수입되거나 생산된 곡물이 어느 정도인지, 중국의 대북 식량 지원량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부족량을 추산하기는 어려우나

식량 수급 상황이 여전히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에는 곡물 가격이 연중 높은 상태로 유지되었으며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이 감소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식량난은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2009년 11월 말 화폐개혁 조치를 취한 이후 시장통제, 외환통제를 실시하여 주민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소득 창출 기회는 차단되었으며 시장의 물가마저 폭등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은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였다. 화폐개혁 직후 시장의 쌀 1kg 가격과 달러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출발하였으나 당국의 외환 통제에 따라 2010년 봄부터 달러 가격이 급등하였으며 시장 활동 통제가 이어지면서 식량 가격도 덩달아 상승하였다. 2010년 8월 이후 북한의 곡물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발하면서 북한 내 시장의 불안정이 확대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됨으로써 외환과 곡물 가격이 동시에 급등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9년 북한의 곡물 작황이 좋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비하여 상업적 수입을 대폭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이 미미하였기 때문에 2010년 북한의 식량사정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2011년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

가. 식량 공급 전망

북한의 곡물생산량을 추계하여 발표하는 기관은 국제기구인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 그리고 한국의 농촌진흥청 두 곳이다. 미국의 농무성(USDA)은 일부 작목만을 대상으로 추정치를 발표한다.

FAO/WFP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북한의 곡물생산량과 소비량을 추정하여 발표하였으나 그 후 몇 년 동안 발표를 중단하였다. FAO/WFP는 2008년 가을에 북한의 곡물 수급을 다시 추정 발표하였으나 이듬해인 2009년에는 또 다시 중단하였다. FAO/WFP는 2010년 11월 중순에 2010/11 양곡연도의 북한 작황 추정을 재개하면서 전년도 곡물생산량을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⁶⁾

6) FAO/WFP. Nov. 16, 2010.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농촌진흥청은 매년 초 전년도 곡물생산량 추정치를 발표해왔다. 가장 최근 발표된 추정치는 2009년 곡물생산량이며 2010년 추계치는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

현 시점에서 2011년 북한의 식량공급량을 전망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FAO/WFP의 추정치가 유일하다. FAO/WFP는 2011년 북한이 자체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알곡은 조곡 기준 533만 톤(정곡 기준 448만 톤)이라고 추정하였다(표 3).⁷⁾

표 3. FAO의 2008년과 2009년의 곡물 생산량 추정치 비교(조곡 기준)

구 분	2010/11 양곡연도			2009/10년 대비 증감		
	면적 (천ha)	수량 (톤/ha)	생산량 (천톤)	면적 (%)	수량 (%)	생산량 (%)
본답(A)						
쌀	570	4.26	2,426	0.1	3.6	3.7
옥수수	503	3.35	1,683	-0.1	-1.2	-1.3
잡곡	13	1.52	19	0.0	-17.2	-17.3
감자	48	3.30	158	-3.8	15.4	12.2
콩	90	2.00	154	24.2	-27.7	3.2
소 계	1,224	3.63	4,441	1.7	0.4	2.0
이모작(B)						
밀/보리	104	2.32	240	-0.7	19.1	15.4
봄감자	133	3.20	427	0.4	8.2	8.5
소 계	237	2.81	667	-0.1	11.1	11.0
합 계(A+B)	1,461	3.50	5,108	1.4	1.8	3.2
텃밭 및 경사지(C)	325	0.69	225	0.0	0.0	0.0
총 계(A+B+C)	1,786	2.99	5,333 (4,480)	1.1	1.9	3.1

주 1: ()안은 정곡환산량이며 쌀만을 대상으로 정곡환산율 65% 적용.

2: 감자는 곡물환산율 25% 적용.

자료: FAO/WFP. Nov. 16, 2010.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여기에는 쌀, 옥수수, 콩, 잡곡뿐만 아니라 감자를 곡물로 환산한 양까지 포함된다. 시기적으로는 2010년 가을 수확량과 2011년 초여름 이모작으로 수확할 예정인 곡물을 모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7) FAO/WFP는 쌀만 정곡으로 환산하였으나 사람이 식용으로 섭취할 수 있는 곡물의 양을 파악코자 할 때는 옥수수, 밀, 보리, 잡곡 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의 정곡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 한국의 경우 통상 옥수수 85%, 밀/보리 70%, 콩 100%, 기타 70%의 정곡환산율을 적용하며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정곡기준 곡물생산량은 412만 톤으로 추정됨.

두 포함한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국영농장과 협동농장에서 집단적으로 생산된 곡물뿐만 아니라 개인이 텃밭이나 경사지에서 생산한 곡물까지 포함된다.

텃밭과 경사지의 면적을 정확히 추정하기란 어려우며 더구나 여기서 생산되는 곡물 생산량을 추정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다.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의 경우 가구당 30평 정도의 텃밭이 허용되며 도시의 경우 10평 내외의 텃밭을 가꾼다. 농촌지역 가구를 200만 호로 가정하면 농촌지역의 텃밭면적은 20,000ha 가량 된다. 여기에다 도시지역의 텃밭면적을 더하면 전체 텃밭면적은 25,000ha로 추산된다. 텃밭은 공식적 개인에게 허용된 것이며 북한 헌법에도 텃밭 생산물은 개인의 소유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텃밭의 농작물 수량은 매우 높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많은 경우 텃밭에서는 채소가 재배되지만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옥수수, 콩, 감자 등 곡물류가 재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텃밭의 곡물 수량 ha당 3톤으로 가정하면 텃밭에서 생산되는 곡물은 75,000톤으로 추정된다.

텃밭과는 달리 경사지 경작은 대부분 불법이며 그 면적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북한의 국토환경보호성은 2008년 30~35만ha의 경사지가 산림황폐지라고 밝힌 바 있어 이 수치를 인용하면 경사지 경작면적을 약 30만ha로 추정할 수 있다. 경사지에서는 대부분 곡물이 재배되지만 생산성은 높지 않다. 경사지는 토심이 얇고 토양의 비옥도가 낮은 데다 자연 강우에 의존하여 재배관리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ha당 수량은 0.5톤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사지의 곡물 수량을 0.5톤이라고 가정하면 경사지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생산량은 150,000톤 정도가 된다. 따라서 텃밭과 경사지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합산하면 225,000톤으로 추산된다.

2010년은 영농에 호의적인 기상여건이 아니었다. 겨울은 혹독하게 추웠으며 봄철 파종기의 기온이 낮아 파종작업이 지연되었다. 8월 중순부터 9월에 이르는 벼 등숙기에는 흐린 날씨에다 강우까지 겹쳐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하기도 어려웠다. 신의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8월 하순부터 9월 상순까지 호우로 인해 홍수가 발생하였다. 이같이 불리한 기상여건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예년에 비해 더 많은 비료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북한 농업성에 의하면 2010년에는 총 498,816톤(중량 기준, 성분량 기준 109,000톤)의 화학비료를 사용함으로써 전년에 비해 10% 이상 더 많은 비료를 사용하였다고 한다(표 4).

자체 비료 생산은 많지 않았지만 중국으로부터의 비료 수입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비료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2010년 동안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의 총량은

287,294톤으로 2009년의 105,893톤과 비교할 때 2.7배에 해당한다(표 5). 하지만 비료의 수입시기가 늦어 필요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비료를 사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표 4. 북한의 비료 수급, 2008~2010

단위: 중량 톤

비종	연도	국내생산	수입	지원	전년이월	사용량	재고량
N(유안 기준)	2010	174,350	274,580	24,670	3,000	475,100	1,500
	2009	170,090		266,817	900	434,807	3,000
	2008	256,800	180,500	657	1,400	438,457	900
P	2010	11,402				11,402	
	2009	2,776				2,776	
	2008	7,425				7,425	
K	2010	12,314				12,314	
	2009	8,400				8,400	
	2008	10,415				10,415	
합계(N, P, K)	2010					498,816	
	2009					445,983	
	2008					456,297	

자료: FAO/WFP. Nov. 16, 2010.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0년에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는 거의 전량 질소 비료이며 인산이나 칼리질 비료는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 수입된 비료를 종류별로 구분하면 요소 44,814톤, 유안 242,367톤이다. 이들 수입 비료를 성분량으로 환산하면 71,500톤으로 북한의 연간 질소 비료 소요량의 30%를 충족하는 양이다. 2009년에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요소 55,705톤, 유안 49,964톤을 수입하였으며 이를 성분량으로 환산하면 36,117톤이다. 성분량으로 비교하더라도 북한은 2009년에 비해 2010년에는 약 2배의 비료를 수입한 셈이다. 북한이 2009년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의 톤당 단가는 요소 287달러, 유안 124달러였으나 2010년에는 요소 325달러, 유안 110달러로 요소의 가격은 상승한 반면 유안의 가격은 하락하였다. 2010년 북한은 가격이 상승한 요소의 수입량은 줄이고 가격이 하락한 유안을 집중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의 적정 비료 소요량은 연간 58만 톤(성분량 기준)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2010년의 경우 북한의 비료 사용량 109,000톤(성분량 기준)은 소요량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질소 비료만을 한정할 경우 총사용량 10만 톤은 소요량의 40%를 충족하는 셈이다. 그러나 인산 및 칼리 비료의 사용량은 적정 사용량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와 같은 북한

의 비료 사용 행태는 균형시비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작물의 수량 능력을 발현하는데 커다란 제약이 되며 토양의 산성화를 촉진시켜 농지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표 5.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 실적, 2009~2010

단위 : 수입량(톤)

품 목 HS코드	N 3102	P 3103	K 3104	기 타 3105	합 계
2009. 1	21,900	0	0	5	21,905
2	5,486	0	0	40	5,526
3	59	0	0	8	67
4	6,001	1	0	32	6,034
5	4,589	0	0	10	4,599
6	20,745	0	0	3	20,748
7	46,534	0	0	0	46,534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385	60	0	35	480
2009.1-12	105,700	61	0	132	105,893
2010. 1	16,979	0	0	0	16,979
2	23,529	0	0	0	23,529
3	161	0	0	8	169
4	0	0	0	12	12
5	41,280	0	0	19	41,299
6	17,599	0	0	1	17,600
7	160,553	0	0	0	160,553
8	19,771	0	0	1	19,772
9	3,105	0	0	5	3,110
10	5	0	0	0	5
11	961	0	0	0	961
12	3,305	0	0	0	3,305
2010.1-12	287,248	0	0	46	287,294

주 : 중국은 2009년 8월 이후 북중교역 통계를 발표하지 않다가 12월에 다시 발표함. 2009년 12월의 통계치는 8-12월의 누계임.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2010년에도 북한은 병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벼멸구를 비롯하여 병, 충, 바이러스 등 북한에서 흔히 발생하는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농약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효과적으로 방제하지 못하였다. 델타메트린 등 범용 살충제를 수입하기는 하였으나 그 양은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 자체 생산한 생물농약에 의

존하는 정도였다. 북한의 농업성에 따르면 2010년 북한이 사용한 농약은 331톤에 불과하였다. 특히 8월 말부터 9월 초에 이르기까지 북한지역에 호우가 발생하여 농작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적절히 방제하지 못하여 특히 옥수수나 벼에 곰팡이병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 2010년 북한은 부타크롤 등 545톤의 제초제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북한은 예년에 비해 더 많은 제초제를 확보함으로써 잡초 피해를 줄였으며 부분적으로 노동력을 절감효과도 거두었다.

트랙터 등 농기계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2010년에는 농기계 가동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2004년까지만 해도 전체 64,062대의 트랙터 가운데 57.5%인 36,836만이 가동되었다. 그 후 해외로부터 트랙터를 수입하거나 EU 등지로부터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트랙터 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농기계의 가동률은 조금씩 증가하여 2009년의 경우 총 63,546대의 트랙터 중 72%인 45,753대가 가동되었으며 2010년에는 62,988대의 트랙터 중 73%인 45,981대가 가동되었다. 이모작으로 인해 농작업의 경합이 더욱 심한 상황에서 트랙터의 가동률 증가는 농업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부품이나 타이어의 부족이 심화된 상황에서 트랙터의 가동률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연료 공급이 조금이나마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2010년에는 전기 공급 사정이 약간 개선되었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 양수기나 탈곡기 등의 농기계 가동률도 약간 향상되었다.

북한은 지난 10여 년 동안 자연흐름식 물길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특히 서해안 곡창지대의 농업용수 공급이 개선되었다. 서해안 지역에는 에너지가 적게 소비되는 중력 관개체계가 확충된 데다 전기 사정도 개선되어 양수기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2010년에는 농업용수의 저수량도 증가하였으며 용수 공급도 좀 더 원활하였다. 이 부분도 영농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FAO/WFP가 추정한 2010/2011양곡연도의 북한 곡물생산량은 전년과 비교할 때 3.1% 증가한 것이다. 곡물 생산량의 증가가 재배면적의 증가요인 보다는 주로 단위면적당 수량 증가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곡물별로는 쌀 생산량이 3.7%, 감자 12.2%, 콩 3.2% 증가하며 특히 이모작 작물의 생산량이 1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 작황 추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이 작물 생산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쌀 생산량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힘들다. 2010년 가을 한국의 쌀 수량은 전국 평균 9.6% 감소하였다. 지역에 따라서는 수량이 5.5~14.2% 감소하였다. 2010/11 양곡연도의 이모작 생산량을 11% 높게 전망한 부

분도 현 시점에서는 확신하기 어렵다. 2010년 가을에 수확한 곡물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추정 오차만 발생하지만 2011년 초여름에 수확할 예정인 이모작 작물은 보고서 발간 당시로서는 생산량을 전혀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망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FAO/WFP가 발표한 2010/11 양곡연도의 북한 곡물생산량 추정치는 다소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곡물생산량을 추정하는 양대 기관 중 하나인 농촌진흥청은 아직까지 2010년 북한의 식량생산량 추정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농업과학자들의 일반적인 관측은 2010년 북한의 곡물생산량이 2009년에 비해 약간 감소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농촌진흥청은 2009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411만 톤으로 추정하였으므로 2010년의 추정치는 대략 400만 톤(정곡 기준) 내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농촌진흥청은 북한의 공식부문을 대상으로 식량생산량을 추계할 뿐 경사지 등 개인 영농에 의해 생산된 부분은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FAO/WFP 추정치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 농업과학자들이 예상하는 2010년 북한의 공식부문 곡물생산량 추정치에다 비공식부문 곡물생산량을 더한 전체 곡물생산량은 420~430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FAO/WFP의 추정치와는 20~30만 톤 정도 차이가 있다.

나. 식량 수급 전망

2010/2011 양곡연도 북한의 식량수급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식량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식량 수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섭취하는 식용 수요 이외 종자용, 사료용, 가공용, 감모 등 용도에 따른 수요를 모두 감안해야 한다. 이 중에서도 식용 수요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소비자 조사치가 전무하기 때문에 흔히 열량 기준 식용 소요량을 추정한다. 인구 1인당 연간 곡물 필요량에다 인구수를 곱하면 전체 식용 소요량을 구할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의 인구를 파악하는 일이다. 북한은 1993년 인구센서스를 실시한 이래 15년 동안 한 번도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지 않다가 한국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유엔인구기금(UNFPA)이 2008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북한 당국과 공동으로 북한 지역의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였다. 당시 북한의 총인구는 24,052,231명으로 추계되었다. 한국의 통계청은 2009년 7월 1일 기준 북한 인구를 24,062,000명으로 추정하였다.⁸⁾ FAO/WFP는 2010/11양곡연도 중간인 2011년

8) 통계청. 2010.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5월 1일 기준 북한의 인구를 24,427,000명으로 추정하였다.⁹⁾

북한의 1인당 식용 소요량을 파악할 때도 기관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WFP는 북한의 식량 수요를 추정할 때 정상적인 수요보다는 최소소요량 기준으로 추정 발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WFP는 북한을 긴급식량지원 국가로 취급하기 때문에 세계보건 기구(WHO)가 권장하는 1일 2,130 kcal의 75%만을 감안하여 1인당 1일 1,600 kcal (연간 167 kg)을 식용소요량으로 추정하였으나 금년부터는 1일 필요 열량을 1,640 kcal로 수정하였다. 북한과 같이 기온이 낮은 지역은 유엔의 권장량 보다 더 많은 열량을 필요로 하는데다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곡물 소비 기준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북한 당국은 곡물 소요량을 1인당 연간 213kg(조곡 기준, 정곡 기준 176kg)으로 삼고 있다. FAO/WFP가 추정한 인구를 적용하여 식용 곡물 소비량을 추정하고, 사료용, 종자용, 감모, 재고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2010/11 양곡연도의 곡물 소요량을 추정하면 535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 중 재고 증가를 제외한 실제 소요량은 517만 톤이다.

- 식용 및 가공용: 4,250,000톤(1인당 연간 곡물 167kg, 콩 7kg)
- 사료용: 150,000톤(추정치)
- 종자용: 219,000톤(ha당 정곡 기준 쌀 97.5kg, 옥수수 45kg, 밀·보리 200kg, 감자 625kg, 콩 45kg 적용)
- 수확 후 손실: 554,000톤(쌀 15%, 기타 10%)
- 재고 증가: 177,000톤(쌀 10만 톤, 옥수수 7.7만 톤)
- 총소요량: 5,351,000톤

FAO/WFP는 2010/11 양곡연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448만 톤, 소요량을 535만 톤으로 추정하였으므로 87만 톤의 부족이 발생한다(표 6). 곡물 재고를 늘리기 위한 18만 여 톤의 수요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70여 만 톤의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더구나 FAO/WFP의 곡물 생산량 추정치가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면 수급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다. 한국 농업과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2010/11년도 북한의 자체 곡물 공급량은 400만 톤 정도이기 때문에 곡물 부족량은 120~13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텃밭이나 경사지를 이용한 개인의 비공식적인 생산 활동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곡물 생산량은 420~430만

9) FAO/WFP. Nov. 16, 2010.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톤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곡물 부족량은 100만 여 톤에 이른다.

표 6. 2010/11 양곡연도 북한의 곡물수급 전망

단위: 정곡 천 톤

구 분	쌀(정곡)	옥수수	밀(보리)	잡곡	감자	콩	합 계
국내공급량	1,577	1,683	240	19	585	154	4,484
국내 생산	1,577	1,683	240	19	585	154	4,484
- 가을수확	1,577	1,683	-	19	158	154	3,592
- 이모작	-	-	240	-	427	-	667
총소요량							5,351
- 식용							4,250
- 사료용	0	75	0	0	55	20	150
- 종자	56	23	21	2.5	113	4.5	219
- 수확후 손실	237	253	24	2	24	15	554
- 재고	100	77	0	0	0	0	177
수입 수요							867

주 1: 쌀의 정곡환산율 65% 적용.

2: 옥수수의 곡물환산율 25% 적용.

3: 국내생산량에는 텃밭이나 경사지 생산물 포함.

북한은 금년도에 예상되는 곡물 부족량 100여 만 톤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상업적 방식으로 곡물 수입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두 방법 모두 매우 불확실하다.

북한은 연간 20~30만 톤 정도의 곡물을 상업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2009년에는 곡물 총수입량이 203,000톤이던 것이 2010년에는 314,000톤으로 크게 늘어났다(표 7).

2009년과 비교할 때 2010년에는 밀가루와 쌀 수입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특히 2010년에는 가을 수확 이후에도 계속해서 곡물 수입을 증가시키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작황을 고려할 때 2011년에도 전년과 같이 곡물 수입 규모를 증가시켜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의 외환사정을 감안할 때 곡물 수입을 더 확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최근 북한이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외상으로 곡물을 수입코자 하지만 과거 북한이 곡물 수입 대가를 제때 지불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데다 최근의 국제곡물수급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밀, 옥수수, 대두의 국제곡물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90% 더 높다. 중립종 쌀의 경우에도 현재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13% 정도 더 높다.¹⁰⁾ 금년도 예상되는 국제곡물시장의 수급 상황도 북한에게는 호의적

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금년에는 중국의 기상여건 악화로 곡물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중국 정부가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곡물 수출과 지원도 원활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7.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실적, 2009~2010

단위 : 수입량(톤)

품 목 HS코드	보 리 1003	옥수수 1005	쌀 1006	잡 곡 1007~08	밀가루 1101	두 류 1201	합 계
2009. 1	0	0	2,621	0	1,248	0	3,869
2	0	2,670	4,022	0	928	0	7,620
3	350	1,492	6,191	0	2,352	3,277	13,662
4	0	1,574	3,474	0	1,431	8,903	15,382
5	0	15,966	6,489	54	2,942	12,566	38,017
6	0	30,884	5,331	155	1,872	829	39,071
7	0	7,748	6,419	0	10,545	75	24,787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0	22,785	19,141	59	18,949	22	60,956
2009.1-12	350	83,119	53,687	268	40,265	25,701	203,364
2010. 1	0	3,448	8,425	104	304	1,553	13,834
2	955	324	1,908	200	75	255	3,717
3	50	4,951	5,978	52	8,682	75	19,788
4	6	6,569	3,604	154	12,373	13,741	36,447
5	0	16,122	4,490	222	12,591	4,846	38,271
6	0	9,351	2,916	47	14,318	2,706	29,338
7	0	12,203	6,223	0	3,601	0	22,027
8	0	9,047	4,831	0	2,787	58	16,723
9	0	5,764	11,830	60	11,573	1,222	30,449
10	0	4,770	12,933	60	15,815	915	34,493
11	10	8,546	9,231	0	17,374	145	35,306
12	0	6,536	11,578	120	14,818	250	33,301
2010.1-12	1,021	87,630	83,947	1,019	114,311	25,766	313,694

주 : 2009년 8월 이후 중국은 북중교역 통계를 발표하지 않다가 12월에 다시 발표함. 2009년 12월의 통계치는 8-12월의 누계임.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10) USDA-AMS(Daily Grain Review) 및 USDA-ERS(Rice Outlook)

2011년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는 중단된 상태이며 6자회담의 개최 가능성도 확실치 않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싶다고 해서 6자회담이 개최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미국은 6자회담 개최를 위한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 조건을 만족시킬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6자회담은 개최되기 어렵다. 북한을 둘러싼 이러한 국제정세 하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호소하고 분배의 투명성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는 대북 식량지원을 선뜻 재개하기 어려울 것이다.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기구가 나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을 경우 지원 규모는 매우 제한적이다. 2010년에는 외국정부나 민간단체의 대북 식량지원이 미미한 가운데 세계식량계획(WFP)만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이어갔다. 하지만 지원 규모는 크지 않았다. 다자지원 형태의 대북 식량지원 규모는 1,100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의 재원은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에서 지원되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북한의 취약계층 250여만 명을 대상으로 영양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국제시장의 곡물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국제사회의 재정 지원이 미흡하여 지원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계식량계획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9,634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의 모금액은 2,00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해 겨우 목표액의 20%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도 현재로서는 실행 가능성이 낮다. 한국은 2008년부터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및 비료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2010년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하여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된 상황이다. 가까운 미래에 남북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개최 가능성이 열려있기는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지원을 재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북한의 수해피해를 계기로 재개되었던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가운데는 향후에도 미국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북한은 미국에 식량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머지않아 FAO/WFP 전문가들이 북한의 식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린다.¹¹⁾ 미국은 2008년 6월부터 1년 동안 총 50만 톤의 곡물을 북한에 지원하되 40만 톤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

11) RFA. 2011. 2. 7. "유엔 대북식량조사, 미 요청 가능성."

(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un_nk-02072011161708.html)

해, 10만 톤은 미국의 5개 구호단체(NGO)를 통해 제공기로 하였다. 2008년 6월 30일 첫 배가 37,000톤의 밀을 북한에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8 양곡연도 동안 총 118,000톤의 식량이 북한에 지원되었다. 이 중에서 WFP를 통해 지원된 식량은 98,000톤이며 나머지는 NGO를 통해 지원되었다. NGO를 통한 대북 식량 지원계획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2009년 초까지 지속되었으나 WFP를 통한 식량 지원은 분배투명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2008년 8월에 중단되었다. 이 계획은 당초 2009년 5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요청에 의해 2009년 3월에 이 계획은 중단되었다. 10여 개월 동안 미국의 5개 구호단체는 총 71,000톤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였다. 따라서 WFP와 NGO를 통해 지원된 식량은 총 169,000톤에 이른다. 따라서 당초 지원계획 중 아직 전달되지 못한 식량은 331,000톤이다. 이번에 북한 미국에 대해 식량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 331,000톤을 지원해 달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식량 지원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식량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접근성이 허용되어야 하고 분배의 투명성과 함께 분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추어져야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미국의 “북한인권법(P.L. 108-333)”에도 명문화되어 있다.¹²⁾

중국은 2011년에도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1996년부터 매년 10~55만 톤의 식량을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해왔다. 1995년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중 중국의 기여 몫이 27%를 차지한다. 최근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은 가장 안정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국가이다. 중국의 대북 식량 지원은 연도에 따라 차이가 심하기는 하지만 매년 20만 톤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금년에 북한의 식량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 이 정도의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시점에서 2011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가능성을 전망하기란 매우 어렵다.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도 지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도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제시장의 곡물 가격 상승도 대북 식량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낙관적인 시나리오와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나누어 금년도 북한의 식량수급을 전망해 보기로 하자.

먼저 남북관계가 현재의 상황에서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6자회담이 개최되지 못하는

12) Manyin, Mark E. and Mary Beth Nikitin. *Foreign Assistance to North Korea*. CRS Report for Congress, R40095. Sep. 9, 2009.

상황이 이어질 경우, 즉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은 전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2011년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량은 20~30만 톤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곡물을 상업적으로 수입한다고 가정하면 곡물 부족량은 40~5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만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여 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식량 지원이 재개되는 낙관적 상황을 가정하면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설령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량은 최대 30만 톤까지 확대될 수 있다. 만일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까지 재개된다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규모는 60만 톤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예상되는 상업적 수입량을 합하면 금년도 식량 부족분은 거의 해결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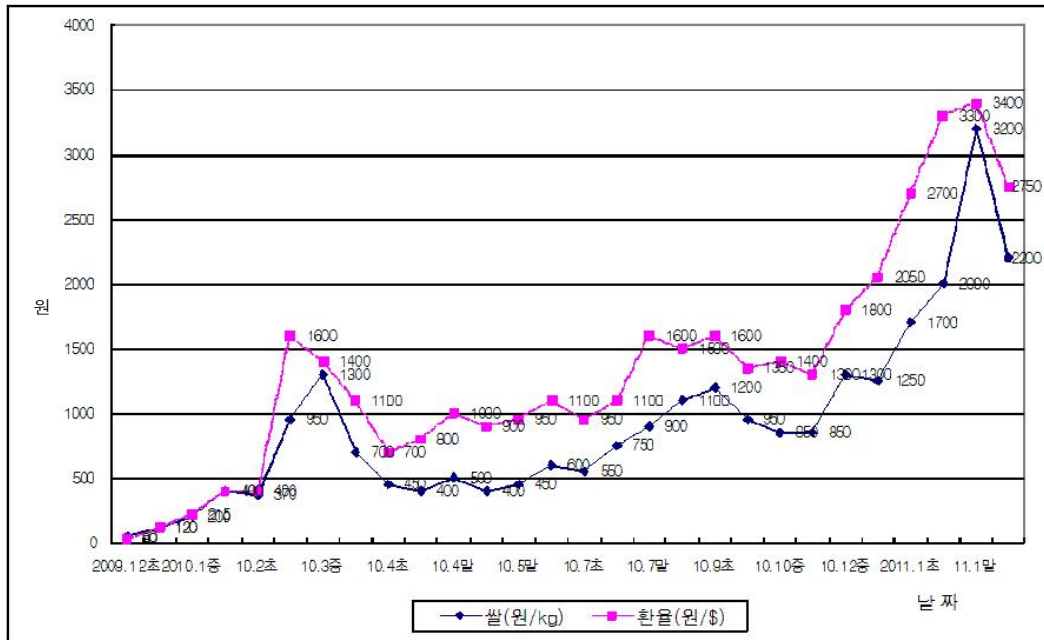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2011년 북한의 식량수급은 2010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작황이 좋지 않았던 데다 외환 부족 때문에 북한이 자력으로 부족한 식량을 수입하여 해결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6자회담이 개최된다면 북한의 식량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주민들이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데다 지난 몇 년간 중단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재개된다면 충분치는 않지만 부족분은 거의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2011 북한 주민의 식량사정에 영향을 주는 제 변수

한 나라의 식량사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가 전체의 식량 수급 상황이다. 하지만 식량문제는 지역마다 상이하고 개인이나 계층 간에는 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식량 공급량(가용량)이 충분하다고 해서 식량안보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식량을 구하려는 사람이 식량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만 비로소 기초적인 식량안보가 확보될 수 있다. 북한의 식량매급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은 필요한 식량을 각자 알아서 구할 수밖에 없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시장에서 식량을 구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식량을 구매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시 근로자들은 한 달 월급이 2,000~3,000원에 불과하다. 최근 북한 시

장에서 쌀 1kg이 2,000~3,000원 거래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 달 월급으로 겨우 쌀 1kg 정도 구입할 수 있다(그림 1). 옥수수 2kg을 구입하기에도 빠듯하다.

그림 1.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시장가격 추이



따라서 식량배급 대상자인 도시근로자들의 식량안보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식량배급을 충분히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장의 곡물가격이 안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장에서 부족한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공식부문에서 해결하기는 어렵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사회주의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주민들의 사적 경제 활동을 통제하고 싶겠지만 통제가 심해지면 시장의 곡물가격이 상승하고 주민의 소득이 감소하여 결국 주민의 생활은 곤궁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시장의 물가 안정을 위해 시장에 더 많은 곡물을 공급하자니 확보하고 있는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가 더욱 위협받게 된다. 결국 북한 당국은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주민의 사적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를 완화 또는 강화하는 방식을 반복하면서 임기응변식의 위기 대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관찰에 의하면 북한 내 식량의 시장가격은 시장의 외환시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식량가격은 기본적으로 식량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만 수요 측면에서

는 다른 재화와외의 상대가격이 유지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주로 수입에 의해 시장에서 유통되는 다른 재화의 구입가격이 식량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중국 등지에서 유입되는 식량의 경우 당연히 외환시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식량가격은 외환가격 변동에 후행하기 때문에 시장의 외환가격 변동을 유심히 관찰하면 식량가격 변화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외환가격은 당국의 외환 통제 정도에 따라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시장에 대한 통제는 외환가격뿐만 아니라 식량가격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주민의 소득 창출 능력은 식량의 상대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북한 시장에서 쌀과 옥수수의 kg당 가격은 2 : 1 정도로 유지된다. 식량의 공급 상황이 비교적 좋거나 주민들의 시장 활동이 활발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는 열등재인 옥수수보다는 쌀에 대한 수요가 더 높기 때문에 쌀의 상대가격이 더 높다. 하지만 요즘처럼 식량이 원활치 않거나 주민의 소득 창출 기회가 제한된 상황에서는 옥수수의 상대가격이 더 높게 형성된다. 최근 쌀과 옥수수의 상대가격이 1.5 : 1까지 좁혀진 것은 이러한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만큼 주민들의 식량사정이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농촌주민들의 경제사정은 도시와 차이가 있다. 농촌주민은 도시주민에 비해 더 넓은 텃밭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사적 영농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시장 상황보다는 경사지의 불법 활동에 대한 단속과 협동농장의 작업 통제, 그리고 주민동원 정도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농장원은 협동농장 내 일정한 면적의 개별 영농지를 확보하고 있는데다 경사지나 하천부지 등 농장 외부의 개별 영농지까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협동농장 내 집단작업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질수록 개인의 분배몫은 커지게 된다. 이는 거의 전적으로 농장 내부의 조직관리 방식에 의해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평야지대 보다는 산간지대에서 농민들은 더 많은 개인 소득 창출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산간지대에서는 곡물보다는 담배 등 타 작물 재배 기회가 더 많은데다 곡물보다는 상대가격이 높기 때문에 현금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높다.

〈자료〉

FAO/WFP, 북한 곡물작황 및 식량수급에 대한 평가¹⁾

남민지²⁾

개관

- 2010년 추곡 및 2011년 이모작에 대한 북한 협동농장 및 개인 경작지에서의 곡물 생산량은 533만 톤(조곡 기준)으로 추정됨. 이는 2009/10양곡연도에 비해 약 3% 높은 수준임. 쌀을 정곡으로 환산할 경우 총 생산량은 448만 톤에 달함.
- 비료, 연료, 농약, 트랙터 등의 농자재 투입 증가로 인해 곡물생산량이 증가하였지만 수해 피해 등 기상요인 때문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함.
- 2009/2010년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어 겨울밀 수확량이 적었으며, 봄 작물 파종 또한 지연되었음. 더불어 8월 말, 9월 초에 강한 호우가 북한 전역을 강타함으로써 국지적 홍수가 발생하여 농작물, 기반시설 등의 피해를 입었음.
- 북한의 곡물 총 소요량(정곡 기준)은 535만 톤임. 비교적 양호한 수확에도 불구하고 약 86만 7천 톤의 곡물을 수입해야 하는 실정임.
- 북한 농업성에 따르면 32만 5천 톤의 상업적 수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54만 2천 톤의 곡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2009/2010년에는 하루 필요 열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곡물만을 국가가 배급함에 따라 저소득 비농업 종사 가구는 심각한 식량 부족에 처하게 되었음. 식량 부족분은 낮은 구매력으로 인해 보충되지 못하였음.
- 총체적으로 대량의 식량 공급 부족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여성에 대한 식량 공급과 어린이 생존 프로그램(child survival programmes)이 추진되어 영양실조 비율은 감소하였음.
- 2010/11년 또한 식량 생산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 따라서 500만 명의 취약 계층(유아, 임산부, 수유부, 국가에서 배급을 받지 못하는 노약자계층 등)을 위하여 약 30만 5천 톤의 식량 지원이 필요함.
- 예상되는 상업적 수입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감안하더라도 부족한 23만 7천 톤의 곡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북한은 정부차원에서 부족한 식량을 추가적으로 수입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국제기구 등의 추가 도움이 필요함.
- 추가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영양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대두류를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임.
- 중장기적인 식량안보 개선을 위하여 FAO/WFP에서는 (1) 감자 보관소 및 곡물 건조 시설 지원, (2) 대두, 생선 등과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의 생산 향상, (3) 개인 경작지의 생산성 향상을 권고하였음.

1) 본 원고는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2010.11.16)"을 번역 정리한 자료임.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거시경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 경제는 해마다 부침은 있었지만 느린 속도로 성장하였다. 지난 7년 동안 북한은 약 7%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인구 증가율은 매년 0.6%에 그쳤으며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침체된 상황이다. 북한은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생활수준을 안정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의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는 2003년 9억 8,300만 달러에서 2008년 15억 3천만 달러로 대폭 증가하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에는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함으로써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하였다. 북한의 주요 무역 상대국은 한국과 중국이다.

표 1. 북한의 주요 경제지표, 2003~2009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실질 GDP 성장률(%)	1.8	2.2	3.8	-1.1	-2.3	3.7	-0.9
실질 GDP 지표 (2002=100)	102	104	108	107	104	108	107
수출(백만 달러)	1,066	1,278	1,338	1,467	1,685	2,045	2,000
수출 증가율(%)	-	19.9	4.7	9.6	14.9	21.4	-2.2
수입(백만 달러)	2,049	2,279	2,713	2,879	3,083	3,578	3,100
수입 증가율(%)	-	11.2	19.0	6.1	7.1	16.1	-13.4
무역수지 적자 (백만 달러)	983	1,001	1,375	1,412	1,398	1,533	1,100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 August 2010 Country Report and earlier issues.

1.1. 농업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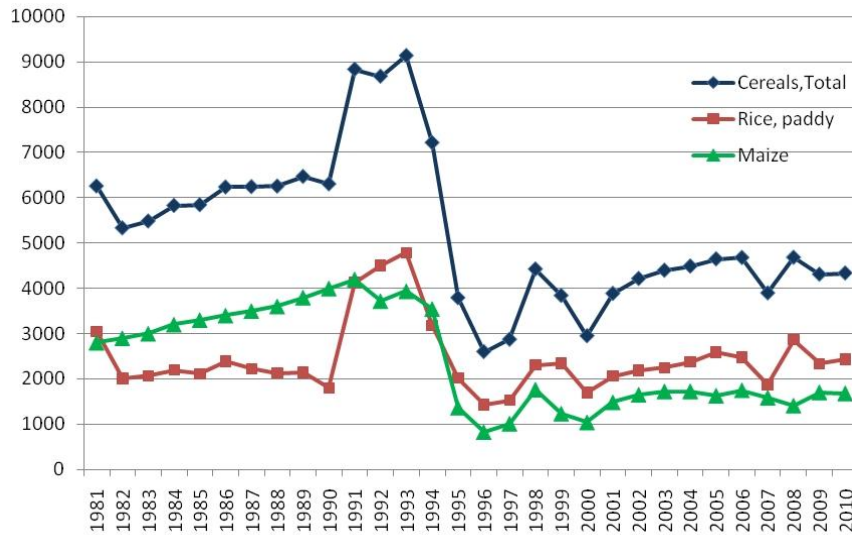
임업 및 수산업을 포함한 농림수산업부문은 국가 수입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에 비하면 GDP 기여도는 약 30% 정도 감소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농업부문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1996, 1997, 2000, 2007년의 가뭄, 홍수, 태풍 등의 자연 재해는 농업 생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최근에는 국내 비료 생산이 저조하여 필요량의 약 10% 정도 밖에 공급하지 못하

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안정한 환율로 인해 비료, 농기계, 트랙터, 연료, 농약 등 필수적인 농업 투입재가 충분히 수입되지 못하여 1980년대는 주요 농작물의 ha 당 수량이 7~8톤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이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제한된 여건 속에서 농업부문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토환경보호성은 산비탈지 및 재조림지역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건 및 재개 과정이 느릴 뿐더러 산림 황폐지에 대한 개간 과정에서 토양 침식, 토지 생산성 감소 등 의도치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곡물의 연작으로 인해 감퇴된 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콩과 작물 및 감자를 도입해야 한다.

북한은 협동농장에서 생산한 곡물 및 콩을 국가가 정해진 가격에 수매한다. 이는 협동농장의 소득이 되지만 투입재 비용 등을 고려하면 순수익은 낮은 편이다. 할당 생산량의 초과분을 시장에 팔 수 있게 한다면 협동농장 및 개인경작 농민들에게는 인센티브가 되어 식량 부족분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북한 곡물 생산량, 1981~2010(1,000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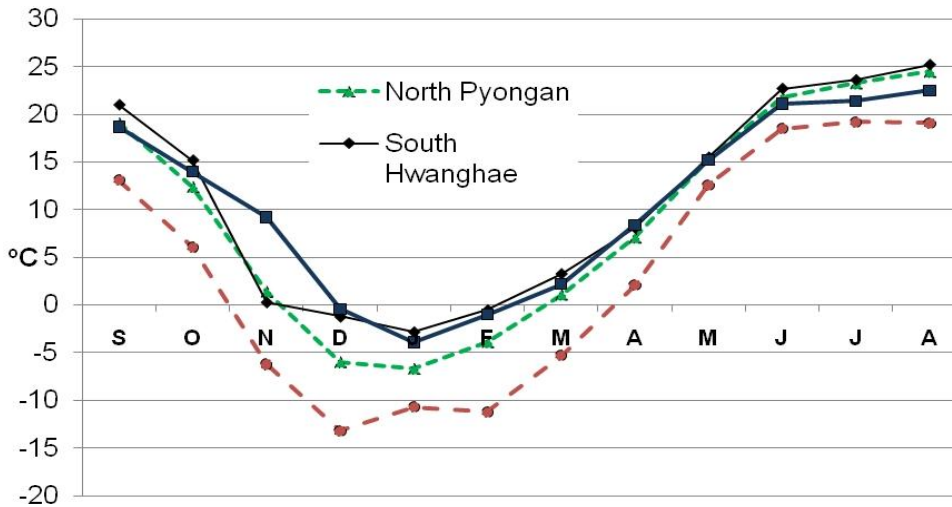
2. 2010/11 식량 생산

2.1. 기후

북한은 대륙성 기후 때문에 영농기간이 짧은 편이다.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북풍, 북서풍으로 인해 겨울이 길며 추위가 매섭다. 여름은 비교적 짧은 편으로 덥고 습하며, 몬순기후로 인해 비가 많이 내린다. 8월 평양의 일일 평균 최고 기온은 29℃, 평균 최저 기온은 20℃이다. 연간 강수량의 60%가 6월~9월에 집중되며, 매년 여름 태풍이 북한을 강타한다.

2009/10년 겨울은 예년보다 더 길고 추웠다(그림 2 참조). 12~2월 간 월평균 기온이 0℃ 이하였으며, 북쪽 지역인 양강도, 자강도의 경우 11~3월까지의 월평균 기온이 0℃ 이하였다. 낮은 기온은 겨울작물 생산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봄 파종 및 이앙 시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낮은 온도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파종이 1~3주 미뤄졌다. 또한 5월 말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 홍수를 겪었다. 평안북도의 경우 약 7,000ha가 물에 잠겼으며, 2만 3천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그림 2. 2009/10 평안북도, 황해남도의 월평균 기온



2.2. 경작면적

북한의 국토면적은 총 122,543km²이며, 이 중 17~18%인 약 200만 ha가 경작지로 구분되고 있다. 이 중 곡물생산에 적합한 경작지 면적은 약 140만 ha로, 30만 ha는

채소 생산에, 16만 ha는 과수생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의 토지에서는 뽕나무, 담배, 목화, 인삼 등을 생산한다. 북한은 국토 대부분이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경작면적을 넓히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근래에는 이모작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금년도 곡물, 감자, 콩의 재배면적은 대략 122만 4천 ha로 2009년 대비 1.7% 증가하였다. 밭, 경사지까지 포함하면 2010/11년의 경작지 면적은 2009/10년 대비 1.1% 증가하였다.

〈벼〉

벼는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작물의 하나로 주로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평양, 남포, 개성, 강원도 일부 동쪽 지역, 함경북도, 함경남도 지역에서 재배된다. 최근 농업성의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으로 약 6만 ha의 벼 경작지가 증가하였다. 2010년 벼 경작면적은 57만 186ha로, 2009년 대비 710ha 증가하였다.

〈옥수수〉

옥수수는 벼와 달리 천수답³⁾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벼 보다 더 널리 재배된다. 올해 옥수수 재배면적은 약 49만 5천 ha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감자〉

감자는 봄 및 여름작물로써 자강도, 양강도에서 많이 재배된다. 이모작 감자는 3~4월에 심고 6월에 수확한다. 가을감자는 5~6월에 심고 8~9월에 수확한다. 1990년 대부터 식량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탄수화물 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감자 재배면적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올해 봄감자 및 가을감자 재배면적은 각각 13만 3천 ha, 4만 8천 ha으로 총 18만 1천ha이다.

〈겨울밀, 봄보리〉

겨울밀은 9월 말~10월 중순에 파종한다. 겨울밀의 경작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자연강수에만 의존하는 농경지.

에는 가을비, 종자, 경작 가능 노동력 등이 있다. 겨울밀과 봄보리는 양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재배된다. 봄보리는 3월에 심어 6월 중순에 수확한다. 2010/11년에는 겨울밀은 7만 3천 ha, 봄보리는 3만 500ha 경작될 전망이다. 2009/10년 겨울밀, 봄보리 경작 면적은 각각 7만 4천 700ha, 2만 9천 600ha였다.

〈콩〉

최근 콩 경작 면적은 급속하게 증가하여 2008년 6만 3천 ha에서 2010년 9만 ha로 증가하였다.

〈기타 작물〉

기타 중요한 작물로는 수수, 메밀, 채소(양배추, 시금치, 무, 오이, 가지, 토마토), 과일(배, 복숭아, 사과, 살구, 단감) 등이 있다. 많은 협동농장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뽕나무 재배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약 1만 2천 600ha에서 기타 작물을 경작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텃밭〉

협동농장 각 세대에게는 약 30평의 텃밭이 제공된다. 텃밭 면적은 각 세대별로 다르나 대개 평균 30평 정도로 규정되어 있다. 북한에는 약 170만의 농장 가구가 있는데 이는 약 1만 7천 ha가 텃밭으로 사용됨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도시 주민 또한 소규모의 텃밭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략 2만 5천 ha가 텃밭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텃밭에서는 대개 감자, 옥수수를 경작하며 양배추, 고추, 마늘 등의 채소 또한 재배 가능하다. 텃밭의 주요 용도는 자가소비를 위한 농작물 생산이다. 따라서 텃밭 생산물이 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지만 영양 보충 및 가구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텃밭에서 경작된 감자, 옥수수는 농장에서 생산된 것보다 질이 높으며 생산성 또한 높다.

2.3. 비료

농업성(MoA)에 따르면, 2010년 49만 8천 816톤의 비료가 북한에서 사용되었다. 이는 2009년의 44만 5천 983톤, 2008년의 45만 6천 297톤에 비하면 증가한 것이다. 인산(P) 비료와 칼리(K) 비료의 생산량은 2008년, 2009년 생산량을 초과하였으며, 질소(N) 비료 생산량은 2009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08년 생산량보다는 상당히 감소하였다. 2010년 비료 사용량은 ha당 300~470kg 수준이었다.

표 2. 북한 비료 통계, 2008~2010

단위: 실중량 톤

	년도	국내 생산	수입	원조	전년도 재고분	사용량	잔여량
N ¹⁾	2008	256,800	180,500	657	1,400	438,457	9,00
	2009	170,090		266,817	900		3,000
	2010	174,350	274,580	24,670	3,000	475,100	1,500
P	2008	7,425				7,425	
	2009	2,776				2,776	
	2010	11,402				11,402	
K	2008	10,415				10,415	
	2009	8,400				8,400	
	2010	12,314				12,314	
총 계	2008					456,297	
	2009					445,983	
	2010					498,816	

주 1): 유안(황산암모늄) 기준임.

2.4. 수확 및 생산

〈벼〉

올해 북한의 벼 수확량은 ha당 4.26톤으로 작년 ha당 4.10톤에 비해 3.6% 증가했다. 추운 날씨로 인해 이앙이 제때에 실시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료 공급 확대, 전력 공급 개선, 충분했던 관개용수 등으로 인해 작년 대비 3.7%가 증가한 243

만 톤의 생산량을 기록하였다. 65%의 도정률을 감안하면 올해 쌀 생산량은 158만 톤으로 추정된다.

〈옥수수〉

올해 옥수수의 평균 수확량은 ha당 3.35톤으로 작년의 3.39톤 대비 1.2% 감소했다. 여름 기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 구름 낀 날이 많아 수확량이 소폭 감소하였다. 또한 8월 말, 9월 초의 폭풍우에 의해 수확 중, 수확 후 많은 양의 곡물 손실이 발생했다. 올해 북한 옥수수 생산량은 160만 톤으로 전년도 171만 톤에 의해 1.3% 감소했다.

〈감자〉

올해 가을감자 수량은 ha당 13.2톤으로 전년도 대비 15% 증가했다. 길었던 겨울 날씨로 인해 파종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종 이후 따뜻한 달이 많아 수확량이 증가했다. 올해 북한 가을감자 생산량은 15만 8천 톤으로 전년도 13만 9천 톤 대비 12% 증가했다.

〈수확 후 손실〉

북한에서 곡물의 수확 후 손실은 보통 20~30%에 달해 오랜 기간 큰 문제였다. 하지만 수확 후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따로 행해지지 않았다.

벼의 경우 수확이 지연되면 경작지에서 손실이 발생한다. 수확 후에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건조시켜야 하는데 충분히 건조되지 않거나 수확 후 비가 내리면(올해와 같이) 작물이 눅눅한 상태가 되어 부패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 경작지에 쌓아둔 작물을 늦게 수집하면 쥐나 곤충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수확한 곡물을 경작지에서 탈곡시설로 이동하는 도중에도 곡물 손실이 발생한다. 오래되거나 비효율적인 탈곡기 또한 곡물 손실을 발생시킨다. 탈곡, 포장 후에는 보관 과정에서 곡물 손실이 다시 발생한다.

표 3. 2010년 지역별 추곡 생산량

단위: 천ha, 천t

지역	쌀		옥수수		감자		콩		기타		합계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평양	16	78	7.3	27	0.7	1.8	2.3	4.3	0.8	1.3	27	112
평안남도	83	399	61	204	0.5	1.2	10	17	1.4	2.0	156	623
평안북도	101	453	87	308	5.4	14	10	18	1.4	2.2	205	795
자강도	7.0	26	35	106	2.2	6.2	4.9	7.4	1.3	1.9	50	147
황해남도	146	682	87	301	2.8	7.1	15	26	1.9	3.0	253	1,020
황해북도	70	300	80	285	0.8	1.9	16	26	2.4	3.6	168	616
강원도	34	100	36	115	0.6	1.3	6.2	11	1.8	2.7	79	229
함경남도	60	185	47	150	9.6	34	7.2	13	0.3	0.5	124	382
함경북도	25	72	50	151	5.5	19	11	19	0.5	0.7	91	262
양강도	2.0	4.4	5.5	12	19	70	5.8	8.1	0.7	1.0	33	98
남포	27	128	7.6	25	0.9	2.3	2.1	3.8	0.2	0.3	38	159
합계	570	2,426	503	1,683	48	158	90	154	13	19	1,224	4,441

표 4. 2009/2010, 2010/2011 곡물 생산량 비교

단위: 천ha, 톤/ha, 천t

	2010/2011			2009/2010			증감(%)		
	면적	단위당 생산량	생산량	면적	단위당 생산량	생산량	면적	단위당 생산량	생산량
추곡	2010			2009					
벼	570	4.3	2,426	569	4.1	2,336	0.1	3.6	307
옥수수	503	3.4	1,683	503	3.4	1,705	-0.1	-1.2	-1.3
기타 곡물	13	1.5	19	13	1.8	22	0.0	-17.2	-17.3
감자	48	3.3	158	50	2.8	139	-3.8	15.4	12.2
콩	90	22.0	154	68	2.0	149	24.2	-27.7	3.2
합계	1,224	3.6	4,441	1,203	3.6	4,352	1.7	0.4	2.0
이모작	2011			2010					
밀, 보리	104	3.3	240	104	2.0	203	-0.7	58.1	15.4
감자	133	3.2	427	133	2.9	390	0.4	8.2	8.5
이모작 합계	237	2.8	667	237	2.5	593	-0.1	11.1	11.0
국영 및 협동농장 합계	1,461	3.5	5,108	1,441	3.4	4,945	1.4	1.8	3.2
개인경작지 포함 총계	1,786	3.0	5,333	1,766	2.9	5,170	1.1	1.9	3.1

3. 2010/2011 식량의 수요/공급

- 북한 정부의 인구통계에 따르면 2008년 10월 현재 북한 인구는 24,052,311명이다. 통계국은 연평균 인구 증가율을 0.6%로 밝히고 있다. 이 통계를 기초로 본 기구에서 계산한 2010/11양곡연도 북한 인구는 24,427,000명으로 추정된다.
- 과거에는 매년 1인당 소비량으로 약 174kg(곡물 167kg, 콩 7kg)의 곡물이 요구되었다. 이는 지난 몇 년 간의 국가 평균 소비량 보다는 높지만, 정부의 목표소비량 보다는 낮은 것이다. 북한 정부는 213kg/인/년을 목표 소비량(조곡, 벼 포함)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곡으로 환산할 경우 약 176kg에 상당하는 양이다. FAO/WFP에서는 평균 식용 소요량으로 1,640kcal를 사용하였다.
- 평년 종자 수요량은 219천 톤이다.
 - 쌀: 97.5kg/ha, 570,000ha
 - 옥수수: 45kg/ha, 503,000ha
 - 밀, 보리 및 기타 곡물: 200kg/ha, 103,000ha
 - 감자: 625kg/ha, 181,000ha
- 수확 후 손실은 쌀, 옥수수, 감자는 15%, 밀, 보리, 기타 곡물, 콩은 10%로 추정한다. 겨울/봄 작물의 수확 후 손실은 보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좀 더 낮다.
- 농업성(MoA)에서는 사료용 곡물을 12만 톤으로 추정하였다. 2008년에는 사료용 요구량이 18만 톤이었다. 이는 소동물의 수가 감소하고 큰 동물의 수가 증가하거나 유지됐기 때문이다. FAO/WFP에서는 사료용 곡물 수요량을 15만 톤으로 추정하였다.
- 쌀 도정률은 65%이며 쌀 외에는 도정되지 않는다.
- 북한에서 콩은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다. 콩의 칼로리는 평균적으로 기타 곡물에 비해 20% 정도 높다. 그러나 콩 생산량은 적은 편이다.
- 북한 정부에서는 식량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32만 5천 톤(쌀, 옥수수)을 상업적으로 수입할 예정이다. 어떤 곡물을 수입할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 북한 실제 재고량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2주 분의 국가 전체 식량 소요량을 재고량으로 산정하였다.

2010/11년 북한의 곡물 수입 요구량은 총 86만 7천 톤이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약 1백만 톤의 곡물 수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2000/01년도에는 수입 필요량이 약 2백만 톤에 달했다. 북한작황조사보고서에서는 2004/05년도 곡물 수입 요구량을 약 90만 톤, 2008/09년도 179만 톤으로 계산하였다. 지난 4년 간 식량 수요-공급량의 차이는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백만 톤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재고분 및 지원이 예정된 식량은 2만 1천 톤 뿐이다.

표 4. 북한의 식량 수요 및 공급, 2010/11

단위: 천 톤

	쌀(도정) ¹⁾	옥수수	밀, 보리	기타 곡물	감자 ²⁾	콩	총계 ³⁾
총국내생산	1,577	1,683	240	19	585	154	4,484
국내생산	1,577	1,683	240	19	585	154	4,484
-수확기 생산	1,577	1,683		19	158	154	3,592
-겨울/봄 생산			240		427		667
총 사용량							5,351
식용							4,250
사료용	0	75	0	0	55	20	150
종자용	56	23	21	2.5	113	4.5	219
수확 후 손실	237	253	24	2	24	15	554
재고	100	77	0	0	0	0	177
수입량							867
상업적 수입 예정량							325
부족분							542
식량 지원							21

1) 도정률 65%

2) 곡물 환산률 25%적용

3) 텃밭 생산량(75천 톤), 경사지 생산량(150천 톤) 포함.

4. 개별 가구의 식량안보 및 영양

4.1. 식량공급원

〈협동농장을 통한 현물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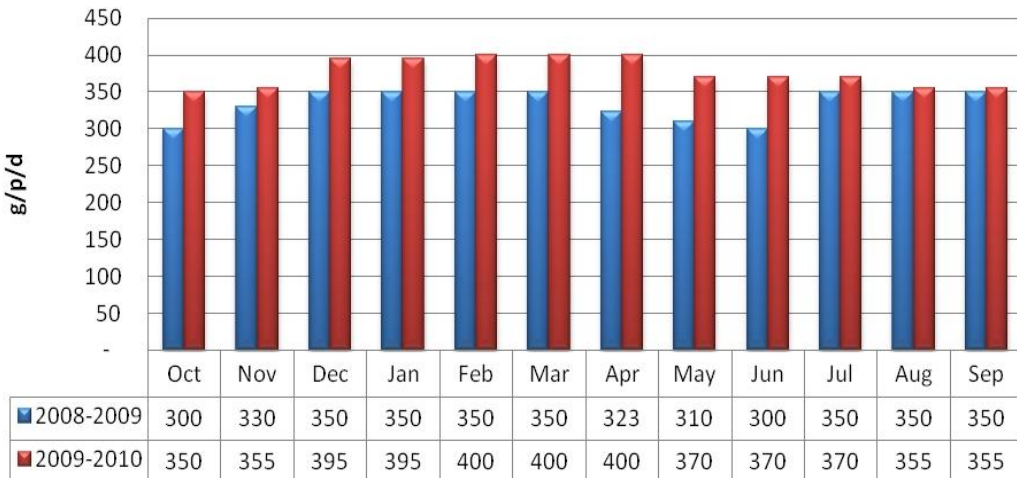
협동농장 농장원은 1인당 하루 600g에 상당하는 곡물을 가족 수에 따라 분배 받으며, 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곡물의 경우 협동농장의 생산량과는 관계없이 일정한 양의 곡물을 분배받지만 현금소득은 초과 생산하여 국가 수매기구에 판 것에 비례하여 지급받는다.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은 농장원이 공유한다. 노력공수에 따라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 농장원은 더 높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순수익이 그들이 운영하는 농장의 생산성과 결부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 예를 들어 북쪽 산간지역에 사는 농장원이나 토지가 척박한 지역에 있는 농장원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현금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배급시스템〉

배급 대상자는 군인 및 협동농장원을 제외한 경제활동 인구이다. 노동자는 지급 받은 생활비 수입(월급)으로 양정공급소소에서 보조가격으로 곡물을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1일 기준 배급은 573g이다. 이는 209kg/1인/1년으로 계산한 것이다. 실제로 배급받는 곡물량은 그 해의 생산량에 따라 정해지며 대개 9월/10월 수확기에 계획이 세워진다. 2009/10년에는 곡물 부족에 따라 하루 평균 375g을 배급받았다.

표 4. 2008/2009, 2009/10년의 월별 평균 배급량

단위: g/1일/1인



원칙적으로는 모든 지역주민이 같은 양의 곡물을 배급받아야 하지만 국가 곡물 가용량에 따라 조정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쌀, 옥수수, 보리, 밀, 콩, 감자 등을 배급 받는다. 이 중 쌀은 가장 선호되는 곡물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쌀을 배급곡물의 절반 이상 배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조곡 기준). 모든 세대가 같은 양의 쌀을 배급받는 것은 아니며 쌀 생산지역의 주민은 옥수수 재배지역보다 더 높은 비중의 쌀을 배급받는다.

방문 조사 결과 금년 10월에는 각 가정마다 곡물 재고량이 현저히 적었다. 10월에 배급된 곡물(대개 옥수수)의 경우 이번 9월/10월에 생산되어 건조된 것인데 불충분한 건조시설로 인하여 옥수수의 수분함량이 높고 이물질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4.2. 시장에서의 식량 공급

〈국영상점〉

국영상점은 대개 식품(곡물 및 식품 원자재 제외)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장마당보다 가격이 낮다. 국영상점에서는 소금, 된장, 간장, 식용유, 채소 등을 구매할 수 있다. 국영상점이 보유한 식품의 가용성과 다양성은 지역마다 다르다.

〈장마당〉

각 가정은 장마당에서도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장마당은 매달 1일, 11일, 21일에 열리며 대개 과일과 채소가 거래된다. 가격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판매자와 구매자의 협상에 의해 정해진다. 장마당에서의 곡물 판매는 금지되어 있지만 물물교환 형태로 널리 거래되고 있다. 대신 가격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평양의 장마당인 통일시장의 쌀 가격은 kg당 1,000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국정가격 24원보다 30배나 높은 수준이다. 2004년 FAO/WFP의 북한작황보고서에 의하면 장마당에서의 쌀 가격이 kg당 500~600원으로, 국정가격 보다 11~14배 높다고 발표하였다. 당시 옥수수는 kg당 320원으로 국정가격보다 11배 높았다.

쌀은 가장 선호되는 식량이지만 북한에서 생산되는 전체 곡물의 약 30% 밖에 되지 않으며 국가배급체계를 통해 배분된다. 작년 총 곡물생산에서 차지하는 쌀(정곡)

의 비율은 36%였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장마당에서의 쌀 가격은 매우 비싼 편이다.

5. 생계전략 및 대처방법

북한주민의 소득수준을 알아내기는 어렵다. 북한은 어느 부류의 노동자에게나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며 각 가정은 소득과 연계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한다. 각 세대의 지출에 따른 식량 접근도에 따라 소득 수준을 추정하기 위하여 가정을 방문하였다. 하지만 일부 세대에 한해서는 방문이 허용됨에 따라 충분한 정보가 입수되지 못했다. 11개 군의 방문 세대와 토론해본 결과 한 가구당(4인 가족) 한 달 식품비 지출은 1,550~1,800원 정도였다. 식품비 지출 중 1/3은 국영상점을 통해 구매한 것이었다. 식품 관련 지출은 총 소득의 30~50%를 차지하였다. 소득을 최대한으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각 가구의 평균 소득은 월 3,000~5,000원으로 추정된다.

배급체계에 따른 식량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는 곡물을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장마당의 식량 가격은 매우 높기 때문에 극소수의 가정만이 장마당에서 식량을 구매할 수 있다. 국가배급체계에 의존하는 일부 가정은 친척들에게서 곡물과 채소를 지원 받는다고 대답하였다.

추가 소득 및 부가적으로 식량을 얻기 위한 제한된 기회들이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활동은 아래와 같다.

- 텃밭: 배급에 의존하는 세대의 약 절반 정도가 텃밭을 보유하고 있다. 대개 텃밭에서 양배추, 양파, 마늘, 콩, 토마토 등을 재배한다. 텃밭을 소유한 가정은 1년에 세 차례 채소를 경작할 정도로 텃밭을 충분히 이용한다. 텃밭에서 생산한 채소는 장마당에서 판매할 수 있다.
- 소가축 생산: WFP에서 최근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약 67%의 세대에서 가축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1~2마리의 돼지, 토끼 몇 마리, 가금류 등이었다. 돼지고기 1kg 가격은 쌀 2kg, 마늘 1kg 가격에 상당한다.
- 자연식품 채취: 많은 가정에서는 자연에서 식품을 채취해 소비하고 판매한다. 이러한 식품에는 새순, 채소, 버섯, 과일 등이 있다. 산간지대에 사는 가정은

자연식품 수집이 가장 일반적이다. 5가구 중 4가구가 사냥, 낚시 등을 통해 음식을 조달한다. 하지만 이런 활동은 주로 봄, 여름에 가능하다.

- 기타: 바느질, 소규모 거래, 신발 수선, 과일 및 생선 판매 등이 있다. 채소, 과일 판매는 대부분 장마당에서 행해진다. 그러나 장마당에서 팔 수 있는 사람은 40세 이상의 여자로 정해져 있다. 소규모 거래는 비스켓, 과자, 담배 등의 판매를 의미한다. 그러나 거래량은 매우 적으며, 상품 종류 또한 소수이다. 시골에서는 길 주변에 앉아 과일, 채소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다.

6. 제언

6.1. 농업부문에 대한 제언

〈감자〉

겨울 동안의 생감자 및 씨감자의 손실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겨울 날씨가 매서운 북부지역에서의 손실이 심각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8~2009년에 네덜란드, FAO의 지원을 통해 북한 농업성과 함께 5개 지역, 11개 협동농장에 개량된 저장시설을 제공하였는데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는 다른 감자 생산지역에도 전파되어 비슷한 모양으로 건설되었다.

〈건조〉

늦은 강우로 인해 올해에는 곡물 건조에 있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매우 큰 손실을 입었다. 9월 말 곡물은 수분함량이 높은 상태에서 각 지역 창고로 이동되는데 올해에는 이때에 이미 수분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사람이 소비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곡물이 많았다. 건조시설의 부족이 이런 사태를 부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농장에서는 대개 평평한 곳에 곡물을 놓고 자연 바람으로 건조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두류〉

북한 사람들의 식단은 대개 단백질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두류 생산 증대가 시급히 요구된다. 북한은 15만 4천 톤의 콩을 생산하여 1인당 하루 15g 꼴로 분배된다. 콩, 완두콩, 병아리콩, 편두에 대한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

〈수경재배〉

농장 양어장에서의 수확이 매우 좋아 연간 1ha당 5톤의 물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일부 농장에서는 논에서 물고기를 키우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 물고기의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고 아미노산 함유량 또한 높아 신체에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사람들의 식단은 대개 단백질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양어장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텃밭〉

텃밭은 식량작물 및 가축 생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텃밭에서 생산된 작물은 생산자 본인뿐만 아니라 도시 거주자에게도 이득이 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종자, 비료, 기술 지원 등에 힘써야 한다.

6.2. 가정의 식량안보에 대한 제언

- ① 예상 수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 외에 23만 7천 톤의 곡물이 추가적으로 확보되어 주민들에게 충분한 식량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각 가구의 식량 접근 정도는 북한 주민의 실태 파악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식량 안보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어야 한다. 모니터링은 각 지역, 사회, 가정에서 임의추출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효과가 있다.

- ③ 취약계층, 특히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 노인,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식량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취약계층에게 적당량의 식량을 적기에 지원하고 지원 효율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각 세대 및 지역 사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2

2010년 특별기획

대북 농업지원사업의 성과와 문제

「겨레의 숲」의 북한 산림협력사업
- 추진 과정과 과제

「겨레의 숲」의 대북 산림협력사업 - 추진 과정과 과제

안 선 경¹⁾

겨레의 숲 소개

‘겨레의 숲’은 북한의 황폐된 산림복구를 통해 북한지역에서 건강하고 풍부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농업생산력을 복구하여,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식량난과 식수난, 에너지난 극복에 기여하며 남북간 개발복구 협력의 새로운 모범사례를 창출하고자 설립된 사회단체간 협의체이다.

북한은 지난 1995년 대홍수 이후 연례행사처럼 여름이면 어김없이 막대한 수해피해를 입고 있다. 이미 북측의 요청으로 90년대 후반부터 수 년 동안 국제기구와 우리 정부, 여러 단체들에서 북한 산림복원을 위해 지원한 바 있으나 개별적이고 소규모로 진행되어 알찬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북한은 2006년에 우리 민간단체에 산림복구에 대한 규모있는 지원을 요청해 왔으며, 이를 계기로 북한산림녹화에 관심있는 남측의 20여 개 시민단체, 산림환경단체, 종교계 등이 모여 2007년 4월에 ‘겨레의숲’을 창립하였다.

‘겨레의 숲’은 분산된 힘을 하나로 모아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세워 여러 회원단체들의 사업을 총괄·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 정부의 민간단체 대상 정책지원사업 추진단체로 선정되어 북한산림녹화사업 ‘전문민간단체’로서의 위상을 굳히고 있다.

* 참여단체

시민사회단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흥사단 등), 대북인도지원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랑의연탄나눔운동 등), 산림환경단체 (평화의숲, 한국산지보전협회 등), 종교계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언론방송사 (문화방송, 중앙일보),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전남) 등

1) (사)겨레의 숲 사무처 부장

겨레의 숲의 대북 산림협력사업 추진 배경

북한 전 국토의 약 75%인 900만여 ha의 산림면적 중 30% 이상(약 280만 ha)이 다락밭으로의 농지 전환, 벌채 등으로 인해 황폐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한 환경재해로 주민들의 식량난, 에너지난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자연생태계는 파괴되고 생물이 서식할 공간이 축소되어 생태계의 회복기능이 마비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은 총체적인 위기상황으로 자력에 의한 산림복구가 요원한 형편이다.



다락밭 개간으로 훼손된 함북 무산의 산 토사유출로 황폐된 함남 신포의 산 다락밭으로 훼손된 황해도의 산

따라서 북한의 황폐한 산림을 복원하는 문제는 환경재해의 예방과 농업생산기반의 확충, 식량난과 연료난의 해결, 그리고 한반도의 건강한 생태환경 회복을 위해 남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를 계속 간과하면 어떻게 될까, 남측은 상관이 없을까?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볼 때 한반도는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독립된 생태계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생태계이다. 북한의 훼손되고 불안정한 산림생태계는 남한의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위협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 임진강 북쪽에서 폭우가 내리면 남측의 우리 주민이 피해를 입듯이, 또 남한의 솔잎혹파리가 북측 철책 위로 날아가 북한의 소나무에 피해를 주었듯이 황폐된 북측 산림을 방치하면 지난 30여 년에 걸쳐 이뤄낸 우리의 성공적인 치산녹화의 결실은 모두 허사가 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산림녹화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은 남한의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시키는 국토보전을 위한 실천이기도 하다.

북한의 황폐산지 복구는 목재자원의 확보라는 직접 편익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건강한 생태벨트 구축, 북한주민의 일자리 창출, 빈곤경감, 에너지문제 개선 등 다양한 간접편익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렇게 북한 조림은 향후 통일에 대비한 사전활동(early action)으로서의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통일 후에 있게 될 환경복원을 위한 통일비용 절감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사업이다. 일방적 지원이 아닌 통일을 대비하는 ‘투자’라는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근과 산림황폐화 등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일로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모습을 보일 때,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고 나라의 품격도 높일 수 있다. 한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구성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갖추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이와 더불어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일 뿐 아니라 지구촌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는 더 넓은 차원의 소속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겨레의 숲의 대북 산림협력사업 추진 현황

‘겨레의 숲’은 산림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산림녹화사업 10개년 종합계획안 (2007년~2016년)’을 세우고, 이에 근거하여 양묘, 조림, 산림병해충방제, 국민참여확대의 네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북측은 부지와 노동력을 제공하고, 남측은 시설·자재와 기술을 지원하여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의 자립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조림녹화사업의 기초인 양묘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튼튼한 묘목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묘장을 조성·운영하고, 현대화된 양묘 생산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북한 산림녹화에 필요한 나무는 80억 그루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북측의 열악한 양묘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개선하는 사업이야말로 조림을 위한 기초사업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황폐산림 복구를 위한 조림 및 육림,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의 초기 단계에는 ‘시범조림단지’를 조성하여 생산기술과 식재방식 및 수종선택의 타당성 등

에 대한 검증평가 체계를 세우고, 남북협력사업의 모델을 제시하여 북측의 조림의지를 높여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건전한 산림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와 산림생태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협력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신규로 조림하여 산림을 복구하는데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리므로, 이미 조림된 건전한 산림을 보호하고 병든 산림을 치유하는 사업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림을 위해서는 산림 생태의 정확한 조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 또한 병행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 공동의 나무심기 행사와 국민캠페인 및 모금사업을 통하여 국민적 합의와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산림녹화사업은 대규모의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더욱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겨레의 숲’이 벌이는 사업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양묘사업 : 북한의 자립적 양묘 생산기반인 양묘장 건설·운영 지원 및 기술 전수, 노지양묘와 시설양묘로 구분해 실시, 종자관리시설 건립
- 조림사업 : 황폐산지 복구를 위한 조림 및 사방조림사업 시범실시, 시범단지 조림, 유실수단지 운영, 북한산림 생태조사, 남북공동나무심기 행사 등 추진
- 산림병해충방제사업 : 건전 생태계 회복 및 산림황폐화 확대 저지
- 국민참여 확대사업 : 남북 공동 나무심기 행사와 국민캠페인, 모금 실시

*** 겨레의 숲 ‘북한산림녹화 10개년 종합계획안’ (2007~2016년)**

- 양묘장 10개소 조성·현대화로 매년 1천만 그루 묘목 생산, 10년간 1억 그루, 3만 ha(1억평) 조림 목표
- 매년 2천 ha씩 10년간 2만 ha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
- 양묘·조림사업의 기본인 우수종자 확보 위한 ‘종자관리연구센터’ 및 효율적 산림병해충 방제 위한 ‘병해충연구센터’ 건립 추진
- 사업참여 주민에게 식량제공 및 단기소득 확보 위한 ‘유실수조림 지원’ 등을 통해 자활 기반 제공
- 산림 전문가 및 관계기관 간 기술적인적 교류 확대 통해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 공동 임업, 임학 기반 마련

1. 양묘사업

조림의 기본은 우량묘목의 생산이다. '겨레의숲'은 묘목을 지원하기 보다는 자기 땅에서 키운 튼튼한 묘목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묘장(養苗場)을 조성·운영하고 현대화된 양묘 생산기술을 전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지 선정은 사업분야를 고려하되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평양, 개성, 금강산권을 우선 대상으로 고려하였고, 아직까지 남한 국적자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회령 등 한·중 국경 인접지역이나 외곽지역은 외국국적자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우리 국적자의 방문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겨레의 숲'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서부지역(평양 중심)·동부지역(금강산 중심)·접경지역(개성 중심)을 거점으로 8개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까지 양묘장 10개소를 조성현대화하고 매년 1천만 그루, 10년간 1억 그루의 묘목을 생산할 목표에 있다. 이 묘목은 약 3만 ha(1억평)를 조립할 수 있는 양이다. 북한의 산림녹화에 필요한 나무의 수량은 80억 그루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묘목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북한의 양묘기반 시설을 확충해 자립적인 산림복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009년부터 경색된 남북관계로 목표달성에 일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끊임없이 추진해야 할 목표이다. 2008년도까지 8개 양묘장에서 약 1천만본의 묘목을 생산해낸 것으로 파악하였다.

* 겨레의 숲 양묘장 운영지역 : 동부지역(금강산, 함경북도 회령, 나선)
서부지역(평양 순안, 삼석, 중화, 상원)
접경지역 (개성시 개풍)

북한도 군마다 양묘장이 골고루 분포하는 등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는 확보하고 있으나²⁾, 시설이나 종자·비료 등의 물자가 부족하여 양묘실적이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우리 남측은 부족한 물자와 기술을 지원해주고, 북측 인력이 스스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2) 북한은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매년 되풀이되는 대규모 홍수로 상당 부분의 양묘장이 유실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UNDP(2000)는 북한의 양묘장은 임업성 산하 90개 양묘장과 각 군(郡)단위로 약 5개의 소규모 양묘장 및 기업소나 기관 관리의 양묘장 등 총 1,000여 개의 양묘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북측의 자립력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겨레의 숲’은 양묘장 운영에서 기존의 노지양묘 뿐만 아니라 빠른 기간에 다수의 우량묘목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양묘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닐 양묘온실을 짓고 시설양묘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이는 자연조건에만 의존하는 노지양묘의 한계에서 벗어나 양묘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증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양묘방식이다. 2~3년의 양묘경험을 한 후, 북측은 용기(포트)를 이용한 시설양묘에 대해 매우 큰 열의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양묘장 비닐온실 건축공사 장면
(평양 순안양묘장)



양묘장 준공식 기념 남북 공동식수 장
면(평양 순안양묘장, '07. 4)



남북 공동으로 노지에 비료주는 장면
(금강산양묘장, '05)



3월에 파종하여 온실에서 양묘중인 상
수리 묘목(평양 순안양묘장, '07. 4)



상묘온실 파종 상태를 둘러보는 평양
순안양묘장 준공식 남측 참가자들
('07. 4)



공동으로 북측 노동자들과 소나무 이
식작업하는 장면(금강산양묘장, '07. 4.)

2. 조림사업

시범조림사업

북한 산림복구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인프라를 구축하는 분야로서 궁극에는 정부가 주도해야 할 분야이다. 280여만 ha에 이르는 황폐지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겨레의 숲'의 사업은 북한지역의 본격적인 조림활동을 준비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조림에 필요한 묘목은 일부 지원하기도 하고 양묘장에서 생산된 묘목을 인근 산지에 식재하여 제대로 활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 사회의 특성상 생산된 모든 묘목의 식재현장을 남측에서 직접 방문하여 관리할 수 없는 만큼, 일정 지역에 대해서만 '시범단지화'하여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시범조림 지역은 남북 전문가가 공동으로 사전조사와 조림, 사후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나 북측은 사업지 개방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우며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이러한 북측을 설득하여 2008년에 금강산지역 50 ha와 평양지역 100 ha에 대한 '시범조림'을 합의하였다.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조림지 사전조사와 조림계획 등을 북측과 협의하고 있으며, 평양지역은 2009년 봄에 용악산에 묘목을 식재하였다. 금강산지역은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현장방문이 성사되지 못함으로 인해 추진이 유보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측은 조림지를 개방하는 데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나 보다 깊은 신뢰를 쌓아 적극적인 자세를 유도해 나간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음을 사업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조림예정지 상태에 대한 남북관계자 협의 장면(평양 용악산, '09. 3) 조림예정지 나무 상태 측정작업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남측 전문가 이름표 (평양 용악산, '09. 3) (평양 용악산, '09. 3) 북측 조림목에 붙어있는 조림실시자



10월에 가 본 용악산 조림지 ('09. 10) 금강산 조림예정지 전문가 현장조사 (강원도 북고성군 금천리, '08. 6) 금강산 조림예정지 전문가 현장조사 (강원도 북고성군 금천리, '08. 6)

유실수단지 지원사업

‘겨레의 숲’은 북측의 산림협력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설득하고 조림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북측이 요청하고 있는 유실수단지(밤나무, 사과나무) 조성을 지원하고, 식량·연료·장비를 제공하는 등 보다 복합적인 접근방식 및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뢰가 쌓여야만 산림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북한 산림의 생태조사도 함께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조림사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북한 산림복구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평양과 금강산에 잣나무, 소나무, 아까시 등 묘목 약 100만여 본을 지원하여 조림하였고, 단기소득 확보가 가능한 유실수 지원의 일환으로 금강산에서 밤나무단지 140 ha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평양 력포구역에서 사과나무단지 10여 ha에 묘목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먹는 문제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북측의 실정을 감안하여 식량과 조림을 병행한 지원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북측이 요구하는 부분도 일정하게 지원을 하면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가미해야 좀더 적극적인 북측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금강산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접근이 용이하여 남측의 전문가가 장기간 체류하면서 기술협력을 할 수 있었고, 산림협력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었으므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모범적인 사업지역이다. 그러나 금강산지역이 남북산림협력의 시범모델로서 자리를 잡아가던 차에,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사건이 터지면서 이후 민간 단체의 금강산지역 현장 접근이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이 잠정 중단된 것은 매우 큰 손실이라 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사업이 정상화되어 그간의 사업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작업로 120km 조성 등 조림지 준비, 식재 작업 진행 ('06)



밤나무단지 방제농약 살포 장면 (북고성군 금천리, '08. 7)



2006년 심은 7년생 밤나무에서 밤이 열리기 시작(북고성군 금천리, '07. 8)



밤나무단지 관리인원 식량제공용으로 4월에 묘목을 식재한 사과 과수단지 단지 사이에 심은 고구미를 수확하는 전경(평양시 력포구역 능금동, '09. 8) 인부들 ('07.10)



밤나무단지 관리인원 식량제공용으로 4월에 묘목을 식재한 사과 과수단지 단지 사이에 심은 고구미를 수확하는 전경(평양시 력포구역 능금동, '09. 8)



밤나무단지 관리인원 식량제공용으로 4월에 묘목을 식재한 사과 과수단지 단지 사이에 심은 고구미를 수확하는 전경(평양시 력포구역 능금동, '09. 8) 경지정리 예정인 논(10ha) (북고성군 금천리, '08. 7)

남북공동 나무심기행사

사업에 대한 남북 상호간 이해를 증진하고, 참여하고 있는 관련단체와 회원들이 사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매년 금강산과 개성, 평양 등지에서 남북공동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2007년부터 신혼부부 등 각계 각층의 국민 1,000명 이상이 공동 나무심기행사에 참여하였다. 직접 북한에 가서 나무를 심는 체험보다 북한 산림녹화사업의 중요성을 보다 실감하게 되는 계기는 없을 것이다. ‘百聞이不如一見이요, 百見이不如一行’이다. 2009년 이후 남북 당국간 관계 경색으로 해마다 개최해왔던 남북 공동행사가 중단되고 있는데, 하루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비오는 와중에도 진행된 밤나무단지 황사바람 속에서도 나무를 심고 있는 신혼부부 나무심기 행사
조림 남북공동행사 (강원도 북고성군 금천리, '06. 4) 신혼부부들(강원도 북고성군, '07. 4) (금강산 청터솔밭, '08. 3)

3.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나무를 새로 심는 일도 중요하지만, 몇십 년씩 자란 나무가 병해충에 의해 죽지 않도록 잘 가꾸고, 병해충의 확산을 막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북한 산림의 병해충 피해 현황은 매우 심각하다(표 1). 아릅드리 소나무가 솔나방(일명 ‘송충이’)과 솔잎혹파리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어딜 가나 한눈에 목격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산림은 1960년대 남한과 같이 솔나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적기에 방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 솔잎혹파리의 경우 금강산과 평양 지역에서는 남한의 지원 하에 나무주사를 실시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으나

발생지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계속 확산되고 있으므로 방제지역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도 북한에서 발생이 확인되었지만 방제 기 자재와 농약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의 실정을 감안할 때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병해충 방제전략을 수립하고, 남한에서 개발된 방제기술 을 적용하고 방제장비 및 농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단기에 성과가 나타나는 만큼 북측의 산림분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다. 특히 금강산이나 개성 등 접경지역의 경우 남한지역 으로의 병해충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병해충 방제사업은 시급한 사안이다.

‘겨레의 숲’은 우리 전문가가 방문하여 평양과 금강산지역에서 산림병해충 피해현황 을 조사하고, 평양지역에 소나무와 잣나무 병해충에 대한 방제물자 6천여 ha분을 지원 하였다. 또한 방제기술을 지도하고 남북 공동으로 방제작업도 실시하였다. 북측은 지속 적으로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이후 우리측 전문가들도 뚜렷한 방제 효과가 있다면서 지원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솔나방, 솔잎혹파리로 인한 피해지 (평양시 용약산, '07. 5)



솔잎혹파리 피해목을 조사하고 있는 남측 전문가 ('07. 5)



소나무잎을 가해하고 있는 솔나방 (평양 동명왕릉 소나무림, '07. 7)



산림병해충 방제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남측전문가 (평양 동명왕릉 소나무림, '07. 7)



남북 공동으로 동명왕릉 소나무림 병해충 방제작업 실시 장면 (평양시 력포구역, '07. 5)



산림병해충 방제작업을 하고있는 남측 대표단 (평양시 동명왕릉, '07. 7)

표 1. 북한의 각 도별 산림병해충별 지역별 피해면적

단위 : ha

도별	계	솔나방	잣나무잎벌	솔잎혹파리	소나무 깍지벌레	이깔나무 털벌레
계	250,000	100,000	50,000	20,000	30,000	50,000
평양	25,000	20,000	3,000	2,000	-	-
평남	28,000	20,000	7,000	1,000	-	-
평북	44,000	5,000	8,000	1,000	30,000	-
황해남	43,000	30,000	9,000	4,000	-	-
황해북	24,000	10,000	9,000	5,000	-	-
강원	12,000	-	7,000	5,000	-	-
함남	24,000	15,000	7,000	2,000	-	-
양강	50,000	-	-	-	-	50,000

자료: 남북 당국자간 협력 회의 시 북한 대표단으로부터 받았던 자료 (2007. 5. 8. 개성공단 남북경협사무소)

4. 국민참여 확대사업

북한 산림녹화 지원사업에 대한 일반국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은 남북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황폐한 북한의 산림을 복구하는 일은 ‘인도적 지원사업’인 동시에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남북 상생의 사업’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겨레의숲’은 남북공동 나무심기 행사 및 국민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까지 2년 동안 일반국민 약 1,000여 명이 참가하여 평양, 금강산, 개성 등지에서 식수행사를 진행하였고, 2007년도부터 언론방송사와 함께 북한에 ‘1인-1년-10그루 보내 기운동’ 국민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한 사람의 열 그루는 미약하지만, 5천만이 매년 열 그루씩 지원하면 5억 그루가 된다. 또 20년을 매년 지원한다면 북한 황폐조림에 필요한 100억 그루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 뿐만 아니라 기업과 전문기관의 참여확대도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에너지다소비 기업과 연계한 탄소배출권 사업 등의 시범적 추진이나, 남북 산림전문가 토론회, 남북 임업용어집 공동발간, 남북 산림유전자원 교류사업 등을 북측과 협의·모색하고 있다.



금강산 나무심기에 참가하여 식수를 돕고있는 어린이(북고성군 온정리, '08. 5)



한반도푸른숲가꾸기 국민운동 선포식 선언문 낭독 (서울숲, '08. 5)



'한반도푸른숲가꾸기 국민운동 선포식' 식수퍼포먼스 (서울숲, '08. 5)



북한에 나무보내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 도곡중학교 환경동아리 학생들 (서울 종로, '10. 2)



서울숲 캠페인 행사에서 타일을 붙이며 푸른 한반도를 만드는 가족 (서울숲, '07. 9)



MBC 청사특집 방송 '푸른 한반도를 꿈꾸며' 캡처사진 ('08. 12)

겨레의 숲의 대북 산림협력사업 성과와 과제

남북간 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신뢰의 구축'이라고 판단된다. 2009년 북한 핵실험 등 당국간 관계 경색으로 인한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올 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신뢰를 쌓은 결과, 확실한 남북 산림협력 창구를 개설하고 사업 확대의 가능성을 높인 점은 '겨레의숲'의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일시적 묘목지원이나 일회성 행사가 아닌 양묘·조림·병해충방제·국민참여확대사업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려 노력하였고, 조림사업을 식량·연료·농업지원 등과 연계하여 추진한 결과 북측과의 신뢰관계를 보다 깊이 구축

하였다(표 2).

양묘분야에서는 서부와 동부, 접경지역에서 8개 양묘장을 협력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묘목 생산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는 10년간 1억 그루의 묘목을 생산하여 3만 ha를 조림할 수 있는 규모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협력사업의 단절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벌여 북측의 자립능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조림분야에서는 지역 개방에 매우 보수적인 북측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평양지역에서 나무를 식재하고, 금강산지역에서 조림예정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식재 설계를 진행하였다. 이것은 조림사업이 실질적인 남북협력사업으로 진전할 토대를 마련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북측의 당면한 식량지원 요구를 감안하여 조림지 내에 고구마나 벼농사 재배를 지원하고, 유실수를 조림하는 등 산림녹화사업에 참여한 북측 주민의 자활기반을 제공하는 모델도 마련하였다.

또한, 단기에 성과가 확인될 수 있는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을 지속하여 병해충에 무방비 상태였던 북한의 산림황폐화 저지에 기여하고, 북측이 산림분야 협력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양묘나 조림분야에서 난제인 사업지 개방문제를 유실수 조림이나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벌인다면 보다 진전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는 산적해 있다.

양묘장 부지의 토양 불량, 불안정한 종자수급, 양묘기술 부족 등으로 생산목표 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상존하여 계획한 생산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지속적 과제이다. 남북간 신뢰도를 높여 보다 밀착된 전문가 간의 기술교류 및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조림 및 관리, 남북 전문가 교류의 활성화 등 우리측 요구에 대한 북측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산림 협력사업을 남북 간에 전면적으로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를 노출하였다. 북측의 사정을 감안한 식량·연료 지원과의 적극적 연계 등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보다 종합적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 시기 풀어야 할 가장 큰 난제는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사업의 불안정성’

극복이다. 남북관계의 교량으로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사업이 당국간 정치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당국의 인식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다.

표 2. 겨례의 숲 대북 지원실적 (2007~2010)

구 분	지원 사업 내용
총 지원실적	양묘장 조성/복구 지원 (8개소), 황폐지복구용 묘목 지원 (약 320만본),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 (6,400ha), 대체 에너지 지원 (연탄 1,000천장), 남북 공동 식목행사 (3,500여 명 참가 - 금강산, 개성, 평양)
겨례의 숲 직할사업	양묘장 조성(평양 순안,중화), 묘목 110만본, 양묘용 자재 지원, 병해충방제 6,400ha 지원 (약제·장비·기술지원)
평화의 숲	묘목 1만본 및 양묘장 조성 지원 (고성군 - 온실, 종자, 비료 등), 공동 나무심기 행사 (금강산)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묘목 19만본 지원, 양묘장 조성 2개소 (평양 순안, 중화)
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 경기도	양묘장 조성 (개성 개풍), 묘목 약 100만본 지원, 종자 및 양묘자재 등 지원
푸른통일조국 가꾸기운동	양묘장 조성(회령, 나선) 및 기자재(양수기, 경운기 등) 지원
늘푸른삼천	묘목 50만본 지원, 양묘장 조성(평양 상원군) 및 양묘용 자재 지원
우리겨례 하나되기	양묘장 조성(평양 삼석구역) 및 양묘자재 지원
사랑의 연탄 나눔운동	'05~'08, 소나무, 잣나무묘목 40만본 지원, 나무심기 행사 (개성, 고성 약 2,500여명 참가) '04~'09, 연탄 약 1,000천장 지원 (개성, 고성)

* 소속단체 포함

향후 추진방향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향후 추진방향은 종합적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단계별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속추진하는 것이다. 즉, 양묘·조림·병해충방제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조림사업과 식량·연료·농업 지원 등을 연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 양묘분야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양묘장의 생산효율성을 높이고, 기존 지역 외 신규 양묘장을 추가 조성하며, 조림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남북공동 조림사업지를 확보하여 '시범조림사업 모델링'을 조성해야 한다. 지속적이고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접근이 용이한 평양, 금강산, 개성지역을 우선 선정할 수 있겠다. 병해충방제분야에서는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산림황폐화 저지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 안목에서 복층의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시설로, 양묘와 조림사업의 기본인 우수 종자의 안정적 수급 기반 확보를 위한 종자관리시설과 효율적 산림방제사업을 위한 병해충연구시설 건립 추진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업방식에서는 참여 주민에게 식량 및 연료를 제공하고, 단기소득 확보를 위한 유실수 조림 등을 지원하여 자활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장의 식량과 땀값, 소득이 없이는 장기적인 관리가 수반되는 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매 사업 단계마다 전문가와 함께 참여하여 전문가간 교류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조림과 산림병해충을 포함한 각종 산림생태정보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 공동 임업·산림과학분야의 통합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산림녹화사업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국가 인프라 구축사업이므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다. 남북 당국은 물론 민간과 기업,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기업-민간의 협력기구 마련 및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대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으로 지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 참여를 유치할 수 있는 투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조림 탄소 배출권(A/R CDM) 사업,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사업(REDD)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잠정 중단...그러나 북한산림녹화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한데 정치사회적 상황은 만만치가 않다. 2008년 북한의 핵 실험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상황에서도 '산림녹화사업은 정치상황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올 봄까지 조림을 위한 묘목을 지원하는 등 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3월 발생한 천안함 사태 이후 우리 정부는 북측과의 교류협력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방북 및 대북 물자지원 제한' 조치로 '겨레의 숲'의 대북 산림협력사업도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북측의 숲과 산림은 계속 황폐해지고 있고, 이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더욱 더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올 여름에도 어김없이 폭우가 쏟아졌고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산 아래 사는 주민들은 또다시 난민신세가 되었고 농작물은 망가졌다. 설상가상으로 어려운 식량난과 식수난, 연료난이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단둥과 신의주에 똑같이 폭우가 쏟아졌는데, 두 지역의 피해상황은 극명하게 다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민둥산'이다. 삼림이 울창한 산들은 빗물을 흡수하여 저수 작용을 하지만, 경사가 가파른 북한의 민둥산들은 오히려 빗물의 흐름을 가속화시켜 하천을 범람시키는 주범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환경과 경제가 피해를진다면 우리 역시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제 해결이 지체될수록 그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남북 당국간 교류는 단기간에 정상화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는 인도적 지원사업은 계속 이어나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3

북한농업 동향

북한매체 보도 동향

국내매체 보도 동향

북한매체 보도 동향

1. 농업정책

□ 신년공동사설

- 신년공동사설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를 게재 (민주조선 11.1.1, 노동신문 11.1.1)

경제 및 농업분야

- 올해는 인민생활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강성대국 건설의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할 총공격전 해
 - 경공업은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전선
 - 4대 선행부문은 인민생활 대고조 불길의 ‘밑불’, 화학공업기지 생산정상화
 - 농업은 인민생활 문제 해결의 생명선, 먹는 문제, 식량문제 해결
 - 자력갱생 원칙 철저히 구현,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 관리에 맞게 기업관리
- 작년 ‘인민생활 향상’의 최우선과제 설정에 이어 금년에도 ‘인민생활 대고조’를 최우선 과제, 경공업 부문을 주공전선으로 제시함. 경제 분야를 신년사 제목으로 제시한 것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임.
 - 북한은 1985년부터 ‘경공업 혁명’의 기치 제시 아래, 1989년 ‘경공업의 해’로 설정, 1993년 ‘혁명적 경제전략’을 제기 및 1994~1997년 사이의 ‘경제완충기’에 ‘농업, 경공업, 무역 제일주의’ 추진, ’10년 경공업·농업 주공전선 설정, ’11년 ‘경공업의 해’로 재설정함.

- 경공업 제품생산에 있어 “인민들의 호평 받는 인기상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 등을 강조, 외국산 경공업제품을 대체하려는 의지 피력함. “상품공급 사업과 급양봉사사업의 혁명적 개선” 언급, 경공업 생산 향상을 통한 국가의 공식 유통망 강화 의지 피력함.
- 작년 11월 김정일의 평북 창성군 현지도(창성식료공장, 창성직물공장)를 계기로 지방공업 혁명을 강조하던 논조를 금년에도 지속됨. 중앙공업만으로는 주민공급을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공업과 지방공업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공급확대를 도모하려는 의도임.
- 2010년 농업부문 성과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고, 금년도에는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기어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4대 선행부문(석탄·전력·금속·철도)을 ‘인민생활 대고조’를 뒷받침해줄 ‘밑불’로 강조, 화학공업기지들의 ‘생산정상화’ 강조함. 2010년에도 4대 선행부문을 ‘인민생활 문제를 풀기 위한 관건적 고리’로 강조했음.
- 4대 선행부문 중 ‘석탄’을 가장 우선한 것은 1998년 이후 처음임.(△2009~2010년은 금속을, △1999~2008년은 전력을 가장 우선 언급) 이는 인민경제 주체화(주체철·주체비료·주체섬유 등)에 필요한 원료 및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서의 석탄 공급 보장을 강조한 것임.
- 작년 2.8비날론, 남흥청년화학의 주체섬유·비료 공정 현대화를 계기로 화학공업 부문 생산정상화 강조함 ‘자력갱생의 원칙 철저히 구현’,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관리원칙’을 강조하는 가운데 대외경제부문 언급 없음.
- 국제사회 대북제재 지속으로 외자유치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자립적 민족경제’ 기반 마련에 매진하겠다는 의도 내포됨. 다만 지하자원 개발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 및 경제 강국 건설 재원 마련 언급, 지하자원 개발을 통한 재원마련 시도 예상됨.
- 한편, 2010년과 마찬가지로 ‘최첨단 돌파전’을 경제건설 속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과학기술과 생산의 결합을 강조함.

표 1 신년 공동시설의 경제 및 농업분야 주요 내용, 1995~2011

연도	경제 전반	농정 방향
1995	· 혁명적 경제 전략의 관철을 통한 인민생활의 획기적 향상	· 협동적 소유, 전인민적 소유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하고 주체농법의 관철로 알곡생산 목표 달성
1996	· 혁명적 경제전략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 인민생활 향상 및 자립적 경제토대 구축	· 주체농법에 따라 농사를 주인답게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에서 결정적인 전환 달성
1997	· 자력갱생의 구호 하에 경제적 밀천을 최대한 동원·이용하여 먹는 문제를 해결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토건설로 부강한 조국의 토대 구축	· 주체농법에 따라 농민들의 지향, 자체의 실정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고 쌀풍년, 고기풍년 마련. 초지를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초식가축 사육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계속 전개
1998	· 경제건설은 최대의 힘을 넣어야 할 주전선임. 농업과 석탄공업, 전력공업과 철도운수, 금속공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고 민족경제의 위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함.	· 농업생산의 증대, 먹는 문제 완전 해결 - 종자문제해결, 2모작 확대 - 농업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민의 의사와 자체 실정에 맞게 수행 - 초식가축을 기본으로 축산업의 대대적인 발전
1999	· 경제건설은 강성대국 건설의 가장 주요한 과업. 정치사상적, 군사적 위력에 경제적 힘이 밀받침될 때 명실 공히 강성대국 지위에 올라설 수 있음.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경제전반을 자기의 궤도에 확고히 올려 세우며 인민생활의 안정, 향상	· 농사에 전 국가적인 힘을 넣어 먹는 문제 해결 - 감자농사혁명 - 적지적작적기적작 원칙에서 농업구조개선 - 2모작 확대와 종자혁명의 계속적 추진 - 토지정리사업의 대대적 전개
2000	· 올해 보다 큰 힘을 넣어야 할 전선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임. · 당의 경제정책을 옹호 관철해 나가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하나씩 추켜세워야 함. 모든 부문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여 경제적 타산을 앞세우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여야 함.	· 주체농법의 철저한 관철 - 종자혁명과 감자농사혁명, 2모작 확대, 초식가축 사육 증대 - 양어사업을 대중적 운동으로 전개 - 토지정리와 산림조성을 비롯한 국토관리사업의 지속적 추진 - 개천-태성호 관개수로공사의 적극적인 추진
2001	· 경제건설의 중심 과제는 경제토대를 정비하고 경제전반을 현대적 기술로 개선하는 것임. ·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가장 중요한 부문은 전력, 석탄, 금속 및 철도운수부문임. -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고, 석탄생산 증대 - 금속공업의 설비 현대화를 통해 철강재 생산의 활성화	· 농업생산을 늘이는 것은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결정적 고리임. - 종자혁명과 감자농사혁명의 지속적 추진 - 2모작 면적의 확대 - 메기를 비롯한 생산성이 높은 물고기를 위주로 양어 확대 - 현대적인 축산기지 건설

표 1 신년 공동사설의 경제 및 농업분야 주요 내용(계속), 1995~2011

연도	경제 전반	농정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운수를 정비 보강하여 증가하는 수송 수요 보장 - 경공업부문에서는 1차 소비품과 기초식품의 생산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과 개천-태성호 관개수로공사를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제일주의 구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촉진하여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임. - 채취,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 마련 - 주민생활 향상과 관련된 문제들을 최우선적으로 해결 - 경제 관리의 개선 및 완성 - 제도 제일주의 구현을 위해 과학기술과 교육사업 발전에 전 국가적인 관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하여 농업생산 증대 -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과 개천-태성호 관개수로공사의 조속한 완료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게 경제를 관리 운영해 나가야 함. - 국방공업을 중시하고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바탕으로 한 인민경제활성화 - 경공업의 현대화를 통한 인민소비품의 대대적인 생산 -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진기술을 배우고 최첨단과학기술을 받아들임 - 모든 부문, 단에서 현대화의 뚜렷한 전망 목표를 세우고 기술개건사업을 추진해나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의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함. - 대규모토지정리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며 혁명의 수도 평양을 새 세기 맛이 나게 더욱 웅장화려하게 꾸려야 함.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와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라의 국력을 백방으로 다지자!”라는 구호를 들고 힘찬 투쟁을 벌여야 함. - 경제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에 주된 힘을 넣어야 함. - 화학발전소와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중소형발전소들을 쓸모 있게 건설하여 전력생산을 늘여야 함. - 석탄공업과 금속공업발전에 힘을 집중하고, 철도운수부문에서 수송조직과 지휘를 체계적으로 세워나가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하여 종자혁명을 기본고리로 감자혁명과 두벌농사를 발전시켜야 함. - 공농사와 과수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고, 축산기지들과 개건현대화된 닭공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함. - 토지정리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으며, 백마-철산 물길공사를 다그쳐야 함. - 평양시와 도, 시, 군소재지들의 면모를 일신시키며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함.

표 1 신년 공동시설의 경제 및 농업분야 주요 내용(계속), 1995~2011

연도	경 제 전 반	농 정 방 향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은 농업 전선임. ·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의 문제해결은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데 있음. · 전체 인민은 혁명적 각오로 농업부문에 필요한 노력과 설비, 물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무조건 보장해주어야 함. ·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을 발전시키며, 대규모수력발전소 건설을 앞당기고 석탄생산을 정상화하며 화력발전설비들의 능력을 높여 전력생산을 늘여야 함. · 경공업부문에서는 경공업공장들을 개건현대화하고 갖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공급해야 함. · 평양시를 더 잘 꾸리고 도시와 농촌들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많이 건설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부문에서는 중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과 공 농사 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들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함. · 다수확품종을 심고, 비료와 농약을 보장해주며,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의 기계화비중을 높여야 함. · 농업지도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며 농업과학발전에 힘을 넣어야 함. · 백마-철산물길공사를 앞당겨 끝내며 대규모 토지정리사업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게 하여야 함. · 전당, 전국, 전민이 농촌을 노력적으로, 물질적으로 힘있게 지원하여야 함.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의 요구대로 국방공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최우선 보장해 줘야 함. · 전력공업부문의 전력문제를 풀어나가야 함. 석탄공업과 금속공업은 인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관건적 고리임. · 채취, 기계, 화학, 건재공업과 임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초적인 것부터 해결하면서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새로운 생산적 양양을 일으켜야 함. 경공업부문에서 생산공정을 적극 현대화하여 질 좋은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려야 함. · 경제부문 지도일꾼들은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가지고 실리를 따져가며 경제사업에 대한 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에도 농업전선을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내세우고 농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야 함. · ‘쌀은 곧 사회주의다’라는 말을 지침으로 온 나라가 농업전선에 떨쳐나서야 함. 농업부문에 필요한 노력과 설비, 물자들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함. · 당의 중자혁명방침, 감자농사 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공농사방침 관철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와야 함. ·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답게 농사일을 간지게 하며 모든 지원자들은 지난해처럼 농촌을 적극 도와줘야 함. · 미루벌을 비롯한 도처에서 물길(수로)공사와 토지정리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며 토지관리를 잘해야 함. 기계화, 화학화를 적극 다그쳐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함.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경제문제를 푸는데 국가적 힘을 집중해야 함. · 주된 과업은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우리 경제의 현대화를 위한 기술개건을 다그치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시기와 다름없이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틀어쥐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함. 농업부문 일꾼과 근로자들은 당의 농업혁명 방침관철에서 주인다운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자

표 1 신년 공동사설의 경제 및 농업분야 주요 내용(계속), 1995~2011

연도	경제 전반	농정 방향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공업에서는 인민소비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야 함. 축산기지, 양어기지, 기초식품생산기지들이 은을 내게 하여야 함. · 인민경제의 4대 선행부문인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부문이 경제강국 건설의 전초선을 튼튼히 지켜야 함. 전기, 석탄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야 하며, 금속공업은 철강재 생산을 늘려야 함. 철도운수부문은 수송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함. · 에너지 및 자원개발사업을 위해 채취, 기계, 화학, 건재, 임업부문들에서 생산을 활성화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로 농사짓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야 함. · 농업발전의 전망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알곡생산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함. 농업생산에 필요한 영농물자와 자재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함. 미루벌을 튼튼한 알곡생산기지로 꾸려야 함.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대국건설의 주공전선은 경제전선임 · 인민경제의 주체성 강화,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를 통해 자립민족경제를 발양시켜야 함 · 인민경제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추켜세워야 함 ·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는 내각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은 없음. · 다수확품종을 많이 심고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함. · 지난 10년간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 관철에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하며 인민군대에서처럼 공농사를 잘해나가야 함. · 농사에 필요한 영농설비와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함. · 자체로 농사를 짓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함. · 현대적인 축산기지, 양어기지, 과일생산기지를 잘 운영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함.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생산정상화와 현대화를 밀접히 결합시켜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최고 생산 수준을 결정적으로 돌파해야 함. · 금속공업의 선차적 발전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인민경제 중요부문의 생산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의 힘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 하는데 총력을 집중해야 함. · 당의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공농사방침의 생활력을 더 높여 발양시키며 농촌에 대한 물질기술적 지원을 강화해야 함. · 농산과 축산을 배합하고 농촌경리를 다각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며 전군중적으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어야 함. · 농업근로자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함.

표 1 신년 공동사설의 경제 및 농업분야 주요 내용, 1995~2011

연도	경제 전반	농정 방향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선행부문에서는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이 중공업의 발전에 달려있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높은 생산적 양양으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세를 힘있게 추진해야 함. · 경제지도일군들은 진취적이며 현실성있는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세우고 오늘의 대고조진군을 주동적으로 밀고나가야 함. 계획규율, 재정규율, 로동행정규율을 철저히 확립하여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이 뚜렷이 나타나게 하여야 함. · 일군들은 경제관리지식을 폭넓고 깊이있게 지녀야 하며, 여러 가지 경제적 공간을 윤택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의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과 공농사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빛나게 구현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함. ·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유기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함. 주체적인 육종체계가 서고 실리주의 원칙이 구현된 현대적인 축산, 양어, 과일생산기지가 현실에서 커다란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함.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할 총공격전 해로 구현해야 함 · 경공업은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전선으로 해야 함. · 4대 선행부문은 인민생활 대고조 불길의 ‘밑불’이 됨 · 화학공업기지를 생산정상화 해야 함 · 농업은 인민생활 문제 해결의 생명선으로 인식해야 함. · 자력갱생 원칙 철저히 구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전선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 · 농업부문에서는 당의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공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고 유기농법을 비롯한 선진 영농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함. · 알곡 정보당수확고를 비약적으로 높이기 위한 경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함. ·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기어이 해결하려는 당의 의도를 받들고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려야 함. ·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농사에 필요한 물자들을 영농공정에 앞세워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함.

□ 농업정책

- 공동사설을 지켜 올해농사에 집중(로동신문 10.20)
 - 김정일은 “한 알의 낱알도 헛되지 않게 빨리 거두어 들이도록 해야 한다. 벼단꺼 들기와 낱알 털기를 빨리 하지 않으면 알곡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함.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사리원시 미곡, 태천군 은홍, 룡천군 신암,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을 비롯한 서해별방농촌들에서 가을걷이 일정계획을 150%이상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둬.

- 서해벌방농촌들의 당조직에서는 대중들의 열의를 적극 불리일으켜 조직적으로 힘차게 가을걷이를 하도록 앞장섰으며 특히 령도업적단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앞장서서 이끌었음.
- 벼단실어들이기와 낱알털기를 다그친다 (로동신문 10.24)
 - 김정일은 “농사를 잘 지어 농업생산을 늘리려면 그 직접 담장자들인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함.
 - 함주군을 비롯한 함흥별안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뜻깊은 올해 농사에 대한 열정을 안고 벼단실어들이기와 낱알 털기에 나섬.
 - 일군들의 힘있는 화선식정치사업과 주도면밀한 작전, 농장원들의 열의로 하여 함흥별은 가득차 있다. 가는 곳마다 뜻깊은 올해 농사결속을 잘하도록 대중을 힘있게 불리일으키는 구호들과 붉은기들이 걸려있고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협동벌에 울려퍼지고 있음.
 - 벼가을을 제일먼저 끝내고 낱알털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호남, 료성, 향동협동농장을 비롯한 정평군안의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벼단실어들이기와 낱알털기를 일정계획대로 내밀면서도 한알의 낱알이라도 허실하지 않기 위하여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해 나가고 있음.
-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운동(로동신문 10.31)
 - 김정일은 “당조직들은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에 농업근로자를 불리일으키기 위한 정치 사업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말함.
 - 대중의 열의에 맞게 각지 농촌 당조직과 당일군들은 포전에서 그들의 심리와 정황에 맞게 화선식정치 사업을 보다 참신하고 박력 있게 추진하고 있음.
 -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가을걷이에 들어가기 전에 대중을 불리일으키기 위한 여러 가지 형식의 정치사업자료를 만들어 시, 군과 농촌당조직에 내려 보내어 전투현장에서 화선식정치사업을 활발히 벌여나가게 하였음.
- 낱알털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 (로동신문 11.22)
 - 김정일은 “협동농장에서 노력을 가들건이에 집중하며 모든 운반수단을 다 동

원하여 가을한 곡식을 제때에 실어들이고 낱알털기를 빨리 끝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함.

- 당대표자회의정신을 기억하여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애써 가꾼 낱알을 한 알도 허실함이 없이 제때에 털기 위하여 개별목표를 세우고 현지를 밟아보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음.
 - 군안의 일군들은 해당 단위의 일군들과 합심하여 낱알털기일정계획을 빈틈없이 세우고 낱알털기현장에서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자각을 안고 맡은 일을 잘해나가도록 하고 있음.
 - 럽석, 룡오, 룡반, 인흥 협동농장들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도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낱알털기를 힘차게 하고 있음.
- 농업전선을 꿰게 하는 화선식정치사업 (로동신문 12.8)
- 김정일은 “당조직들은 농업근로자들을 알곡증산으로 불러일으켜 그들이 강성대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기는데 한 몫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 도당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당조직에서는 포전에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선전선동활동을 활발히 하여 지난 시기보다 기일을 앞당겨 올해농사를 마무리하고 다음해 농사준비를 하고 있는 농업근로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고 있음.
 - 도당위원회 선동선전부에서는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여 황남땅에 선전물을 작성하여 강연자료와 해설담화자료를 만들어 당조직에게 내려 보내 주었고 부서의 일군들이 웅진군 송월협동농장을 비롯한 연선지대 협동농장들에 나가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다음해 농사차비를 다그치고 있음.
 - 도당위원회를 비롯한 각급당조직들에서는 다음해 농업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이루기 위하여 대중을 힘차게 불러일으킬 선전선동공세를 계속 펼쳐나가고 있음.
- 빈틈없이 작전하고 내밀자 (로동신문 12.28)
- 김정일은 “농사준비를 잘하는 것은 알곡 생산을 늘리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라고 말함.
 - 농사차비에서 기본은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동농장에서는 유기질비료 생산에 역량을 집중하여 논밭에 거름을 많이 내어

땅을 걸구고 지력을 높이어 안전하게 높은 수확을 내야함.

- 모판자재 준비를 철저히 하여 바람막이바지와 모판나래엮기를 하여 비닐박막과 활창대, 말장도 넉넉히 마련하여 흙구이를 중단 없이 하여 모판복토재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 농기계수리정비와 중소농기구준비에 큰 힘을 쏟아 각지의 트랙터 부속품공장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농촌에 더 많은 농기계부속품을 보내주어야 함. 농기계작업소들에서는 내부 예비를 남김없이 탐구동원하고 대용연료도 적극 이용하여 겨울철 농기계수리에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 협동벌을 끊게 하는 화선식정치사업 활발 (로동신문 11.1.7)

- 김정일은 “오늘의 정치사업은 화선선전, 화선선동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말함.
- 새해공동사설과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종업원들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호응하여 각지 협동농장의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자신만만한 투지를 안고 정초부터 거름 생산에 집단적 움직여 전국적으로 지난 3일 하루 동안에 만도 수백 톤의 유기질 비료를 협동농장포전에 실어내는 성과를 거둠.
- 황해남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당면한 거름생산에 농업근로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시군당위원회들과 농촌당조직들을 내려 보내 현장에서 화선식 정치사업을 힘차게 진행하고 있음.
- 평안북도에서도 첫 날부터 수천 톤의 유기질비료를 싣고 송한과수농장에 내려간 도급기관의 일군들이 농업근로자들과 어울려 일하면서 화선식 정치사업을 벌려나감. 도안이 곳곳에 호소성이 강한 수만 점의 구호와 선전화 표어들이 게시되어 있음.

○ 농업전선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 (로동신문 11.1.8)

- 김정일은 “농업생산을 발전시켜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을 높이 발전시킬 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힘차게 밀고 나갈 수 있다”고 말함.
- 지난 10여 년 동안만 하여도 농업부문에서는 당의 지침 밑에서 변혁이 이루어 짐.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콩농사방침을 이루어 내기 위한

노력에서 커다란 성과가 나타나고 만년대계의 토지정리와 자연흐름식물길건설이 진행되어 농업생산을 높일 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었음.

- 농사를 잘 지어야 나라의 쌀독이 차오르고 인민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되며, 농업이 주저 않으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 하는 모든 부문이 전진할 수 없기 때문에 농업전선은 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임.
- 농업생산물은 생산활동에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간장, 된장을 비롯한 기초식품들과 당과류제품들, 고기, 알, 젓, 과일가공품과 장절임을 비롯한 갖가지 식표가공제품, 비단천과 초물제품 등 수많은 제품의 생산이 농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 농업전선은 인민소비품을 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

□ 과학영농

- 유기농법을 적극 받아들여(로동신문 11.28)
 - 김정일은 “농업생산을 발전시켜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우리 식 사회주의 우월성을 알릴 수 있으며 모든 사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함.
 -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유기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일 데 대한 공동사설의 과업에 따라 우렁이를 논벼농사에 적극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음.
 - 황해북도의 농업부문 일군들은 우렁이에 의한 논벼비배관리의 우월성을 농업근로자들에게 깊이 인식시키는 한편 모범적인 단위의 경험을 일반화 하면서 이 사업을 대담하고 통크게 벌어나감.
 -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농업 근로자들도 유기농법을 받아들여 알곡생산을 늘이는 당의 지시를 따라 동해안지대의 특성에 맞게 우렁이 양식과 도입을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음.
- 우렁이를 논벼비배관리에 적극 이용 (로동신문 12.7)
 - 김정일은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농사를 과학적으로 지어야한다”고 말함.

- 유기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려고 노력한 결과 많은 농장들에 우렁이 양식장이 새로 건설되어 우렁이에 의한 논벼재배 면적이 훨씬 늘어났음.
- 염주군이 우렁이에 의한 논벼농사에 앞장섰는데 룡북, 내중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양식장을 훌륭히 건설하고 그 마리수를 더욱 늘렸고 우렁이를 길러 논에 놓아 줌으로써 많은 노력과 농약, 비료를 절약하면서도 논벼농사를 잘 지어낼 수 있었음.
- 그 결과 올해 전국적으로 우렁이에 의한 논벼비배관리방법의 우월성을 확신한 각지 농촌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높은 목표 밑에 다음해 농사준비에 힘을 쏟고 있음.

2. 벼농사

□ 농사차비

- 논밭갈이를 힘있게 내밀어(로동신문 11.17)
 - 김정일은 “농촌에서 다음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한다”고 말함
 - 평안북도안의 농촌들에서 논밭갈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도안의 협동농장에서는 논밭갈이 목표를 높이 세우고 트랙터를 비롯한 갈이수단을 동원하여 매일 많은 면적의 논과 밭을 갈아엎고 있음.
 - 신의주시 석하, 남민협동농장을 비롯한 시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트랙터 운전수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된 자각을 가지고 맡은 일을 잘 하도록 이끌어주어 논밭갈이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짧은 시간에 많은 면적의 논과 밭을 갈아엎는 혁신을 이뤄냄.
 - 도농촌경리위원회와 시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농기계작업소의 역할을 높여 필요한 부속품을 제때에 생산보장하게 하면서 수리작업을 실속 있게 도와 주어 갈이수단의 만가동을 보장하게 하고 있음.

- 다음해 농사차비를 실속 있게(로동신문 12.19)
 - 김정일은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야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힘 있게 밀고나갈 수 있으며 우리나라를 모든 것이 흥하고 전체 인민이 남부럽지 않게 잘사는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함.
 -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낱알털기를 짧은 기간에 끝내고 다음해 농사차비를 실속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진행하고 있음.
 - 도안의 협동농장마다 다음해 농사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농업근로자들의 노력이 모아져, 금강군과 회양군, 세포군을 비롯한 시 군에서 논밭갈이 실적을 부쩍 높이고 있음.
 - 시, 군들에서는 농사차비에서 기본을 자급비료생산에 두고 모든 역량과 수단을 이 사업에 집중시켜, 원산시 세길남새전문협동농장을 비롯한 도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농사차비를 위한 단계별계획을 빈틈없이 세우고 흙보산비료와 생물활성퇴비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3. 밭농사

□ 준비

- 밭갈이를 제때에 (로동신문 12.10)
 - 황주군 석정협동농장에서 밭갈이를 제때에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다음해 농사차비를 잘하기 위하여 농장일군들은 밭갈이를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음.
 - 땅이 얼기 전에 밭갈이만 잘해도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한 농장일군들은 밭갈이를 제때에 하도록 요구하면서 기술적 지도에 힘을 넣고 있음. 농장에서 자체로 만든 들취갈이보습이 성과를 내고 있는데 농장일군들은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일 수 있는 방도의 하나를 밭갈이갈이를 하는데서 찾고 높은 목표를 세움.

- 일군들이 깊이같이보습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재보장사업을 앞세우면서 기계화 작업반원들의 열의를 높여주었으며 기계화작업반원들은 자기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짧은 기간에 여러 대의 능률 높은 깊이같이보습을 만들어 냈.
- 다음해의 농사를 잘 지어 나라를 쌀이 넘쳐나는 나라로 만들 불타는 열정을 안고 펼쳐나선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노력에 의하여 농장의 밭갈이는 일정 계획대로 적극 추진되고 있음.

콩농사

- 콩농사의 튼튼한 기술적 토대 마련 (로동신문 12.7)
 - 김정일은 “콩은 원그루로도 심고 두벌농사뒤그루로도 심으며 사이섞음그루와 겹재배같은 방법으로도 심어야 한다”고 말함.
 - 평안남도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여야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다수확 품종의 콩밭면적을 늘리고 콩심기를 제철에 질 높게 하였음.
 - 정주시와 곡산군을 비롯한 평안북도 농촌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올해 콩농사에서 장훈을 부를 각오를 안고 한결같이 감자와 콩의 겹재배방법을 받아들임.
 - 콩농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기 위하여 강원도안의 농업근로자들은 김매기를 잘하여 모든 콩밭을 꽃밭처럼 가꾸었는가 하면 평양시 주변 농촌들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기계를 만들어 콩가을 속도와 질을 다 같이 보장하여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다음해에도 콩농사를 잘 지을 방도를 연구함.

4. 축 산

축산동향

- 소문 없이 큰 일하는 축산기지 (로동신문 11.29)

- 김정일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축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물질 기술적토대가 확고히 마련되어 있다”고 말함.
- 올해 종자알, 새끼생산계획을 높이 세운 종금장에서는 먹이보장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놓고 사양관리조건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을 예상하여 조직하고 연초부터 강하게 시행하였음.
- 과학적인 사양관리방법의 요구대로 생산조건을 마련해 놓은 종금장의 일군들은 관리공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술학습과 보여주기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그리하여 그들 모두가 과학적인 사양관리 방법을 환히 꿰뚫고 집짐승기르기를 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원가를 적게 들이면서도 종자알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였음.
- 체험을 믿고 펼쳐나서면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생산실천을 통하여 체험한 일군들과 관리공들은 또다시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생산에 계속 박차를 다하고 있음.

5. 산 립

임업정책

- 겨울철 통나무 생산에 계속 혁신 (로동신문 12.20)
 - 김정일은 “통나무생산을 늘리는데서 겨울철통나무전투를 힘 있게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량강도임업관리국에서는 경제 여러 부문 중에 더 많은 통나무를 보내주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대담하게 일을 추진해 가고 있음. 도 임업관리국 아래 임업사업소들에서 모든 가능성과 조건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더 많은 통나무증산예비를 찾아내고 있음.

6. 기타 보도 동향

□ 과수

- 과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자랑(로동신문 11.13)
 - 김정일은 “과수업을 더 발전시켜 근로자들에게 사철 신선한 과일을 공급하여야 한다”고 말함.
 - 공동시설과 공동구호를 높여서 각지 과수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총공격전을 세차게 펼쳐 올해 과일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음.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사리원, 은훤, 허천, 강상, 고산과수농장들을 비롯한 각 도과수연합회 사아래 많은 과수농장들에서 올해 과일생산계획을 수행하는 집단적혁신을 창조하였음.
 - 광산, 철산, 구성, 신의주, 피현, 운전, 회령, 어랑, 청진, 길주과수농장에서도 경영관리를 개선하고 농업근로자들의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불러일으켜 과일생산계획을 수행함.

- 과수업 발전의 튼튼한 토대 마련 (로동신문 12.9)
 - 김정일은 “우리는 나라의 과수업발전에 계속 깊은 관심을 돌려 후대들에게 보다 살기 좋은 사회주의 무릉도원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함.
 - 선군 11경으로 명성이 높은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이 나라의 으뜸가는 대규모 과일생산기지로 전변, 고산과수농장 현대화공사를 힘 있게 추진하였으며, 각지의 과수농장들에 수천정보의 과수원에 우량품종의 과일나무심기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음.
 - 굳은 의지를 가진 군인건설자들은 대동강과수종합농장 확장 공사에서 전례 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수십 km에 달하는 도로 및 물길 건설과 연 4,000여리에 달하는 전호식구덩이파기를 진행하고 수백만 그루의 과일나무 심기를 성공적으로 끝냄.
 - 보람찬 한해를 돌이켜보는 과수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은 다음해 과일생산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킬 열의로 끓고 있음.

□ 농기계

- 대용연료로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여 (로동신문 12.10)
 - 김정일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절약투쟁을 힘 있게 벌여야 한다”고 말함.
 - 각지 농촌들에서 대용연료를 이용하여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고 있음. 종합된자료에 따르면 최근 연간 대용연료를 이용하여 가동하는 자동차와 농기계대수가 늘어났음.
 - 북부지대 농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대용연료를 이요하기 위한 운동에 앞장 서서 함경북도, 자강도, 령강도안의 농촌들에서는 거의 모든 자동차들을 대용연료로 가동시키고 있으며 영농작업의 많은 몫을 대용연료를 이용하는 트랙터로 하고 있음.
 - 대용연료를 이용하는 자동차, 농기계들이 늘어난 결과 농촌에서는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이 높아져 영농작업들을 제때에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름을 많이 절약함으로써 나라살림살이에 적지 않은 보탬을 주었음.

□ 비료

- 물거름생산기지를 꾸려놓은 보람(로동신문 12.19)
 - 김정일은 “이제 화학비료만 가지고 농사지를 생각을 하지 말아야하며 결정적으로 여러 가지 유기질비료와 미생물비료, 고려약비료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말함
 - 농장에서는 물거름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여 영농작업에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알곡생산을 늘리고 있으며, 이른봄에는 물거름탱크에 보약단지재료를 채워 두었다가 강냉이 영양단지를 찍고 농사철이 시작되면 앞그루작물의 밑비료로 이용하였음.
 - 경영위원회에서는 작업반에서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고 비육분조에 물거름 생산기지를 꾸려놓으니 고리형 순화체계가 확립되어 돼지마리수가 늘어남으로써 고기 생산계획을 초과 수행하면서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이용할 수 있었음.

- 군안의 농장들에서는 많은 물거름을 생산하여 다음해 앞그루감자농사를 잘할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가고 있음.

- 수백만 톤의 유기질비료를 더 생산 (로동신문 12.28)
 - 김정일은 “농사를 잘 지어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야 인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사업이 잘 꺾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함.
 - 서해벌방농촌에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수백만 톤의 유기질비료를 더 생산하였으며 한마음으로 분발한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그 기세로 거름생산과 실어내기, 모판자재준비, 농기계수리, 물길가시기 등 당면한 농사차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벌써 흙보산 비료원료를 100% 마련하여 놓고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에서 연일 성과를 거두고 있음. 태천군은 홍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다음해 농업생산에서 높은 목표를 세우고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에 힘쓰고 있음.
 -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수백 만 톤의 유기질 비료를 더 생산해 기세가 높아진 서해벌방농촌들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다음해의 생산계획을 착실히 세워 더욱 분발을 다짐하고 있음.

국내매체 보도 동향

1. 경제일반

□ IFRC "북 수해복구 마무리 단계"

- 북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수해 복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국제적십자사(IFRC)가 밝혔음(RFA).
 - 국제적십자사는 "북한 정부와 조선적십자사는 재난 대비 사업과 식수위생 교육을 위해 6,400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고 연수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해 복구 작업을 통해 6천 가구에 긴급 구호품을 지원했으며, 식수정화시설을 통해 14만 8,000명의 주민에 혜택을 줬다"고 밝혔음.
 - 국제적십자사는 "전반적으로 올해 홍수피해 규모는 지난해에 비교해 현저히 작다"면서 "홍수 발생 이전에 국제적십자사가 마련한 재난 대비책은 홍수 발생 시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와 조기 경보 장치의 활용면에서 효과를 입증했다"고 평가했음.
- 국제적십자사는 지난8월 북한의 홍수로 피해가 늘어나자 재난 긴급 구호 기금에서 북한의 수재민 1만6,000명을 대상으로 약 37만 달러를 배정했음.

노컷뉴스, IFRC "북 수해복구 마무리 단계" , 2010.10.16

□ 북한, 상반기 네덜란드 교역에서 8,440만 달러 흑자

- 북한의 네덜란드에 대한 수출과 흑자 규모가 크게 늘어나 올 상반기에 8,4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96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전했다.
- 올 상반기 네덜란드에 대한 북한의 수출이 총 8,54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

간보다 3배 이상 늘었고 수입은 100만 달러에 그쳐, 8,44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음.

- 특히 북한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7,450만 달러 어치를 수출해, 전체 수출의 88%를 차지했음. 북한은 적은 규모지만 원유를 수입, 정제해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YTN뉴스, "북, 상반기 네덜란드 교역에서 8,440만 달러 흑자" , 2010.11.18

□ 북한 화폐개혁 후 4,000% 인플레이, 절상 효과 없음

- 북한 평양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쌀값은 kg당 900원정도로 화폐개혁 직전인 2009년 하순 (kg당 2천200원→신권 22원)에 비해 3,990% 상승함(데일리NK).
- 4,000%라는 살인적인 인플레이로 인해 신권 100원의 가치는 현재 구권 250원에 불과하며 돈의 가치를 100배로 절상한 화폐개혁 효과가 불과 1년 새 거의 사라져, 신·구권의 구매력 차이도 '10 대 25'로 좁혀짐.
- 평양 쌀값은 올해 1월 중순 주요 종합시장 폐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3월 초 kg당 1,300원대로 뛰었다가 점차 시장기능이 되살아나면서 5월 초 400원대까지 떨어졌지만 그 후 환율 상승과 폭우피해로 8월에는 다시 1천 원 선을 넘어섬.

데일리NK, "北화폐개혁 후 4,000% 인플레이...절상 효과 '물거품'" 2010. 11. 30.

□ 1~8월 북중교역 26.7%증가, 북한 곡물수입 감소

- 북한은 작년 동기보다 20.6% 많은 미화 6억 5천만 달러어치를 수출하고, 30% 많은 13억 4천 5백만 달러어치를 수입해, 전체 교역액(19억 9천5백만 달러)이 26.7% 늘어남(12월 1일 코트라).
- 2009년 1~8월 대 중국 교역에서 북한은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석탄을 가장 많이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 심각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곡물 수입량은 작년 동기보다 7.5% 감소했고, 비료 수입량은 162%나 증가함.

- 이 기간 곡물 수입액은 3천 4백만 달러로 5% 늘었지만, 실제 수입량은 국제곡물가 상승의 여파로 7.5% 줄어 10만 2천 톤이었음. 세부적으로 쌀 수입액(1천 660만 달러)은 8.4% 증가한 데 반해 중량은 6%(3만 8천 4백 톤) 줄었고, 옥수수 수입액(1천 6백 30만 달러)은 1% 감소한 데 비해 중량은 10%(6만 2천 톤)나 감소했음. 보리 수입액은 35만 3천 달러로 작년보다 190%, 수입량은 1천 11톤으로 189% 늘어남.
- 북한의 대 중국 수출은 대부분 광업, 어업 등 1차 산업 생산물로 채워졌다. 1위인 석탄(1억 9천 1백만 달러)은 금액과 중량 면에서 각각 21%, 31% 감소했지만 2위 철광석(1억 1천 1백만 달러)의 경우 금액은 134%, 수입량은 34% 늘어남. 수출 3~5위는 의류 및 부속품(8천 1백만 달러), 철강(6천 4백만 달러), 오징어 등 연체동물(3천 2백만 달러) 순으로 나타남.

연합뉴스, "1~8월 北中교역 26.7% 증가 北곡물수입 감소" 2010. 12. 1.

□ 2010년 1~11월중 개성공단교역 대폭 증가, 일반·위탁가공교역 대폭 감소

- 2010년 1~11월중 개성공단 관련 교역은 13억 2,226만 달러로, 전년 동기(8억 1,206만 달러) 대비 62.8% 증가하였음. 개성공단 교역 증가에 따라 금년 1~11월중 남북교역액은 17억 8,168만 달러를 기록, 2009년 교역총액(16억 7,908만 달러)을 넘어섰음.
- 한편,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에 따라 2010.1~11월중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일반교역(주로 농림수산물·광산물 반입)은 2010.1~11월중 1억 1,774만 달러로 전년 동기(2억 2,477만 달러) 대비 47.6% 감소하였음. 위탁가공교역(주로 의류)은 2010.1~11월중 3억 801만 달러로 전년 동기(3억 7,407만 달러) 대비 17.7% 감소하였음.
- 개성공단 교역 증가 및 일반·위탁가공교역 감소에 따라 전체 남북교역에서의 비중도 큰 폭으로 변화함. 개성공단 교역 비중이 2009년 55.5% → 2010년 74.2%로 증가한 반면, 일반교역 비중은 2009년 15.4% → 2010년 6.6%로, 위탁가공교역 비중은 2009년 25.6% → 2010년 17.3%로 감소함.

통일부 보도자료, "2010년 1~11월중 개성공단교역 대폭 증가, 일반·위탁가공교역 대폭 감소" 2010. 12. 13.

북한, 리경식 농업상 재임용

- 북한의 김창식 농업상이 물러나고 리경식 농업상이 재임용된 것으로 확인.
- '리경식 농업상'을 필자로 한 글이 등장. 리 농업상은 이 글에서 올해 작물 생산량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밝힘(교도통신)
- 리 농업상은 북한 농업과학원 부원장을 지냈으며 2003~08년에도 농업상의 직책을 맡은 바 있음.

연합뉴스, "北, 리경식 농업상 재임용" 2011. 1. 4.

중국, 북한 나선 경제무역지대에 20억 달러 투자

- 중국 국유기업이 북한 나선 경제무역지대(특구)에 20억 달러(약 2조 2300억원)를 투자하기로 북한과 합의한 사실이 확인됨(중앙일보).
- 지금까지 공개된 중국 측의 대북 투자 가운데 최대 규모로 중국 베이징의 국유기업인 상지관군투자유한공사(商地冠群投資有限公司)는 2010년 12월 20일 베이징에서 북한 조선투자개발연합체와 10개 항의 투자 의향서를 체결함.

중앙일보, "中, 북한 나선 경제무역지대에 20억 달러 투자" 2011. 1. 7.

2. 식량 사정

북한,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쌀·비료 지원 요구

- 북측은 회담에서 쌀 50만 톤과 비료 30만 톤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전체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을 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우

리 측은 이런 대규모 지원은 적십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당국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설명함.

- 북측 대표단은 우리 측이 어제 제기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비롯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쌀, 비료를 제공하면 풀어갈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산가족 문제와 인도적 지원 문제를 연계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함.

연합뉴스, "北, 쌀 50만 톤·비료 30만 톤 지원 요구" 2010. 10. 27.

□ 북한 2011년 식량 54만 톤 부족

- 지난 9월21일부터 10월2일까지 북한의 올해 곡물 작황을 조사한 WFP와 FAO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내년 초까지 생산 가능한 곡물은 448만 톤으로, 실제 필요량(535만 톤)보다 87만 톤이 부족한 양이다. 북한 당국이 외부로부터 33만 톤을 수입할 예정임을 감안해도 54만 톤이 부족한 상황임(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의 발표).
- 어린이와 임신부, 산모, 노약자 등 취약계층 500만 명을 위해 식량 30만 5000톤이 시급히 지원돼야 한다고 전함.

자유아시아방송, "北, 내년에도 식량 54만 톤 부족" 2010. 11. 17.

□ 북한, 식량난으로 군량미 부족분 다시 거둬

- 북한 노동당이 2009년 10월 말 농민들을 대상으로 '군량미'(군용식량) 부족분을 충당하는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이같은 조치를 번복한 것으로 전해짐(좋은벗들).
- 12월에도 식량이 좀처럼 풀리지 않자 인민군대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부족한 군량미를 추가로 거두는 지역 군부대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중앙당에서도 군량미를 최우선 보장하라는 지시문을 각 지방당에 내려보냈다고 말함.
- 강원도와 황해남·북도에 주둔한 부대의 경우 군인 1명당 하루 500g도 지급하지 못하고, 그 내용도 약간의 쌀을 섞은 옥수수밥에 소금배춧국이 전부라서

영양실조자가 많다고 말함.

- 평양시 국영상점과 수매상점의 경우 다른 물건은 많지만 식량만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11월에 한 달 전량이 아닌 보름 분량만 우선 공급됐고, 이달 들어서도 지난달에 밀린 보름 분량만 공급된 상태라고 전함.

좋은벗들, "북한, 식량난으로 군량미 부족분 다시 거둬" 2010. 12. 29.

□ 북한 식량난 아시아 최악, 도입식량 확보율 7.2%

- FAO의 '작황전망 및 식량상황' 보고서는 2011년 11월까지 북한은 외부에서 약 80만 톤의 식량을 들여와야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면서 하지만 작년 말 현재 북한이 (연간 수확량 외에) 추가로 확보한 물량은, 유엔이 지원을 약속한 6만 2천 톤이 전부라고 말함.
- 3개월 단위로 발표되는 FAO '작황보고서'에는 외부 식량지원이 절실한 나라들의 명단이 포함돼 있는데, 북한은 이 명단에 최장기간 연속해서 올랐다고 밝혔(RFA).
- FAO의 키산 군장 분석관은 "영양실조가 심각한 주민 500만 명에게 긴급히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고 북한 당국에 권고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고 RFA에 말함.

연합뉴스, "北식량난 아시아 최악..식량확보율 7.2% 그쳐" 2011. 1. 4.

□ 북한, 작년 중국서 사상 최대규모 쌀 수입

-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8만 3,945 톤의 쌀을 수입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중국 상무부 보고서를 인용해 밝혔음.
- 이는 전년보다 5,000톤, 종전에 가장 많았던 2007년(8만 1,000톤)보다는 3,000톤 정도 많은 것으로, 수입액에서도 사상 최고인 미화 3,544만 달러를 기록했음.
- 북한이 가장 많이 수입했던 옥수수의 경우 작년 수입량이 전년보다 1만 5,000톤 적은 8만 7,631톤으로 감소했지만 수입액은 2,350만 달러로 전년(2,430만 달러)과 비슷했음.

- 북한의 주요 수입 품목은 쌀, 옥수수, 식용유, 설탕, 목화, 버섯 등이었는데, 수입액에서는 식용유가 3천 585만 1천 달러로 가장 많고 다음은 쌀, 옥수수 순이었음. 수출품 중에는 오징어 등 연체동물류와 냉동어류가 3분의 2를 차지했음.
- 조선일보, "北, 작년 중국서 사상 최대 규모 쌀 수입" 2011. 1. 25.

3. 가격 추이

□ 북한도 배춧값 폭등, 김장 앞두고 주민들 고통

- 우리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배추와 무 등 채소 가격이 급등, '반철 농량'이라고 불리는 배추와 무를 장만하기 위한 김장을 앞둔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도함(자유아시아방송).
- 김장용 채소가 턱없이 모자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으며 함경북도 무산군 창열 노동자구에서는 배추 1kg에 150원, 무 1kg에 100원까지 가격이 올랐다고 말함. 또 채소 가격뿐만 아니라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의 가격도 함께 올라 북한 주민들의 근심은 더욱 커지고 있음.
- 이 같은 채소 가격 폭등은 폭우와 태풍 등 이상기후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북한 지역에도 홍수로 밭이 침수되는 피해가 많이 발생해 채소 수급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북한도 배춧값 폭등 김장 앞두고 주민들 울상" 2010. 11. 3.

□ 북한, 연평 포격 이후 쌀값 · 환율 급등

-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북한 장마당의 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8일(현지시각) 보도함.
- 함경북도의 경우 연평도 포격 사건 직후 900원대였던 쌀 1kg이 열흘만에 1,300~1,400원대로 뛰었고, 중국 돈 1위안에 210원하던 환율도 270~290원으로

급등.

- 보통 추수가 끝난 뒤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드는데 물가가 급등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연평도 사건 이후 긴장 국면이 지속되면서 쌀값과 환율이 크게 오르는 것으로 보임.
- 여름철 수해로 생산량이 급감한 무와 배추의 가격이 올라 김장하기도 어려운 형편인 것으로 전해짐. 북한 노동자 평균 월급이 3,000원인데 4인 가족기준으로 김장 비용이 10만원에 육박해 일반 주민들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라고 전함.

NK조선, "北, 연평 포격 이후 쌀값-환율 급등" 2010. 12. 9.

미국의 소리방송, "북한 포격후 물가 급등" 2010. 12. 9.

□ 북한, 정초부터 장마당 통제로 쌀값 변동

- 북한의 연초 '거름생산 전투'가 시작되면서 장마당 개장 시간이 대폭 줄어들자 쌀값 등 생필품 가격이 들쭉이고 있음(자유아시아방송).
-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거름생산을 위한 '새해 첫 전투'가 시작되면서 장마당이 오후 4~8시 4시간만 열리자 kg당 1,400원 하던 중국산 쌀값이 며칠 사이 1,600원으로 뛰었다면서 이처럼 쌀값이 오르는 것은 식량 부족보다 장마당 통제와 더 연관돼 있다고 말함.
- 2011년에도 북한에서는 1월 3일부터 2월 15일까지 '새해 첫 전투' 기간이 정해져 공장, 기업소 노동자들과 인민반 주민들은 물론 만13세 이상 학생까지 거름생산에 동원되고 있는데, 매일 어른은 50kg, 학생은 20~30kg을 인근 협동농장에 갖다 주고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RFA는 설명함.

자유아시아방송, "北, 정초부터 장마당 통제로 쌀값 들쭉" 2011. 1. 6.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4

농업교류협력 동향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대북지원 동향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정책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10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10년 10월 중 남북교역액은 16,560만 달러로 전년 동월 17,262만 달러에 비해 4.1% 감소(전월 14,493만 달러 대비 14.3% 증가)
- 반입은 9,590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10,066만 달러에 비해 4.7% 감소(전월 8,638만 달러 대비 11.0%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56.7%, 전자전기제품 22.7%, 농림수산물 4.0%, 생활용품 5.4%, 기계류 4.9% 등임.
- 반출은 6,970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7,196만 달러에 비해 3.1% 감소(전월 5,855만 달러 대비 19.1%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2.5%, 전자전기제품 27.9%, 농림수산물 11.1%, 기계류 6.4%, 화학공업제품 9.5% 등임.

□ 10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10년 10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380만 달러로 전월 515만 달러 대비 26.2% 감소하고 10월 전체 반입액 9,590만 달러의 3.9%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169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8%), 어패류 등 수산물이 211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2.2%)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10년 10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777만 달러로 전월 273만 달러 대비 184.6% 증가하고 10월 전체 반출액 6,970만 달러의 11.1%를 차지했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밀가루 등 농산물이 736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10.6%), 분유 등 축산물이 22.9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3%), 합판 등 임산물이 5.6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8%), 어패류 등 수산물이 12.9달러(전체 반출액의 0.2%)를 차지했음.

□ 11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10년 11월 중 남북교역액은 15,148만 달러로 전년 동월 18,653만 달러에 비해 18.8% 감소(전월 16,560만 달러 대비 8.5% 감소)
- 반입은 8,033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9,406만 달러에 비해 14.6% 감소(전월 9,590만 달러 대비 16.2%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57.0%, 전자전기제품 21.3%, 생활용품 7.0%, 기계류 5.2%, 화학공업제품 3.7% 등임.
- 반출은 7,115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9,247만 달러에 비해 23.1% 감소(전월 6,970만 달러 대비 2.1%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45.6%, 전자전기제품 20.7%, 화학공업제품 9.5%, 기계류 8.3%, 농림수산물 5.0% 등임.

□ 11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10년 11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283.6만 달러로 전월 380만 달러 대비 25.4% 감소하고 11월 전체 반입액 8,033만 달러의 3.5%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201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2.5%), 어패류 등 수산물이 82.6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0%)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10년 11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352.4만 달러로 전월 777만 달러 대비 54.6% 감소하고 11월 전체 반출액 7,115만 달러의 5.0%를 차지했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밀가루 등 농산물이 318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4.5%), 분유 등 축산물이 19.5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3%), 합판 등 임산물이 2.8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4%), 어패류 등 수산물이 12.6달러(전체 반출액의 0.2%)를 차지했음.

□ 12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10년 12월 중 남북교역액은 13,057만 달러로 전년 동월 21,708만 달러에 비해 39.9% 감소(전월 15,148만 달러 대비 13.8% 감소)
- 반입은 7,432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9,659만 달러에 비해 23.1% 감소(전월 8,033만 달러 대비 7.5%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56.1%, 전자전기제품 20.5%, 생활용품 8.2%, 기계류 6.4%, 화학공업제품 4.9% 등임.
- 반출은 5,625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12,049만 달러에 비해 53.3% 감소(전월 7,115만 달러 대비 20.9%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전자전기제품 25.9%, 섬유류 38.9%, 화학공업제품 9.4%, 기계류 7.8%, 생활용품 6.0% 등임.

□ 12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10년 12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80.1만 달러로 전월 283.6만 달러 대비 71.8% 감소하고 12월 전체 반입액 7,432만 달러의 1.1%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39.7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5%), 어패류 등 수산물이 40.4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5%)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10년 12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148.5만 달러로 전월 352.4만 달러 대비 57.9% 감소하고 12월 전체 반출액 5,625만 달러의 2.6%를 차지했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밀가루 등 농산물이 129.4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2.3%), 분유 등 축산물이 0.5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2%), 합판 등 임산물이 0.5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08%), 합판 등 임산물이 3.5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6%), 어패류 등 수산물이 15.0달러(전체 반출액의 0.3%)를 차지했음.

표 1. 2010년 10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540,607	1,692	1.8	농산물	7,591,846	7,355	10.6
참깨	40,900	72		쌀	5,357,434	3,271	
들깨	10,540	17		감자	40	0	
마늘	180,340	590		밀가루	753,866	303	
기타채소	78,552	18		참깨	42,970	47	
고사리	5,980	27		들깨	27,000	25	
송이버섯	40,028	661		사과	66	0	
밤	42,200	177		감	19	0	
은행	800	3		오렌지	38	0	
기타견과류	120,000	67		포도	78	0	
참기름	1,165	3		무	131	0	
들기름	3,073	3		양파	2	0	
기타식물성유지	4,008	17		파	9,328	41	
기타유지가공품	11,071	18		마늘	302,187	762	
제조담배	1,950	18		기타채소	3,480	21	
				밤	73,600	110	
				은행	4,800	10	
				기타산식물	1,080	11	
				대두유	17,265	20	
				토마토케첩	20	0	
				기타소스류	3,360	8	
				기타식물성재료	15	0	
				커피조제품	1,835	8	
				초코렛	68	3	
				녹차	81	1	
				홍차	301	1	
				제조담배	2,265	90	
				소주	3,200	7	
				맥주	4,711	7	
				위스키	307	26	
				기타주류	12	0	
				원당	20,000	15	
				정당	266	1	
				기타당류	150	0	
				물	9,247	6	
				음료베이스	600	1	
				기타음료	380,180	226	
				비스킷	205	1	
				곡류가공품	94,286	232	
				빵	79,948	311	
				면류	230,587	1,382	
				기타농산가공품	163,818	338	
				견	1,500	63	
				면	1,500	6	

(앞면에서 계속)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축산물	-	-	-	축산물	41,623	229	0.3
				닭고기	1,225	3	
				소시지	830	2	
				로얄제리	81	0	
				분유	11,555	131	
				기타낙농품	26,542	90	
				난류	1,365	3	
				단백질류	25	0	
임산물	0	0	-	임산물	18,018	56	0.1
				합판	4,242	9	
				섬유판	8,500	5	
				건축용목제품	250	1	
				목재틀	10	0	
				기타목재류	584	1	
				수목류	4,410	39	
				종자류	22	0	
수산물	2,935,137	2,106	2.2	수산물	9,413	129	0.2
새우	21,750	21		명태	215	0	
기타게	4,368	2		김	40	0	
기타조개	1,913,579	1,168		툰	9,150	128	
기타연체동물	703,476	494		미역	7	0	
미역	219,040	207		어류통조림	1	0	
기타수산가공품	62,994	152					
기타수산물	9,930	62					
합 계	3,475,744	3,798	4.0	합 계	7,660,900	7,769	11.1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232호(2010.10.1~10.31).

표 2. 2010년 11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613,846	2,010	2.5	농산물	1,467,879	3,175	4.9
참깨	26,956	48		쌀	63,738	100	
들깨	15,144	25		밀가루	121,851	40	
마늘	468,120	1,524		참깨	49,125	52	
고추	3,180	3		들깨	53,195	50	
기타채소	12,420	23		사과	38	0	
고사리	27,040	194		감	19	0	
밤	42,300	151		바나나	1,024	1	
은행	1,800	8		오렌지	57	0	
참기름	3,337	7		무	135	0	
들기름	3,797	4		마늘	485,815	1,225	
기타유지가공품	3,502	7		고추	3,318	3	
박류	4,800	0		기타채소	1,949	9	
제조담배	1,450	13		기타화초	305	1	
				밤	64,800	97	
				기타산식물	4,590	10	
				대두유	10,368	9	
				들기름	126	0	
				기타식물성유지	2,916	3	
				고추장	30	0	
				기타소스류	3,084	7	
				커피조제품	1,008	3	
				녹차	146	0	
				홍차	880	2	
				제조담배	2,880	115	
				인삼류	19	0	
				소주	4,390	6	
				맥주	2,646	3	
				기타주류	62	1	
				정당	365	0	
				물	2,397	2	
				기타음료	59	0	
				비스킷	150	0	
				곡류가공품	94,555	231	
				빵	119,880	424	
				면류	169,713	314	
				기타농산가공품	184,828	345	
				견	1,818	84	
				모	1,200	7	

(앞면에서 계속)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임산물	-	-	-	축산물	41,860	195	0.3
				돼지고기	763	2	
				닭고기	506	2	
				기타동물성유지	2	0	
				소시지	498	2	
				꿀	50	0	
				로얄제리	191	1	
				분유	25,600	156	
				기타낙농품	12,635	28	
				난류	1,615	4	
임산물	0	0	-	임산물	22,405	28	0.03
				합판	3,198	4	
				섬유판	15,718	12	
				건축용목제품	767	2	
				기타목재생활용품	1	0	
				기타목재류	463	1	
				수목류	2,258	8	
				종자류	0	0	
수산물	684,986	826	1.0	수산물	130,202	126	0.2
기타어류	24,030	24		툰	5,450	76	
새우	24,950	23		미역	124,752	50	
기타계	192	0					
문어	14,687	32					
기타조개	275,500	177					
기타연체동물	91,226	70					
툰	10,225	180					
미역	184,350	172					
기타수산가공품	59,079	139					
기타수산물	747	8					
합 계	1,298,832	2,836	3.5	합 계	1,662,346	3,524	5.0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2331호(2010.11.1~11.30).

표 3. 2010년 12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66,723	397	0.5	농산물	556,998	1,294	2.3
참깨	39,840	71		쌀	2,018	3	
들깨	19,910	33		밀가루	2,393	1	
마늘	8,230	27		참깨	62,460	64	
고추	1,680	3		들깨	33,275	30	
고사리	4,462	29		사과	166	0	
밤	45,600	146		오렌지	19	0	
은행	3,600	12		감귤	1,165	2	
참기름	5,806	10		배추	4,767	5	
들기름	6,801	7		고추	3,160	3	
기타식물성유지	1,002	4		기타채소	680	2	
기타유지가공품	18,392	33		밤	45,600	68	
박류	8,800	0		은행	2,400	5	
제조담배	2,600	22		대두유	5,877	5	
				참기름	82	0	
				들기름	126	0	
				기타소스류	2,153	6	
				커피조제품	2,783	6	
				녹차	17	0	
				홍차	666	2	
				제조담배	195	8	
				소주	3,840	4	
				맥주	2,556	3	
				기타주류	22	0	
				정당	164	0	
				기타당류	5	0	
				물	657	1	
				기타음료	123	0	
				사탕	2	0	
				비스킷	246	1	
				곡류가공품	82,284	202	
				빵	121,416	420	
				면류	44,496	102	
				견	2,730	119	
				면	50	0	

(앞면에서 계속)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축산물	-	-	-	축산물	1,554	5	0.0
				소시지	106	1	
				기타낙농품	1,273	4	
				단백질류	175	0	
임산물	345	0	-	임산물	41,714	35	0.1
기타목재류	345	0		합판	28,458	4	
				단판	300	0	
				섬유판	6,300	4	
				건축용목제품	312	0	
				기타목재생활용품	8	0	
				기타목재류	6,336	27	
수산물	261,519	404	0.5	수산물	171,552	150	0.3
툰	10,355	178		툰	6,000	84	
미역	224,655	166		미역	165,552	66	
기타수산물가공품	26,509	61					
합 계	428,587	801	1.1	합 계	771,818	1,485	2.6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234호(2010.12.1~12.31).

□ 남북한 교역 통계

표 4.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실적

단위: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건수	품목수	금액(A)	건수	품목수	금액(B)		
1992	510	69	162,863	62	25	10,563	173,426	△152,300
1993	601	69	178,167	97	37	8,425	186,592	△169,742
1994	708	80	176,298	267	87	18,249	194,547	△158,049
1995	976	109	222,855	1,668	167	64,436	287,291	△158,419
1996	1,475	130	182,400	1,908	167	69,639	252,039	△112,761
1997	1,806	143	193,069	2,185	284	115,270	308,339	△77,799
1998	1,963	136	92,264	2,847	379	129,679	221,943	37,415
1999	3,089	172	121,604	3,421	405	211,832	333,437	90,228
2000	3,952	204	152,373	3,442	527	272,775	425,148	120,402
2001	4,720	201	176,170	3,034	492	226,787	402,957	50,617
2002	5,023	204	271,575	3,773	495	370,155	641,730	98,580
2003	6,356	186	289,252	4,853	530	434,965	724,217	145,713
2004	5,940	202	258,039	6,953	575	439,001	697,040	180,962
2005	9,337	381	340,281	11,878	712	715,472	1,055,754	375,191
2006	6,412	421	519,539	17,039	697	830,200	1,349,739	310,661
2007	5,027	450	765,346	26,731	802	1,032,550	1,797,896	267,204
2008	31,243	482	932,250	36,202	813	888,117	1,820,366	△44,133
2009	37,307	486	934,251	41,293	771	744,830	1,679,081	△189,421
소 계	156,890	773	6,105,251	167,608	1,077	6,589,748	12,694,999	6,589,748
2010.1	3,252	219	89,469	3,893	415	79,911	169,380	79,911
2010.2	3,094	217	76,351	3,703	458	77,144	153,495	77,144
2010.3	4,085	229	119,672	4,585	473	82,325	201,997	82,325
2010.4	3,920	258	104,231	4,027	468	85,750	189,981	△18,481
2010.5	3,781	261	97,172	3,864	467	59,354	156,706	△37,818
2010.6	3,105	235	65,887	3,687	425	56,865	122,752	△9,022
2010.7	3,016	206	72,778	3,978	442	89,166	161,954	16,388
2010.8	3,062	202	81,446	3,552	408	82,153	163,599	707
2010.9	2,958	205	86,378	3,074	399	58,547	144,925	△27,831
2010.10	3,658	219	95,898	3,651	446	69,701	165,599	△26,197
2010.11	3,084	221	80,329	3,209	450	71,153	151,482	△9,176
2010.12	2,785	190	74,318	3,179	394	56,252	130,570	△18,066
소 계	39,800	448	1,043,928	44,402	740	868,321	1,912,249	△175,607
총 계	196,690	794	7,149,178	212,010	1,086	7,458,069	14,607,248	6,414,141

주: 1) 1995년 교역금액은 대북 쌀 지원 237,213천 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234.

그림 1. 연도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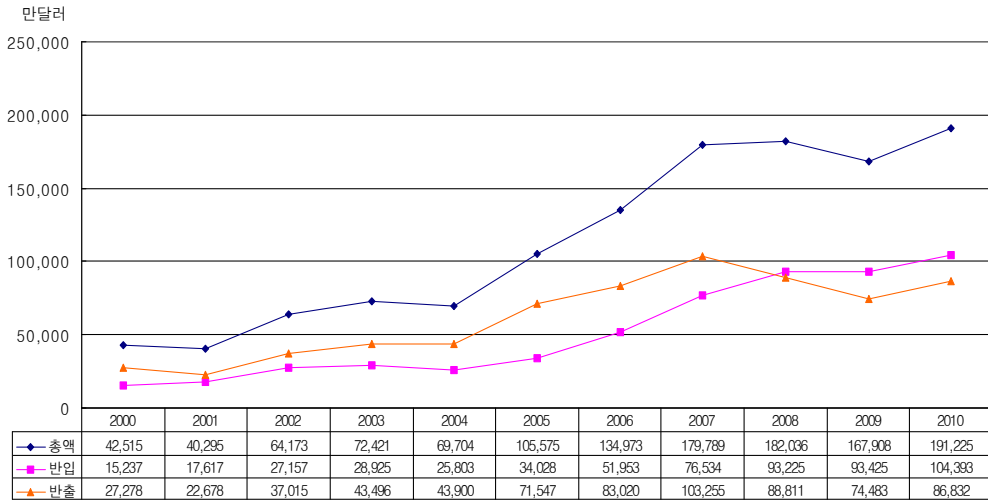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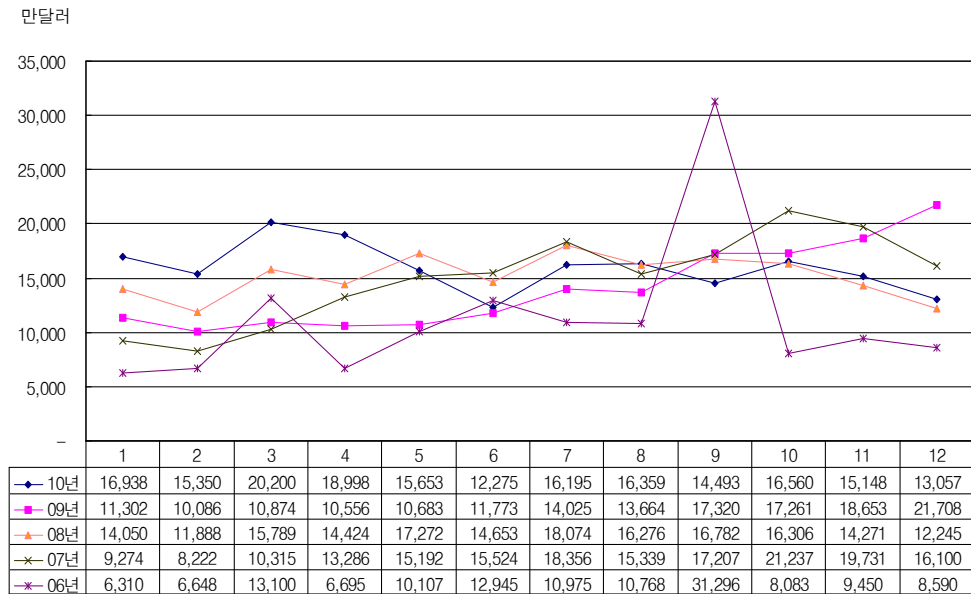


표 5.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단위 : 천 달러

연 도	반입					반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B)		
1992	9,546	-	2,277	5,083	16,906	64	-	-	-	64	16,970	△16,842
1993	6,916	-	4,221	879	12,016	63	-	-	6	69	12,085	△11,947
1994	5,315	-	7,212	2,723	15,250	3,220	-	-	97	3,317	18,567	△11,933
1995	13,506	-	6,003	2,810	22,319	8,879	-	273	154	9,306	31,625	△13,013
1996	11,853	-	2,014	9,588	23,455	6,044	-	57	613	6,714	30,169	△16,741
1997	7,871	-	4,902	14,553	27,326	16,525	-	116	383	17,024	44,350	△10,302
1998	7,895	-	3,526	13,377	24,798	18,732	-	510	398	19,640	44,438	△5,158
1999	15,057	-	4,484	28,327	47,868	15,682	-	1,796	189	17,667	65,535	△30,201
2000	23,352	-	7,014	41,566	71,932	23,910	-	1,005	464	25,379	97,311	△46,553
2001	38,703	78	5,717	45,316	89,814	26,939	2,157	424	2,977	32,497	122,311	△57,317
2002	28,881	395	95	70,531	99,902	103,080	5,079	1,102	934	110,195	210,097	10,293
2003	36,203	1,474	245	89,714	127,636	112,345	7,425	2,206	3,583	125,559	253,195	△2,077
2004	32,965	443	244	68,209	101,862	60,649	2,411	2,006	2,075	67,141	169,003	△34,721
2005	21,425	664	318	57,430	79,837	73,303	1,638	2,160	821	77,922	157,759	△1,915
2006	37,670	184	437	99,563	137,854	206,702	1,745	4,451	994	213,892	351,746	76,038
2007	58,207	64	406	115,436	174,113	127,906	1,329	4,848	1,297	135,380	309,493	△38,733
2008	70,653	-	183	137,058	207,913	65,516	1,669	6,278	4,685	78,238	286,151	△129,675
2009	49,845	15	283	151,851	201,994	30,127	1,055	1,398	3,144	35,723	237,717	△13,729
소 계	489,535	3,317	51,032	957,633	1,501,537	901,303	24,508	28,630	22,814	977,344	2,478,881	△524,193
2010.1	2,995	-	3	6,531	9,528	2,833	33	83	4	2,953	12,481	△6,575
2010.2	1,632	-	0	8,749	10,381	3,712	68	84	157	4,021	14,402	△6,360
2010.3	3,357	-	30	15,276	18,663	4,086	248	175	503	5,011	23,674	△13,652
2010.4	3,697	-	32	16,170	19,899	4,451	280	237	252	5,221	25,120	△14,678
2010.5	2,936	-	3	9,196	12,135	2,399	68	47	818	3,332	15,467	△8,803
2010.6	646	-	7	2,180	2,833	1,382	66	21	212	1,681	4,514	△1,152
2010.7	641	-	9	697	1,347	1,375	173	14	201	1,762	3,109	415
2010.8	471	-	-	344	816	1,713	40	9	42	1,803	2,619	987
2010.9	4,529	-	28	594	5,150	2,553	109	5	67	2,734	7,884	△2,416
2010.10	1,692	-	0	2,106	3,798	7,355	229	56	129	7,769	11,567	3,971
2010.11	2,010	-	0	826	2,836	3,175	195	28	126	3,524	6,360	688
2010.12	397	-	0	404	801	1,294	5	35	150	1,485	2,286	684
소 계	25,003	-	112	63,073	88,187	36,328	1,514	627	2,661	41,296	129,483	△46,891
총 계	514,538	3,317	51,144	1,020,706	1,589,724	937,631	26,022	29,257	25,475	1,018,640	2,608,364	△571,084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통일부, 남북무역 통계자료(1989-1997), 1998.,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232~234. <http://www.unikorea.go.kr>

그림 3. 연도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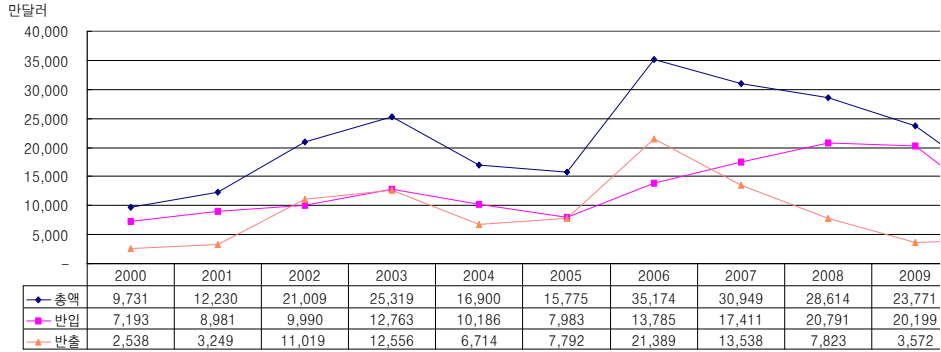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2. 대북지원 동향

대한적십자사, 북한 수해지원 물자 처리 놓고 고심

- 대한적십자사가 대북 수해지원 물자를 회수키로 한 뒤 물자 처리를 두고 고심 중임.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중국 단둥에 대기하고 있던 시멘트와 의약품 등 대북 수해지원 물자를 회수하기로 결정함.
- 한적이 북한 신의주에 전달하기 위해 중국 단둥에 보낸 물자 가운데 쌀 5,000톤과 컵라면 300만 개는 전달이 완료됐으며 문제는 일부 남은 시멘트와 의약품임.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시멘트 1만 톤 중 3,000톤을 연평도 도발 전에 이미 신의주로 전달했음. 단둥항에 보관 중인 시멘트 3,700톤(나머지 3,300톤은 국내에 보관)과 5억 8,00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은 도로 가져와야 하는 상황임.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대한적십자사, 北수해지원 물자 처리 놓고 고심" 2010. 12. 7)

경남 '통일쌀' 50톤 북한 수해지역에 지원

- 인도적 대북 쌀지원 경남운동본부는 18일 오전 북한 개성 수해 주민에게 통일쌀 50 톤을 전달하기 위해 경기도 과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개성으로 들어감.
- 운동본부는 40kg짜리 1,250포대의 쌀을 25톤 트럭 2대에 나눠 싣고 11월 18일 오전 9시 개성으로 향했으며 운동본부 관계자 4명이 동행함.
- 이날 전달된 통일쌀은 경남 도민이 모금한 성금 1억 원으로 마련되었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경남 '통일쌀' 50t 北 수해지역에 지원" 2010. 11. 18)

3.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북측의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 개최 제의와 우리측 통지

(통일부, 2010.11.11, 11.17)

-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11월 11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통일부에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을 제의했음.
- 우리측은 통지문을 통해 “금강산관광 재개 관련 회담은 2월 8일 당국 간 실무 회담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힘.
 - 북측의 일방적인 금강산지구 내 우리측 부동산에 대한 동결·몰수 조치의 부당 성과 동 조치가 당국 간 실무회담 진행에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
 - 당국 간 실무회담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먼저 동결·몰수 조치가 즉각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2011년 통일부 업무계획

(통일부, 2010.12.29)

< 2011년 정책 추진목표와 추진전략 >

- 3대 정책 추진목표
 - 대북 :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
 - 남북 : 바른 남북관계 정립
 - 대내 : 통일에 대비한 준비
- 정책 추진전략
 -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지속 견지
 - 주민 우선 접근
 - 상호주의 강화
 - 국론결집 노력 확대

< 2011년 중점 추진과제 >

- 과제1 : 북한의 근본적 변화 견인
 - '3대 북한 변화 구상' 추진: 비핵평화, 대외개방, 민생우선
 - 북한의 비가역적 비핵과 적극 구현: 그랜드 바겐 로드맵 논의 유도

- 과제2 : 북한 당국의 책임성·진정성 견인
 -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위해 5.24 조치 지속
 -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남북대화 추진
 - 위장평화공세 및 대남 비방증상에 적극 대응

- 과제3 :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 구현
 - 북한 인권 개선 노력 확대: 북한인권법 조속 제정, 인권재단 설립, 인권 실태 조사 실시, 대내외 인권단체 활동 지원
 - 인도적 지원 투명성 강화 추진: 북한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

- 과제4 : 통일대비 준비 노력
 - 통일을 위한 재원확보 구제안 마련: 2011년 상반기 정부안 마련, 입법화 추진
 - 통일준비 공론화 및 인적자원 양성: '5대 공론화 사업' 추진(학계와 시민사회), '대학생 통일이카데미' 개설 지원(통일미래리더 양성)
 - 북한 변화 예측시스템 운용: 북한정보 통합DB 구축, 정례적 평가-예측 체계 개발
 - 한반도 평화통일 국제 지원체계 구축: '코리아 글로벌 포럼' 활성화, 주변국과 '한반도 미래대화' 추진, '한독 통일원로자문위원회' 구성

- 과제5 : 남북교류협력 체계의 전면적 개편
 - 공정하고 투명한 남북교역체계 구축: '교역업체 등록제' 실시(과당경쟁 및 위장반입 방지), '대금결제업무 취급기관' 지정(금융거래 투명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교역체계 정비)

- 신변안전 우선의 개성공단 운영: 출입 및 체류 합의 보완 추진, 상시 통행 등 3통 개선

- 과제6 : 인도적 문제 해결 적극 노력
 - 목표 : 상호 협력적 인도주의 구현
 - 과제 : 이산가족 상복 정례화,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교환 등 실현 추구, 국군 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 과제7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 추진
 - 일자리를 통한 안정적 정착: '일자리 2천개 사업' 지속, '재취업 상담센터' 운영,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운영 확대
 - '희망가게 프로젝트' 추진: 소자본 창업을 위한 미소금융 확대, 창업교육, 컨설팅
 - '상시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전국 연계망 가동, 자원봉사통합네트워크 구축
 - 탈북청소년 균등 교육기회 부여: '하나원 예비학교' 설립과 대안학교 지원 강화
 - 탈북여성 맞춤형 지원 강화: 의료, 육아, 심리상담,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 '제2 하나원' 건립(화천): 정착 준비교육 강화

- 과제8 : 전방위 국론결집 강화
 - 현장 대화 '국민공감 타운미팅' 개최
 - 인터넷, 케이블 '통일방송' 운영
 - 청소년 '사이버 라이브러리' 개설
 - 입체적 통일여론 모니터링

□ 2011년 대통령 신년 특별연설 중 남북관계분야 주요 내용

(통일부, 2011. 1. 3)

- 안보 관련 내용
 -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은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우리 민족과 세계의 열망에 반한 행동이며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중대한 도전임.
 - 연평도 도발 이전과 이후가 똑같을 수는 없음. 우리의 안보 태세를 다시 성찰

하고 전면 재정비해야 함.

-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어떤 도발도 용납할 수 없으며 확고한 역지력을 갖추어야 함. 이를 위한 국방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임.

○ 평화 및 통일정책 관련 내용

- 이제부터는 튼튼한 안보에 토대를 둔 평화정책과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며, 북한 동포들을 자유와 번영의 장정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북한의 핵 개발은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에 큰 위협임. 국제사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공영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함.
- 북한은 핵과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해야 하며,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함.
-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음.

□ 2011년 1월 북측의 회담 제의와 우리측 논평

(통일부, 2011.1.10, 1.11, 1.12, 1.20, 1.26)

○ 북측의 제의(1.10)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정부·정당·단체연합성명(1.5)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측에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과 적십자회담 개최 등을 제의
-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1월 27일 개성에서 남북 당국 간 회담의 급과 일시, 장소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국장급 실무접촉을 개최할 것을 제의
- 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2월 1일 문산에서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1월 12일부터 관문점 적십자 채널을 다시 개통한다고 함께 통지)
-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북측 소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1월 12일부터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통지

- 통일부 논평과 제안(1.10)
 - 북한 당국은 금강산 피살 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경제지원과 원조를 받기 위한 회담만 제의하고 있음. 이는 국면 전환을 위한 상투적 행위로 판단됨.
 - 남북 간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약속 ②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이 필요하고, 우리는 이를 위한 남북 당국 간 만남을 제안함.
- 북측의 추가 제의(1.12)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1.5)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측에 금강산관광 재개회담 및 개성공업지구 실무회담 개최 등을 제의
 -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명의의 통일부 앞 통지문을 통해 2월 11일 개성에서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
 -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의 통일부 앞 통지문을 통해 2월 9일 개성에서 개성공업지구사업과 관련한 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
 -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북측 소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우리측 인원들이 복귀하지 않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조속히 정상 운영할 것을 촉구
- 통일부 논평(1.12)
 - 1월 10일자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재확인
- 북측의 군사회담 제의(1.20)
 - 인민무력부장 김영춘 명의 우리 김관진 국방부장관 앞 통지문을 통해 우리측이 당국간 회담의제로 상정하는 문제들이 군 당국과 관계되는 군사적 성격의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고위급 군사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
 - 의제는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할 데 대하여”로 할 것을 제의
- 통일부 제의와 논평(1.26)
 -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의제로 하는 남북고위급군사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회담

- 을 2월 11일 개최할 것을 북한에 제의
-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포기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핵문제에 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남북 당국 간 회동 제안을 북한당국이 받아들일 것을 재차 촉구

□ 통일부 ‘2011년 민간 통일운동 활동지원사업 시행 공고’

(통일부, 2011.1.31)

- 통일부는 1월 31일 ‘민간 통일운동 활동지원사업 보조금에 관한 규정’ 제7조 2항에 따라 2011년 민간 통일운동 활동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함.
(신청 접수는 2011년 2월 18일 완료)

〈 공고 주요 내용 〉

- 신청자격
 - 「민법」 제32조에 따라 통일부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사업 유형 : 4개 유형

공모사업 유형(4)	지원사업 분야(예시)
통일준비, 국민합의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통일준비 대안 찾기 • 평화통일을 위한 구체적 실현구상 활동 - 평화·경제·민족 공동체 모델 합의기반 구축 등
평화통일 증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통일을 위한 지역간·계층간 갈등해소 • 평화통일 의식 함양 학술 및 연구 활동 • 평화통일 의식 및 홍보 확산 운동
북한사회 바로 알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인권 개선 활동 • 북한 사회 동향 및 정보 수집 등 지원 • 남북간 사회·문화·경제적 차이 극복 활동 등
통일교육 및 기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대상 민간의 통일 교육 활동 • 평화통일 의지 함양 및 국가안보 의식 제고 등 • 기타 통일문화 체험 연구 활동 등

- 신청
 - 사업계획서 : 사업목적,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독창성, 실현가능성, 지속성, 국민참여도, 파

- 급효과,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자체부담능력 및 자체부담비율, 단체의 전문성·책임성·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포함
 - 활동지원사업 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 사업추진기간
 - 2011년 3월 ~ 2011년 11월 30일
- 선정기준
 - 사업의 독창성·실현가능성·지속성·국민참여도·과급효과,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자체부담능력 및 자체부담비율, 단체의 전문성·책임성·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
 -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국고보조사업을 별도로 지원받는 단체(민족통일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도에 중복 제출한 경우
-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기타 참고 사항
 - 단체별 지원금액은 최고액 5천만원, 최저액 1천만원 범위 이내 예정
 - 심사 배점은 단체역량 분야 30%, 사업내용 분야 50%, 신청예산 분야 20% 예정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표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1995.9~2010.12

구 분	목 표 (만달러)	실 적 ¹⁾ (만달러)	목표 달성율 (%)	국가별 지원액 (만 달러)
1차 '95.9~'96.6	2,032	927	45.6	미국 222.5, 일본 50, EU 38 등
2차 '96.7~'97.3	4,364	3,439	78.8	EU 860, 미국 717, 일본 600, 한국 335 등
3차 '97.4~12	18,439	15,838	85.9	미국 4,537, EU 2,752, 일본 2,700, 한국 2,533 등
4차 '98.1~12	38,324	21,587	56.3	미국 17,185, 한국 1,087, EU 953, 덴마크 357, 캐나다 354, 노르웨이 304, 스웨덴 279, 호주 130 등
5차 '99.1~12	29,208	18,989	65.0	미국 16,070, EU 798, 스웨덴 383, 캐나다 340, 노르웨이 232, 호주 228, 덴마크 195, 핀란드 72 등
6차 '00.1~12	31,376	15,310	48.8	일본 9,566, 미국 2,923, 호주 666, EU 478, 스웨덴 280, 노르웨이 229, 캐나다 171, 덴마크 151, 핀란드 113 등
7차 '01.1~12	38,398	24,797	63.5	일본 10,489, 미국 10,270, 한국 1,579, 이탈리아 708, 독일 291, 호주 289, 스웨덴 244, 스위스 222, 노르웨이 189 등
8차 '02.1~12	24,684	22,001	89.1	미국 6,349, 한국 1,624, EU 947, 호주 339, 캐나다 245, 스웨덴 228, 영국 171, 노르웨이 144, 독일 135, 덴마크 101 등
9차 '03.1~12	22,937	13,310	58.0	미국 3,152, 한국 1,683, EU 1,602, 러시아 1,000, 이탈리아 652, 캐나다 437, 스웨덴 407, 독일 323, 노르웨이 284 등
10차 '04.1~12	520,880	15,158	72.6	일본 4,660, 한국 2,509, 미국 1,906, EU 1,557, 스웨덴 910, 호주 797, 캐나다 477, 독일 426, 이탈리아 403 등

(뒤에서 계속)

구 분	목 표 (만달러)	실 적 ¹⁾ (만달러)	실적율 (%)	국가별 지원액 (만 달러)
11차 '05.1~12 ²⁾	-	4,523	-	유럽연합 1,322, 독일 777, 스웨덴 549, 이집트 388, 노르웨이 324, 핀란드 291, 네덜란드 132, 캐나다 132, 한국 107 등
12차 '06.1~12	-	1,915	-	한국 728, 스웨덴 498, 노르웨이 2,21, 호주 78, 아일랜드 70, 덴마크 69, 네덜란드 65, 독일 63, 핀란드 59 등
13차 '07.1~12	-	9,966	-	한국 2,437, 유엔긴급지원자금 1,110, 호주 585, 스웨덴 532, 독일 506, 유럽연합 398, 이탈리아 377, 노르웨이 335 등
14차 '08.1~12	-	4,358	-	한국 1,149, 독일 499, 스위스 430, 스웨덴 415, 이탈리아 370, 유엔 긴급지원자금 340, 노르웨이 309, 네덜란드 202 등
15차 '09.1~12	-	4,193	-	중앙긴급구호기금 1,900, 스웨덴 833, 노르웨이 470, 캐나다 330, 호주 261, 이탈리아 123, 한국 109, 스위스 69 등
16차 '10.1~12	-	2,178	-	중앙긴급구호기금 1,344, 스위스 302, 노르웨이 231, 스웨덴 85, 독일 79, 이탈리아 43, 프랑스 40, 룩셈부르크 33
총 계	-	178,489	-	

주: 1)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이 발표하는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자료에 나타난 실적이며 실제 지원된 금액만을 집계한 것임.

2) 2005년부터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통합지원은 폐지되고 개별지원으로 전환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Dec. 31, 2010)

표 2. 2010년도 지원창구별 대북 지원 실적 (2010.1.1~12.31)

지원창구	지원국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FAO	CERF	1,440,000	2010년 봄 및 여름 작물생산 긴급지원 (CERF 10-FAO-011)
	CERF	899,999	2010년 겨울 및 2011년 봄 취약농가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긴급지원 (CERF 10-FAO-042)
		소계 2,339,999	
노르웨이 적십자사	노르웨이	1,528,117	2010년 IFRC 지원호소
독일적십자사	독일	332,896	청정 음용수 공급, 기술지원 및 훈련을 통한 수인성질병 감소(BMZ No.: 2010.1877.9)
스웨덴 적십자사	스웨덴	485,543	기초의약품 지원
Premiere Urgence	프랑스	269,906	토끼농장 취로사업 식량 지원
Triangle	프랑스	134,953	양어장 식량 지원
German Agro Action	독일	0	과일재배 개선을 통한 식량안보 (BMZ No.: 2010.1880.3)
Caritas Germany	독일	458,115	사회적 취약계층 임시지원 (BMZ No.: 2010.1833.2)
양자지원	브라질	200,000	식량안보를 위한 국가지원
UNICEF	CERF	1,229,486	5개도 어린이 질병예방(CERF-10-CEF-014)
	CERF	749,000	5개도 어린이 질병예방(CERF-10-CEF-054)
		소계 1,978,486	
UNPF	CERF	95,979	산모 사망률 경감 지원(CERF 10-FPA-010)
	CERF	50,023	산모 안전 증진(CERF 10-FPA-040)
		소계 146,002	
WFP	CERF	3,994,994	수해 및 물가상승에 의한 취약계층 긴급지원 (CERF 10-WFP-017)
	CERF	3,000,963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10-WFP-069)
	스위스	2,839,299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7F-00972.11)
	스위스	184,963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7F-00972.12.01)
	노르웨이	780,518	식량지원(PRK-10/002)
	룩셈부르크	327,225	여성 및 어린이 영양 지원
	소계 11,127,962		
WHO	이탈리아	433,198	강원도 어린이 생존을 증대를 위한 실험실 보강
	CERF	1,230,075	산모 및 어린이 사망률 경감 지원 (CERF 10-WHO-013)
	CERF	750,000	산모 및 어린이 사망률 경감 지원 (CERF 10-WHO-064)
		소계 2,413,273	
합 계		21,780,252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CERF(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유엔중앙기급구호기금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Dec. 31, 2010)

표 3. 2010년도 분야별 대북 지원 실적 (2010.1.1~12.31)

분 야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농업	CERF	FAO	1,440,000	2010년 봄 및 여름 작물생산 긴급지원(CERF 10-FAO-011)
	CERF	FAO	899,999	2010년 겨울 및 2011년 봄 취약농가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긴급지원(CERF 10-FAO-042)
	독일	GAA	0	과일재배 개선을 통한 식량안보 (BMZ No.: 2010.1880.3)
			소계	2,339,999
식량	스위스	WFP	2,839,299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7F-00972.11)
	스위스	WFP	184,963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7F-00972.12.01)
	프랑스	Premier Urgence Triangle	269,906	토끼농장 취로사업 식량 지원
	프랑스	Triangle	134,953	양어장 식량 지원
	CERF	WFP	3,994,994	수해 및 물가상승에 의한 취약계층 긴급지원(CERF 10-WFP-017)
	CERF	WFP	3,000,963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10-WFP-069)
	노르웨이	WFP	780,518	식량지원(PRK-10/002)
룩셈부르크	WFP	327,225	여성 및 어린이 영양 지원	
브라질	양자지원	200,000	식량안보를 위한 국가지원	
		소계	11,732,821	
보건	CERF	UNICEF	1,229,486	5개도 어린이 질병예방 (CERF-10-CEF-014)
	CERF	WHO	1,230,075	산모 및 어린이 사망률 경감 지원 (CERF 10-WHO-013)
	CERF	UNPF	95,979	산모 사망률 경감 지원 (CERF 10-FPA-010)
	CERF	UNICEF	749,000	5개도 어린이 질병예방(CERF-10-CEF-054)
	CERF	UNPF	50,023	산모 안전 증진(CERF 10-FPA-040)
	CERF	WHO	750,000	산모 및 어린이 사망률 경감 지원 (CERF 10-WHO-064)
	이탈리아	WHO	433,198	강원도 어린이 생존율 증대를 위한 실험실 보강 기초의약품 지원
	스웨덴	스웨덴적십자사	850,543	
		소계	5,388,304	
식수와 위생	독일	독일 적십자사	332,896	청정 음용수 공급, 기술지원 및 훈련을 통한 수인성질병 감소(BMZ No.: 2010.1877.9)
미분류	노르웨이	노르웨이 적십자사	1,528,117	2010년 IFRC 지원호소
미분류	독일	카리타스 독일	458,115	사회적 취약계층 임시지원
합 계			21,780,252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CERF(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유엔중앙기급구호기금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Dec. 31, 2010)

표 4. 2010년도 원조국별 대북 지원 실적 (2010.1.1~12.31)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중앙긴급구호기금 (CERF)	FAO	1,440,000	2010년 봄 및 여름 작물생산 긴급지원(CERF 10-FAO-011)
	WFP	3,994,994	수해 및 물가상승에 의한 취약계층 긴급지원(CERF 10-WFP-017)
	UNICEF	1,229,486	5개도 어린이 질병예방 (CERF-10-CEF-014)
	UNPF	95,979	산모 사망률 경감 지원(CERF 10-FPA-010)
	WHO	1,230,075	산모 및 어린이 사망률 경감 지원 (CERF 10-WHO-013)
	UNPF	50,023	산모 안전 증진(CERF 10-FPA-040)
	WHO	750,000	산모 및 어린이 사망률 경감 지원 (CERF 10-WHO-064)
	WFP	3,000,963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10-WFP-069)
	FAO	899,999	2010년 겨울 및 2011년 봄 취약농가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긴급지원(CERF 10-FAO-042)
	UNICEF	749,000	5개도 어린이 질병예방(CERF-10-CEF-054)
		소계 13,440,519	
프랑스	Premier Urgence Triangle	269,906	토끼농장 취로사업 식량 지원
		134,953	양어장 식량 지원
		소계 404,859	
이탈리아	WHO	433,198	강원도 어린이 생존을 증대를 위한 실험실 보강
노르웨이	노르웨이 적십자사	1,528,117	2010년 IFRC 지원호소
	WFP	780,518	식량지원(PRK-10/002)
		소계 2,308,635	
브라질	브라질	200,000	식량안보를 위한 국가지원
스위스	WFP	2,839,299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7F-00972.11)
	WFP	184,963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7F-00972.12.01)
		소계 3,024,262	
독일	독일적십자사	332,896	청정 음용수 공급, 기술지원 및 훈련을 통한 수인성질병 감소(BMZ No.: 2010.1877.9)
	카리타스 독일 GAA	458,115	사회적 취약계층 임시지원
		0	과일재배 개선을 통한 식량안보 (BMZ No.: 2010.1880.3)
		소계 791,011	
스웨덴	스웨덴 적십자사	850,543	기초의약품 지원
합 계		21,780,252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Dec. 31, 2010)

2.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기구 동향

가. 국제기구

UN, “북 새로운 만성적 식량위기”

- 북한이 일부 지역의 홍수, 가뭄, 국제 사회 지원 중단 등으로 인해 “새로운 만성적 식량위기”로 향하고 있다고 UN에서 밝힘.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최소 350만 명의 북한 여성 및 어린이들의 식량부족으로 인해 인도주의적 어려움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 세계 경제위기가 북한의 식량 불안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음.
- 유엔은 올해 북한의 곡물수확량이 작년보다 20%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는 올해 여름 일부 지역에 심각한 가뭄이 발생하는데다가 8월에는 중국 접경지대의 폭우로 홍수가 겹쳤기 때문임.
- 유엔은 북한의 연간 식량수요 350만 톤 중 110만 톤은 수입 또는 원조에 의존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하지만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유엔 모금액은 원래 계획인 4억 9천 200만 달러의 20%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반기문 사무총장은 “북한이 최근 천안함 사태와 핵문제 등으로 한국과 충돌 양상을 빚고 있지만, 인도적 지원이 정치, 안보적 우려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자료: <http://www.wfp.com> (AFP, UN, "북 새로운 만성적 식량위기", 2010.10.22)

WFP, “수개월 래 北 식량지원 프로그램 중단”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금부족으로 수개월 내 북한지역 아동과 임산부 2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식량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보도했음.
 - WFP 아시아 지역 디렉터인 ‘켄로 오시다리’는 북한 당국이 지원금 사용처 조사에 대한 감시를 엄격히 제한하는 데 대한 반발로 지원국들이 기부를 꺼리면

서 식량지원 프로그램 예산의 80%가량이 모금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 신문은 북한과 서방국 간 대립국면이 심화됨에 따라 WFP가 대북 지원 자금을 모으는 데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전했다. WFP에 따르면, 현재 실행 중인 북한 식량지원프로그램은 2년 동안 총 예산 9600만 달러가 책정됐으나 현재까지 모인 자금은 2000만 달러 선에 그치고 있음.
- ‘오시다리’ 디렉터는 “최대 6개월 더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일 이 기간 내 추가 기부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식량이 떨어져 더는 북한에 갈 이유가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 WFP가 현재까지 추가 자금지원 약속을 받아 낸 국가는 스위스, 브라질, 노르웨이, 유엔 긴급구호기금(CERF) 등임.
-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북한 당국의 이주의 자유 제한과 지원금 사용처 감시 제한 등을 이유로 지원을 거부했음.

자료: <http://www.heraldm.com> (헤럴드경제, WFP, “수개월 래 北 식량지원 프로그램 중단”, 2010.12.13)

□ WFP, 2011년 대북 예산 4천8백만 달러 책정

- 계식량계획(WFP)은 내년에 북한에서 식량 지원사업을 위해 4천 8백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세계식량계획(WFP)은 2011년 대북 지원사업 예산으로 미화 4천 8백만 달러를 책정해 자금이 충분히 확보되면 북한 65개 군의 임산부, 수유모, 어린이 등 취약계층과 식량지원 취로사업에 참가하는 주민 183만 5천 명에게 식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세계식량계획은 내년도 대북 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곡물 6만2천 5백 톤, 콩 5천 톤, 식용유 5천 1백 톤, 설탕을 비롯한 기타 식품 6천 톤 등 총 7만 8천 6백 톤의 식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나나 스카우’ WFP 북한 담당 대변인은 지난 9월 말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으로부터 3백만 달러를 지원받아 6개월 동안 매달 평균 150만 명에게

영양강화식품 만을 분배해 왔으며, 내년 3월까지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 <http://www.nocutnews.com> (노컷뉴스, WFP, 2011년 대북 예산 4천8백만 달러 책정, 2010.12.16)

□ UN, 상반기 긴급구호기금 500만 달러 대북 지원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의 올해 상반기 대북지원 예산이 미화 500만 달러로 책정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9일 전했다.
- 올해 상반기 북한에 지원되는 금액은 작년 동기(800만달러)보다 37.5% 줄어든 것임.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는 지난해 대북 지원금 1천 344만 달러(상반기 800만 달러, 하반기 544만 달러)를 세계식량계획(WFP) 600만 달러, 식량농업기구(FAO) 230만 달러,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구기금(UNFPA) 등에 나눠줬음.

자료: <http://www.voanews.com> (미국의소리방송, UN, 상반기 긴급구호기금 500만 달러 대북 지원, 2011.1.19)

나. 개별국가 및 비정부기구

□ 러시아, 北 식량지원에 300만 달러 기부

-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식량지원사업이 자금난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 사업에 미화 3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 클라우드야 폰 로엘 북한주재 WFP대표는 방송에 “러시아가 지난해 성탄절 직전 300만 달러 기부를 약속해서 연초에 이 지원금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 WFP는 지금까지 대북 사업과 관련해 브라질,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4개국과 유엔으로부터 1천 845만 달러를 기부받았으나, 이는 내년 상반기까지 잡혀 있는 이 사업 예산(9천 600만 달러)의 19%에 불과한 액수임.
- 로엘 대표는 “현재 비축분으로는 3월까지만 북한에 식량을 분배할 수 있다. 지원금 부족으로 ‘식량지원 취로사업’은 진행하지도 못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와 산모, 수유모에게만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하는 실정이다”라고 말했음. 또한 “지난해 홍수 등의 이유로 채소 작황이 좋지 않아 이번 겨울에 특히 김장 김치 부족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 <http://www.voanews.com> (미국의 소리방송, 러시아, 北식량지원에 300만 달러 기부, 2011.1.7)

3. 북중 교역 동향

● 북한의 곡물 수입 동향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실적, 2009~2010

단위 : 수입액(천 달러)

품 목 HS코드	보 리 1003	옥수수 1005	쌀 1006	잡 곡 1007~08	밀가루 1101	두 류 1201	합 계
2009. 1	0	0	905	0	368	0	1,273
2	0	609	1,432	0	272	0	2,313
3	122	354	2,297	0	739	1,551	5,063
4	0	371	1,250	0	430	3,512	5,563
5	0	3,745	2,474	21	927	5,171	12,338
6	0	7,483	2,061	63	584	500	10,691
7	0	1,885	2,483	0	3,203	45	7,616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0	5,281	7,757	28	6,212	11	19,289
2009.1-12	122	19,729	20,660	111	12,734	10,810	64,146
2010. 1	0	806	4,420	46	97	932	6,301
2	332	79	806	88	25	151	1,481
3	17	1,199	2,350	23	2,881	47	6,517
4	4	1,704	1,390	63	4,120	8,024	15,305
5	0	4,205	1,902	93	4,184	2,831	13,215
6	0	2,416	1,154	21	4,718	1,576	9,885
7	0	3,396	2,459	0	1,219	0	7,074
8	0	2,541	2,088	0	953	33	5,615
9	0	1,488	4,922	35	4,103	808	11,423
10	0	1,314	5,270	39	5,715	496	12,834
11	7	2,459	3,656	0	6,343	86	12,551
12	0	1,902	5,002	78	5,836	150	12,968
2010.1-12	360	23,509	35,439	468	40,241	15,134	115,169

주 : 2009년 8월 이후 중국은 북중교역 통계를 발표하지 않다가 12월에 다시 발표함. 2009년 12월의 통계치는 8-12월의 누계임.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실적, 2009~2010

단위 : 수입량(톤)

품 목 HS코드	보 리 1003	옥수수 1005	쌀 1006	잡 곡 1007~08	밀가루 1101	두 류 1201	합 계
2009. 1	0	0	2,621	0	1,248	0	3,869
2	0	2,670	4,022	0	928	0	7,620
3	350	1,492	6,191	0	2,352	3,277	13,662
4	0	1,574	3,474	0	1,431	8,903	15,382
5	0	15,966	6,489	54	2,942	12,566	38,017
6	0	30,884	5,331	155	1,872	829	39,071
7	0	7,748	6,419	0	10,545	75	24,787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0	22,785	19,141	59	18,949	22	60,956
2009.1-12	350	83,119	53,687	268	40,265	25,701	203,364
2010. 1	0	3,448	8,425	104	304	1,553	13,834
2	955	324	1,908	200	75	255	3,717
3	50	4,951	5,978	52	8,682	75	19,788
4	6	6,569	3,604	154	12,373	13,741	36,447
5	0	16,122	4,490	222	12,591	4,846	38,271
6	0	9,351	2,916	47	14,318	2,706	29,338
7	0	12,203	6,223	0	3,601	0	22,027
8	0	9,047	4,831	0	2,787	58	16,723
9	0	5,764	11,830	60	11,573	1,222	30,449
10	0	4,770	12,933	60	15,815	915	34,493
11	10	8,546	9,231	0	17,374	145	35,306
12	0	6,536	11,578	120	14,818	250	33,301
2010.1-12	1,021	87,630	83,947	1,019	114,311	25,766	313,694

주 : 2009년 8월 이후 중국은 북중교역 통계를 발표하지 않다가 12월에 다시 발표함. 2009년 12월의 통계치는 8-12월의 누계임.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 2010년 9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류의 총량은 34,493톤으로 전월에 비해 13% 증가하였음.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곡물류 수입 총량은 245,087톤으로 2009년 총수입량을 초과하였음.
 - 북한은 5월에 38,271톤의 곡물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연중 최대치를 기록한 후 8월까지 4개월째 수입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9월 이후 수입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1~10월의 곡물 수입액 누계는 8,965만 달러로 2009년의 총수입액을 40%나 초과하였음. 금년 들어 곡물의 수입량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옥수수, 쌀, 밀가루, 콩 등 모든 곡물류의 수입단가가 모두 상승하였기 때문임. 특히 금년에는 쌀과 콩의 수입 단가가 크게 상승하였음.
 - 2010년 10월의 수입 곡물 구성은 9월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음. 9월과 마찬가지로 쌀과 밀가루의 수입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나머지 곡물은 수입량이 소폭 감소하였음.

- 2010년 10월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의 톤당 평균 가격은 372달러로 5월의 345달러, 6월의 337달러, 7월의 307달러, 8월의 335달러와 비교하면 높은 편이지만 9월과는 큰 차이가 없음. 금년 1월에서 10월까지 수입한 전체 곡물의 평균 도입 가격은 365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높은 수준임.
 - 10월의 곡종별 톤당 평균 수입단가는 쌀 407달러, 옥수수 275달러, 밀가루 361달러, 콩 542달러로 옥수수와 밀가루 가격은 소폭 상승한 반면 쌀과 콩은 수입 가격이 하락하였음.

- 2010년 10월 말 기준 미국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쌀의 국제가격(본선인도가격/FOB 1등급 정곡 기준)은 톤당 794달러, 태국산 장립종 쌀 가격(FOB, 100% Grade B 정곡 기준)은 톤당 501달러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음.
 - 2010년 10월 미국 캔사스상품거래소(KCBOT)의 2010년 10월 인도분 밀 선물가격은 톤당 283달러로 전년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음.
 - 2010년 10월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2010년 10월 인도분 옥수수 선물가격은 톤당 228달러로 강세를 보이고 있음.
 - 2010년 10월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2010년 10월 인도분 대두 선물가격은

톤당 450달러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음.

- 2010년 11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류의 총량은 35,306톤으로 전월에 비해 2.4% 증가하였음. 2010년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곡물류 수입 총량은 280,393톤으로 2009년 총수입량을 37.8% 초과하였음.
 - 2010년 1~11월의 곡물 수입액 누계는 1억 2,201만 달러로 2009년의 총수입액을 59.3%나 초과하였음. 금년 들어 곡물의 수입량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옥수수를 비롯하여 쌀, 밀가루, 콩 등 모든 곡물류의 수입단가가 모두 상승하였기 때문임. 특히 금년에는 쌀과 콩의 수입 단가가 크게 상승하였음.
 - 2010년 11월의 수입 곡물 구성은 10월에 비해 쌀의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옥수수 및 밀가루의 수입이 증가하였음.

- 2010년 11월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의 톤당 평균 가격은 355달러로 10월의 372달러에 비하면 약간 하락하였음. 금년 1월에서 11월까지 수입한 전체 곡물의 평균 도입 가격은 364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높음.
 - 11월의 곡종별 톤당 평균 수입단가는 쌀 420달러, 옥수수 266달러, 밀가루 346달러, 콩 587달러로 옥수수와 밀가루 가격은 소폭 하락한 반면 쌀과 콩은 수입 가격은 상승하였음.

- 2010년 11월 말 기준 미국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쌀의 국제가격(본선인도가격/FOB 1등급 정곡 기준)은 톤당 852달러, 태국산 장립종 쌀 가격(FOB, 100% Grade B 정곡 기준)은 톤당 534달러로 강세를 보이고 있음.
 - 2010년 11월 미국 캔사스상품거래소(KCBOT)의 2010년 11월 인도분 밀 선물가격은 톤당 272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9% 상승하였음.
 - 2010년 11월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2010년 11월 인도분 옥수수 선물가격은 톤당 218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5%나 상승하였음.
 - 2010년 11월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2010년 11월 인도분 대두 선물가격은 톤당 460달러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에 비해 32%, 전월에 비해 9% 상승하였음.

- 2010년 12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류의 총량은 33,301톤으로 전월에 비해 5.7% 감소하였음.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곡물류 수입 총량은 313,694톤으로 2009년 총수입량과 비교할 때 54.3% 증가하였음.
 - 북한은 5월에 38,271톤의 곡물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연중 최대치를 기록한 후 8월까지 4개월 간 수입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9월부터 수입량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 2010년 곡물 총수입액은 1억 1,500만 달러로 2009년의 총수입액을 80%나 초과하였음. 금년 들어 곡물의 수입량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옥수수를 비롯하여 쌀, 밀가루, 콩 등 곡물류의 수입단가가 모두 상승하였기 때문임.
 - 2010년 수입 곡물 구성은 중량 기준으로 보리쌀 0.3%, 옥수수 27.9%, 쌀 26.8%, 잡곡 0.3%, 밀가루 36.5%, 콩 8.2%임. 2009년의 경우 보리쌀 0.2%, 옥수수 40.9%, 쌀 26.4%, 잡곡 0.1%, 밀가루 19.8%, 콩 12.6%였음. 2010년은 2009년에 비해 옥수수의 수입 비중은 낮아진 대신 밀가루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특징임.

- 2010년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전체 곡물의 평균 도입 가격은 367달러로 전년의 315달러에 비해 16.5% 상승하였음.
 - 2010년 곡종별 톤당 평균 수입단가는 쌀 422달러, 옥수수 268달러, 밀가루 352달러, 콩 587달러로 2009년에 비해 모든 곡종의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콩의 가격 상승률이 40%로 가장 높았음.
 - 쌀과 밀가루의 수입가격도 전년에 비해 10% 가량 상승하였음.

- 2010년 12월 말 기준 미국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쌀의 국제가격(본선인도가격/FOB 1등급 정곡 기준)은 톤당 871달러, 태국산 장립종 쌀 가격(FOB, 100% Grade B 정곡 기준)은 톤당 554달러로 강세를 보이고 있음.
 - 2010년 12월 미국 캔사스상품거래소(KCBOT)의 2010년 12월 인도분 밀 선물가격은 톤당 279달러(soft red winter 기준)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0% 가량 상승하였음.
 - 2010년 12월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옥수수 선물가격은 톤당 229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5%나 상승하였음.

- 2010년 12월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대두 선물가격은 톤당 482달러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에 비해 30% 이상 상승하였음.

● 북한의 비료 수입 동향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 실적, 2009~2010

단위 : 수입액(천 달러)

품 목 HS코드	N 3102	P 3103	K 3104	기 타 3105	합 계
2009. 1	6,347	0	0	2	6,349
2	1,570	0	0	31	1,601
3	15	0	0	5	20
4	841	0	0	16	857
5	677	0	0	8	685
6	2,396	0	0	1	2,397
7	10,240	0	0	0	10,240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107	12	0	20	139
2009.1-12	22,191	12	0	82	22,285
2010. 1	5,492	0	0	0	5,492
2	7,772	0	0	0	7,772
3	23	0	0	4	27
4	0	0	0	7	7
5	5,105	0	0	11	5,116
6	2,122	0	0	5	2,127
7	17,436	0	0	0	17,436
8	2,221	0	0	1	2,222
9	331	0	0	3	334
10	3	0	0	0	3
11	288	0	0	0	288
12	398	0	0	0	398
2010.1-12	41,191	0	0	31	41,191

주 : 2009년 8월 이후 중국은 북중교역 통계를 발표하지 않다가 12월에 다시 발표함. 2009년 12월의 통계치는 8-12월의 누계임.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 실적, 2009~2010

단위 : 수입량(톤)

품 목 HS코드	N 3102	P 3103	K 3104	기 타 3105	합 계
2009.01	21,900	0	0	5	21,905
2	5,486	0	0	40	5,526
3	59	0	0	8	67
4	6,001	1	0	32	6,034
5	4,589	0	0	10	4,599
6	20,745	0	0	3	20,748
7	46,534	0	0	0	46,534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385	60	0	35	480
2009.1-12	105,700	61	0	132	105,893
2010. 1	16,979	0	0	0	16,979
2	23,529	0	0	0	23,529
3	161	0	0	8	169
4	0	0	0	12	12
5	41,280	0	0	19	41,299
6	17,599	0	0	1	17,600
7	160,553	0	0	0	160,553
8	19,771	0	0	1	19,772
9	3,105	0	0	5	3,110
10	5	0	0	0	5
11	961	0	0	0	961
12	3,305	0	0	0	3,305
2010.1-12	287,248	0	0	46	287,294

주 : 2009년 8월 이후 중국은 북중교역 통계를 발표하지 않다가 12월에 다시 발표함. 2009년 12월의 통계치는 8-12월의 누계임.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 2010년 10월 중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총 5톤(중량 기준)의 비료를 수입함.
 - 이는 전월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이며 금년 들어 수입량이 가장 적음.
 - 2010년 들어 10월까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비료의 총량은 283,028톤임.
 -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북한이 중국에서 도입한 비료의 총량은 요소 43,642톤, 유안 239,329톤으로 유안의 비중이 월등히 높음. 이들 수입비료를 성분량으로 계산하면 70,334톤으로 질소질 비료 총소요량의 30%를 충당하는 양임.
 - 2009년 1년 동안 북한은 중국에서 요소 55,705톤, 유안 49,964톤을 도입한 것을 감안하면 금년에는 10월까지 도입한 양은 지난 1년 동안 도입한 양의 2.7배나 됨.
 - 2008년부터 한국의 대북 비료지원이 중단되면서 북한은 심각한 비료 부족을 겪었으나 7월에는 한꺼번에 16만 톤의 비료를 수입함으로써 비료 부족이 어느 정도 해소됨.

- 2010년 1~10월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의 평균 단가는 143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의 210달러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의 톤당 수입단가는 요소 325달러, 유안 110달러임.

- 2010년 10월 중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총 961톤(중량 기준)의 비료를 수입함.
 - 2010년 들어 10월까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비료의 총량은 283,028톤임.
 - 2010년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이 중국에서 도입한 비료의 총량은 요소 44,603톤, 유안 239,329톤으로 유안의 비중이 월등히 높음. 이들 수입비료를 성분량으로 계산하면 70,776톤으로 질소질 비료 총소요량의 30%를 충당하는 양임.
 - 2009년 1년 동안 북한은 중국에서 요소 55,705톤, 유안 49,964톤을 도입한 것을 감안하면 금년에는 11월까지 도입한 양은 지난 1년 동안 도입한 양의 2.7배나 됨.
 - 2008년부터 한국의 대북 비료지원이 중단되면서 북한은 심각한 비료 부족을 겪었으나 금년 7월 북한은 한꺼번에 16만 톤의 비료를 중국에서 수입함으로써 비료 부족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임.

- 2010년 1~11월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의 평균 단가는 166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의 221달러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 이는 금년들이 북한이 요소보다는 가격이 싼 유안을 집중적으로 수입하였기 때문임.
 - 2010년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의 톤당 수입단가는 요소 325달러, 유안 110달러임.
 - 2009년 같은 기간의 경우 수입 비료의 톤당 단가는 요소 287달러, 유안 124달러로 금년 들어 유안 수입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요소 가격은 크게 상승하였음.

- 2010년 12월 중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총 3,300톤(중량 기준)의 비료를 수입함.
 - 2010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비료의 총량은 287,294톤임.
 - 2010년 1년 동안 북한이 중국에서 도입한 비료의 총량은 요소 44,814톤, 유안 242,367톤으로 유안의 비중이 월등히 높음. 이들 수입비료를 성분량으로 계산하면 71,500톤으로 질소질 비료 총소요량의 30% 정도를 충당하는 양임.
 - 2009년 1년 동안 북한은 중국에서 요소 55,705톤, 유안 49,964톤을 도입한 것을 감안하면 2010년 도입량은 전년의 2.7배나 됨.
 - 2008년부터 한국의 대북 비료지원이 중단되면서 북한은 심각한 비료 부족을 겪고 있는데다 국내 비료 생산마저 부진하여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

- 2010년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의 평균 단가는 143달러로 2009년의 210달러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 이는 2010년 북한이 가격이 비싼 요소보다는 가격이 싼 유안을 집중적으로 수입하였기 때문임.
 - 2010년 비료 톤당 수입 단가는 요소 325달러, 유안 110달러로 2009년에 비해 요소의 가격은 상승하였으나 유안은 하락하였음.
 - 2009년 수입 비료의 톤당 수입 가격은 요소 287달러, 유안 124달러였음.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5

북한의 농업관련연구



자연자원과 사회주의사회에서 그 이용의 특징¹⁾

정영룡

- 김정일은 “사람은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하여야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마련해나갈 수 있다”라고 지적하였음.
-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과정은 사람들이 생산의 물질 요소를 이루는 자연자원을 개발하고 자기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하여 이용하는 과정임.
- 자연자원이란 노동력자원, 정보자원, 재정자원 등을 제외한 생산적 및 비생산적 목적에 쓰이는 자연형태의 자원을 말함.
 - 비생산적목적에 쓰이는 자원은 생산적 목적이 아닌 사람들의 건강을 보장하거나 문화휴식, 미학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사용되는 치료용자원, 관광자원을 말함.
- 자연자원은 몇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첫째, 천연물이라는 것임. 이는 자연자원이 자연법칙자체에 의하여 형성되고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함.
 - 둘째, 물질적 부생산의 기본원천임. 사람들은 자연계에 있는 자연적 요소를 개발하고 개조하여 이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의 생존과 발전의 물질적 요구를 충족시키게 됨.
 - 셋째, 그 이용이 상대적 성격을 띠고 있음. 이는 자연적요소가 어느 한 시점에서 그 이용이 제한되어 있지만 사람의 창조 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그 이용범위가 더욱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함.

1)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56권 제4호, 2010.

- 모든 자연자원은 여러 가지 형태의 자원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연자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알아야 함.
 - 각 사회에서 자연자원의 개발이용은 확립된 사회경제제도에 따라 그 목적과 계획적, 합리적 이용정도 등에서 서로 구별됨.
-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자연자원의 이용은 자본주의 사회와 본질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짐. 무엇보다도 자연자원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개발이용됨.
 -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기 때문임.
- 또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자연자원이 계획적으로 개발이용 됨. 오직 생산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되어있고 인민대중이 경제의 주인인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자연자원의 계획적 개발이용이 가능함.
 - 사회주의에서는 모든 경제활동이 목적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조건에서 자연자원의 개발과 이용도 계획적으로 이루어짐.
- 마지막으로 자연자원이 가장 합리적으로 이용됨.
 -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자원을 국가가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인민경제 발전의 현재와 장래수요를 다 같이 타산한데 기초하여 자연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이용함.

생물 산업의 환경보호 역할과 그 우월성²⁾

리 혁

-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문을 열기 위해 환경보호사업을 적극 실시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중요한 요구임.
 - 현대생물공학기술의 발전에 기초하여 출현한 생물산업은 새로운 산업분야로서 오늘날 환경보호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김정일은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은 현시대 과학기술발전 핵심기초기술이다. 최신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사회경제생활에서의 과학기술적 변혁은 다 정보기술과 나노기술, 생물공학의 발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였음.
- 생물산업은 현대생물공학기술에 기초하여 사람들에게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산업분야임.
 - 생물산업은 생산과정을 생물공학적 과정으로 전환시켜 생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함으로써 지난 시기보다 커다란 경제적 효과를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매우 유리하여 경제의 여러 부문에 급속히 침투하고 있으며 21세기 가장 전망성 있는 산업의 하나임.
- 생물산업은 환경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화학공업의 생산기술공정을 변화시켜 환경오염현상을 근원적으로 없애는 데서 찾아볼 수 있음.
 - 생물산업에서는 전통적인 생산기술공정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물질의 합성을 화학적 방법이 아닌 생물학적 방법으로 전환시킴.
 - 이러한 공정에서 기술공정과 생산방법을 개선하면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차단

2)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56권 제4호, 2010.

- 하거나 높은 온도와 압력 대신 보통조건에서의 생산을 보장할 수 있음.
- 종전의 화학공장들이 이러한 생물반응체계로 교체된다면 수많은 유도성가스와 유독성 물질의 배출을 없애고 환경보호사업에서 커다란 변혁이 일어날 수 있음.
- 이러한 환경보호사업에의 변혁은 농업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살충제와 살초제 등이 이용됨. 이는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켜 전반적인 생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줌.
 - 현 시기 농업생산에서 세포공학, 유전자공학과 같은 최신과학기술성과를 받아들여 살초제와 살충제를 적게 쓰면서도 높은 소출을 낼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되고 있음.
 - 유전자전이담배품종을 포전시험한 결과 담배밤나무유충을 비롯한 해충을 완전히 구제하였고 벼, 강냉이, 콩, 남새 등 여러 유전자전이작물에서도 높은 비율의 해충구제효과를 얻을 수 있었음.
 - 살초제 또한 살초제저항성유전자를 해당 작물에 전이하여 보통 작물에 비해 살초제에 대한 저항성을 높인다면 보다 적은 양의 살초제를 가지고도 안전하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음.
- 현재 유기농법은 환경보호에 매우 유리한 농법으로 인정되고 있음.
- 유기농법은 무기물질로 이루어진 비료와 살초제, 살충제를 전혀 쓰지 않는 농법임.
 - 유기농법을 받아들이면 지력을 높이고 농업생산량을 늘릴 수 있으며 공업생산공정을 현대화할 뿐 아니라 환경에 피해를 주는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 현재 당의 농업혁명방침에 따라 고리형생산체계를 확립하고 복합미생물비료와 같은 유기질비료와 농약을 개발하고 도입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환경보호산업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룩하고 있음.
- 생물산업의 발전에 의한 환경보호는 종래의 환경보호대책들보다 비할 바 없는 우월성을 지니고 있음.

E02-2010-04 KREI 북한농업동향 제12권 제4호

찍 은 날	2011. 1	펴낸날	2011. 1
발 행 인	오 세 익		
펴 낸 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el. 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9-1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 은 곳	크리커뮤니케이션 (代)2273-1775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